

KOREAN ARCHITECT

건축사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December 1991

1991년 12월호
12월 10일 발행
12월 10일 창간
12월 10일 제1호
12월 10일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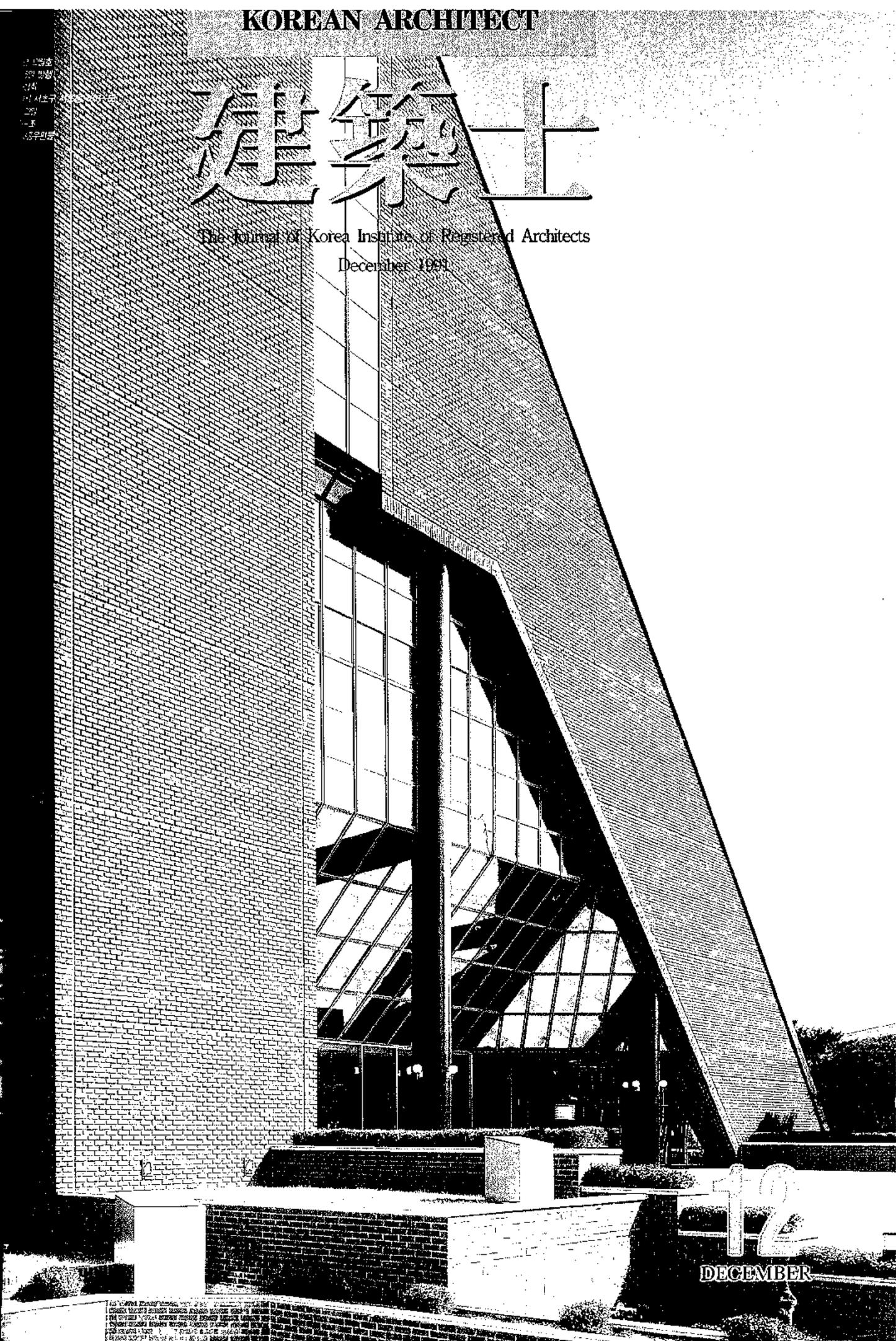
가

가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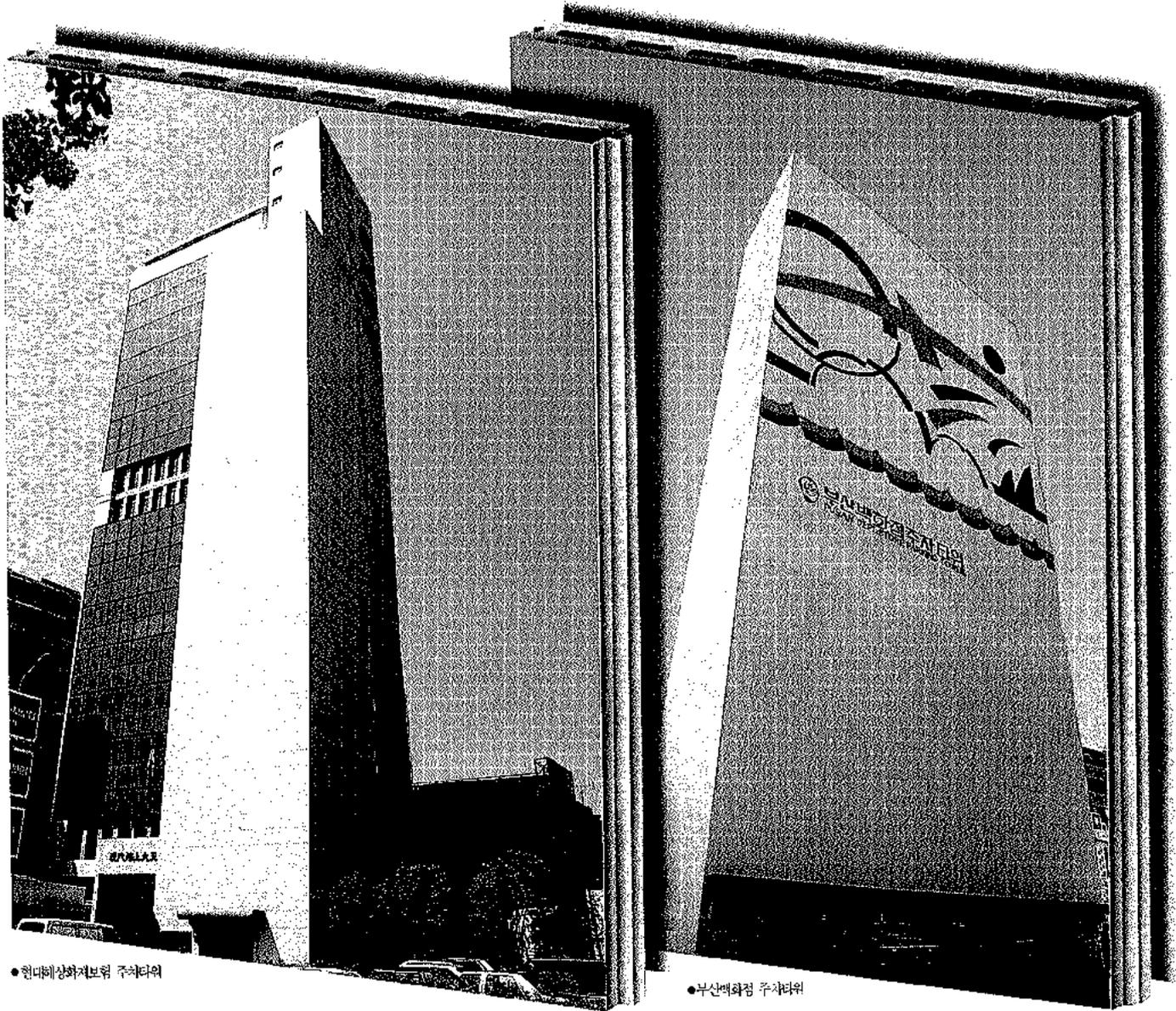
선품질

유



1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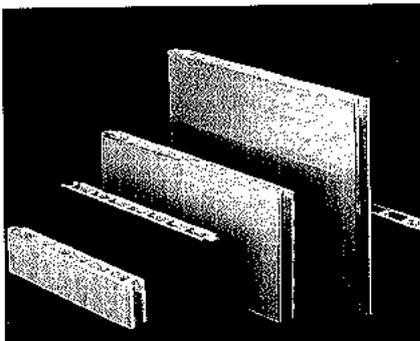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likely a copyright notice or publication information.



● 현대상화저보워 주차타워

●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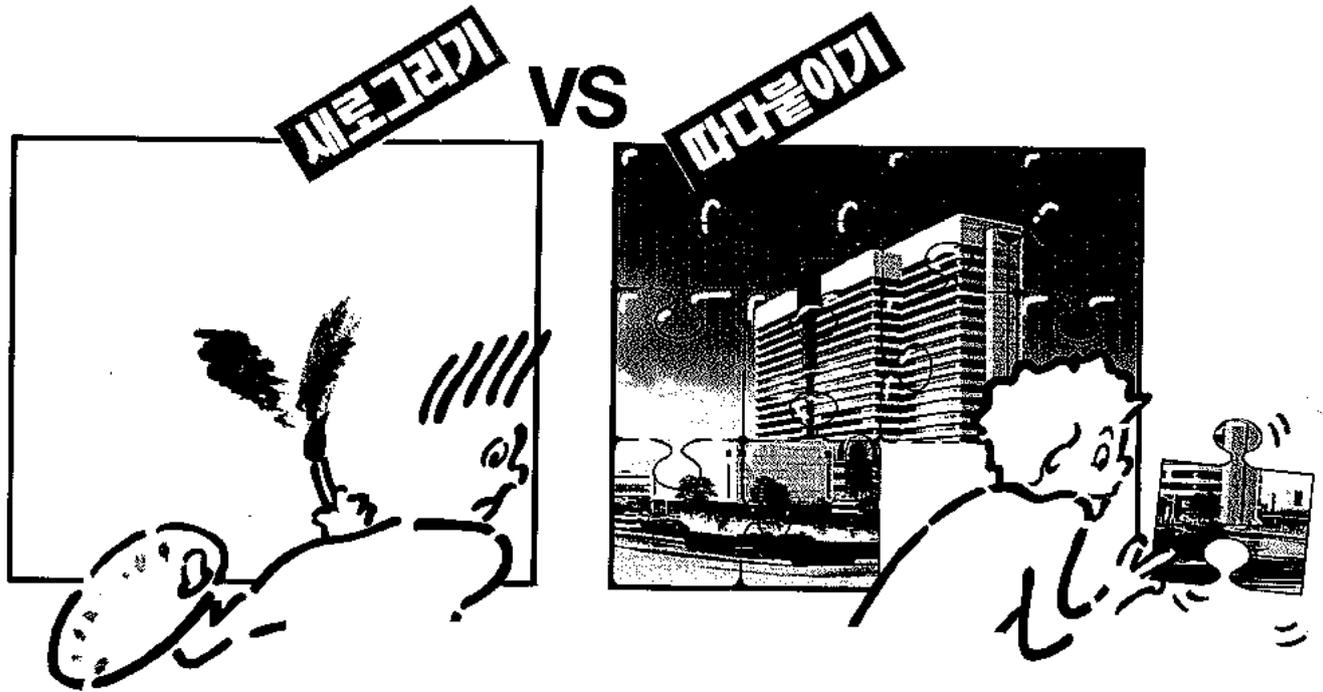
베이스판 시멘트틀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브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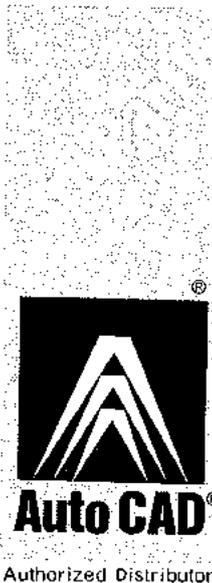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 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회사 Q, C업무의 기준 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독립기초, 기둥, 옹벽, 철골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탕의 조건이나 마감재료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 구성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집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문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분별 상세 및 기타문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 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위실, 기구 : 화장실, 주방, 클린룸, 냉동실 및 카운터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의 외부시설물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미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오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가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주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모서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붙이기, 창호철면상세의 자동설계삽입, 출입문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적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층고로 최적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만의 기입, 업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이, 기둥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기설정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보유

-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말하였음
-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 CADSPED는 동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A/S 15개월

서통 AI사업부는 AutoCAD, ARRIS 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Base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선전자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 SYSTEM
 - COBRA 386S ● COBRA 486
- MONITOR
 - NEC-2A(14"), 3D(14"), 4D(16"), XI(20"), 5D(20") ● HITACHI CM2035
- GRAPHIC CARD
 - AutoPACK ● X series 16, 256 ● Cobra Plus 3bit-HS16, 256
- PLOTTER
 - MUTOH iP-530E, iP-530EL, F-920E, F-920ER
- DIGITIZER
 - GTCO SketchMaster 12x12, 12x18 ● Super L 24x36, 36x48, 42x60
- S/W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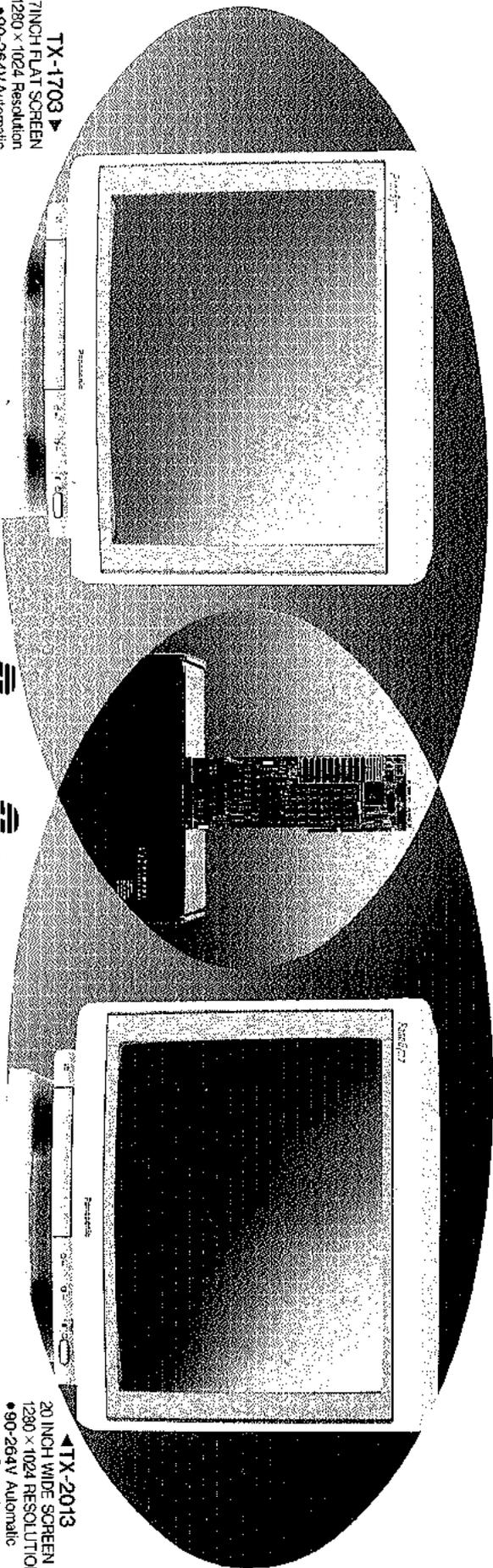
교육장/전시장/A/S CENTER

- 서울 :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 교육장 : 대한건축사협회 1층 TEL: 521-7296
- 부산 : 중구 중앙동 47가 76-21 동도빌딩 1층 태항캐드프스 TEL: 464-6450
- 대구 : 중구 동인동 37가 271-17 TEL: 421-2856



서통 AI사업부 5140-386

천연의 COLOR를 퍼나소닉모니터에 실현한다!



- TX-1703 ▶**
 17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TX-1713 ▶**
 17INCH FLAT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Pansync

저렴은 우주에 민물이 형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이들은 미처사다가 **Pansync** 라는 기술력으로 천연의 컬러를 모니터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 우리는 **퍼나소닉 브랜드**의 컬러모니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한주내 **서울시업무**를 통하여 하나씩 펼쳐 가고져 합니다.

또한, 모든이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를 **고해상도 컬러모니터**에 담기위해 언제나도 우리는 모든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40-386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TX-2013**
 20 INCH WIDE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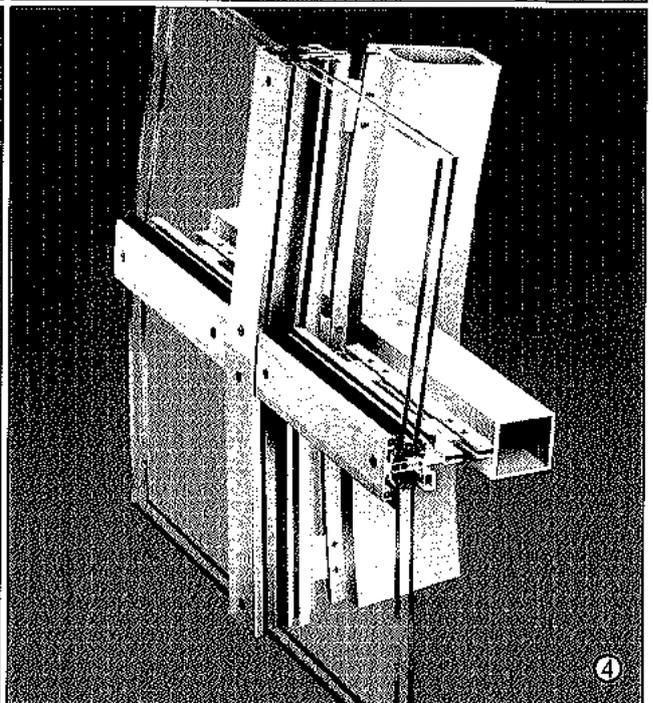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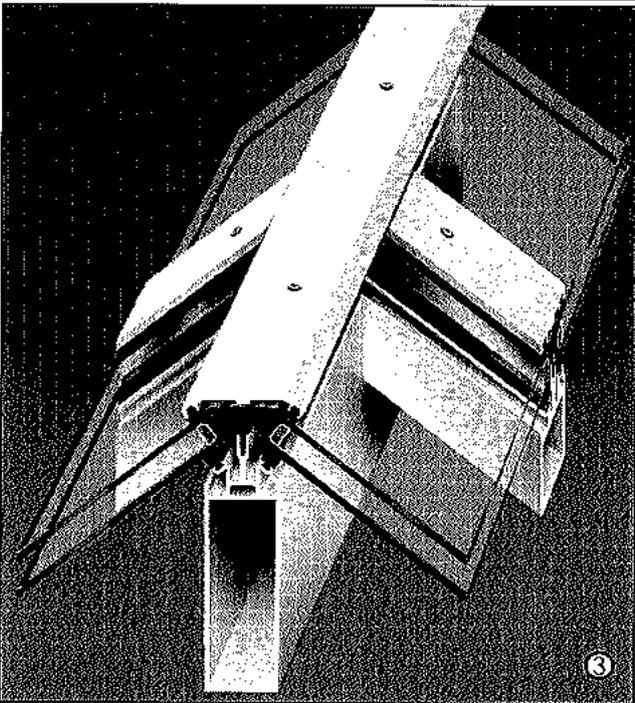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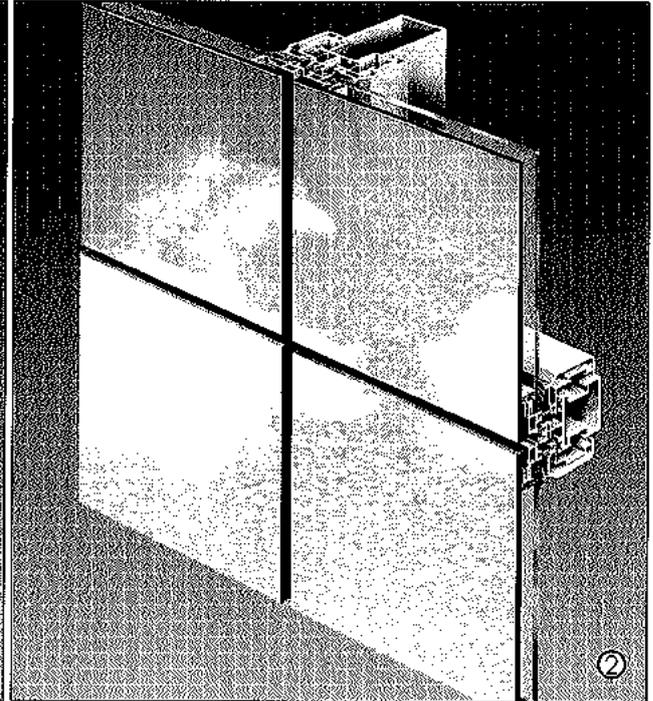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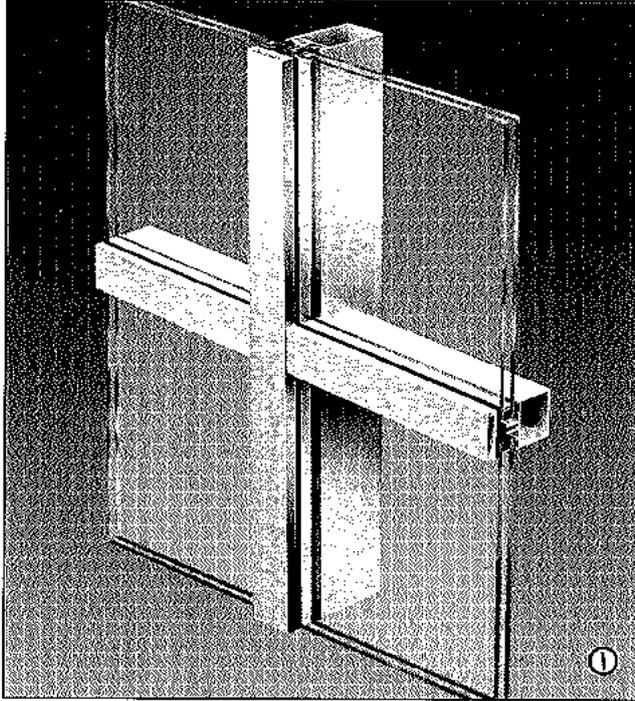
- TX-2103**
 21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컴퓨터 CAD TOWN (컴퓨터)
 컴퓨터 · 컴퓨터 · 전자장

서울 ● 강남: 단원동 6-21 서울시업무 514-0386 (통신) ● 서면상가: 19동 3F 다-320호 태오컴퓨터 711-8561 ~ 2 ● 선인상가: 21동 5F - 00호 피지컴 703 2905 ● 화곡상가: 6동 3F 35호 영광컴 5175-2775
 ● 경계동: 3F-B-318호 동시스텝 718-1103 ● 대명상가: 2F 35호 동신전자 703-7763 ● 부성동구 중앙동 421-76-21 동도빌딩 1층 대명테크닉스 464-6450 (다구) 동구 동인동 371-271-11 다구전자 421-2866
 ■ A/S Center ● 서울 본사: (02)514-0386 ● 부산지사: (051)421-2856
 ■ Education Center ● 서울 건국시원회: 521-7296 ● 본부: 514-0386 ● 부산 중앙동 44-3476 ● 대구 중앙동 421-2857

고해상도 컬러모니터
Panasonic
 서울 시업무 5140-386

새로운 개념의 커튼월, 이견창호파사드시스템



독일식 명품창문 이견창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파사드 시스템은 최고의 건축물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커튼월(CURTAIN WALL) 제품입니다.

파사드시스템은 색상과 유리의 선택은 물론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주문제작이 가능한 고급 커튼월로, 설계자의 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사드시스템은 독일의 슈코(SCHÜCO)사와 기술제휴로 창호전문회사 이견창호에서만 생산, 공급되며 시공은 물론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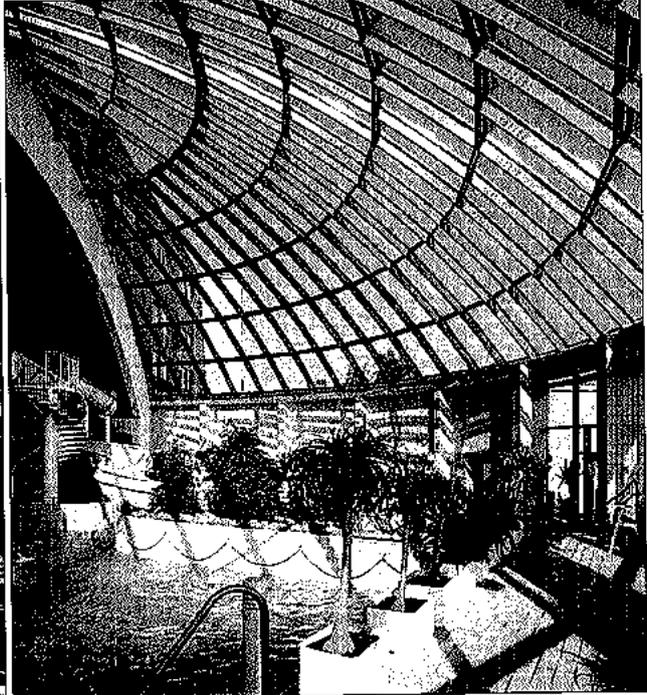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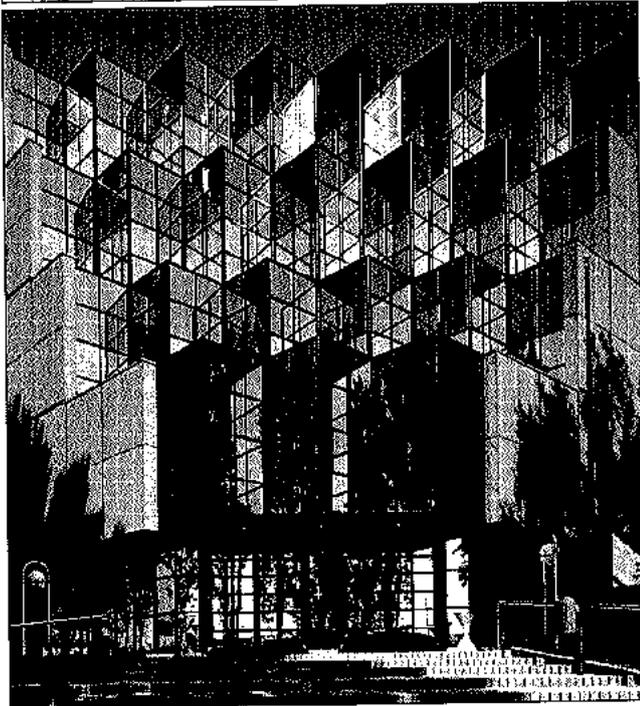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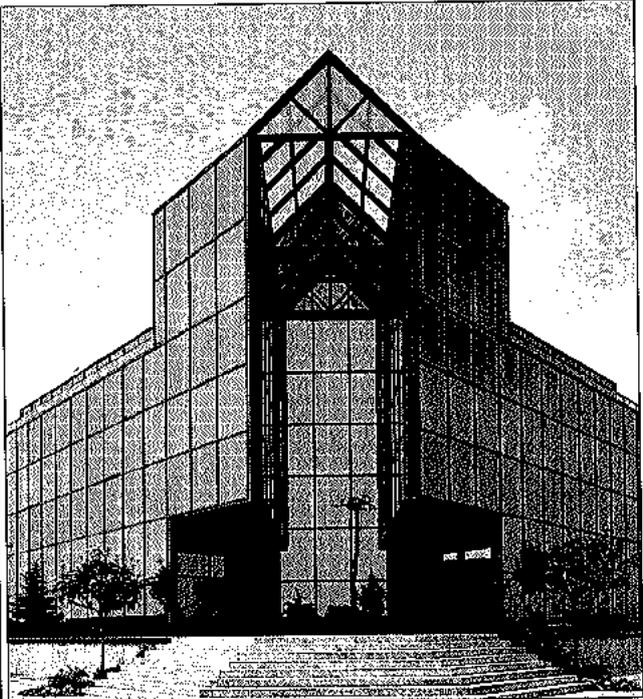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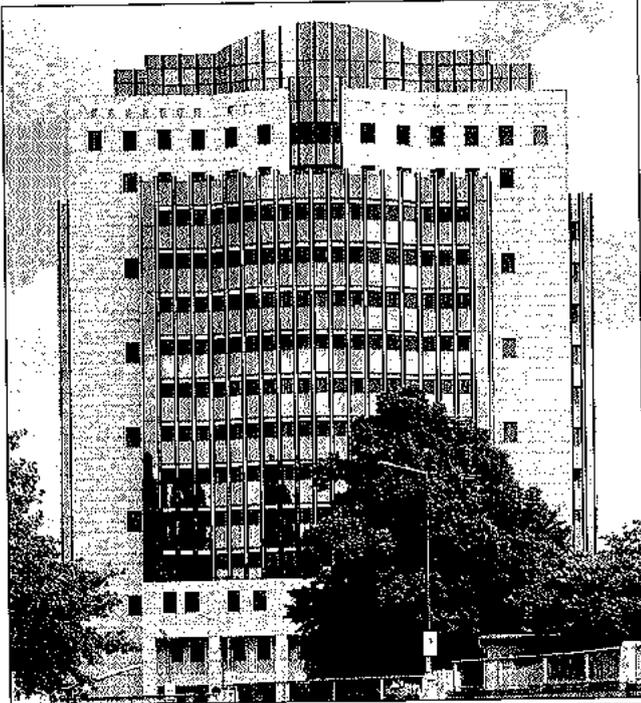
① 파사드시스템 FW50 : 외부로 노출되는 프레임의 폭을 50mm로 극소화시켜 날렵한 외관을 연출하는 수직형 커튼월 제품입니다.

② 파사드시스템 SG50 :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외관을 유리나 천연대리석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사드시스템 SK60 : ROOF와 천정에 적합한 경사구조의 커튼월 제품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수시스템이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④ 파사드시스템 BV60 : ARCH와 DOME구조 등 곡선형구조를 위한 커튼월 제품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창조적 설계가 살아납니다.



파사드시스템은 POLYAMID계의 단열바(BAR) 등 신소재와 독특한 구조를 사용, 기존의 커튼월이 갖고 있던 자연 환기 부족과 단열, 누수, 결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공전에 하중과 풍압을 고려한 완벽한 구조설계와 MOCK-UP TEST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에서도 확실합니다.

이제, 창문에 관한 문제라면 이견창호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시스템 선정과 견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이견창호의 전시장으로 오시면 새로운 창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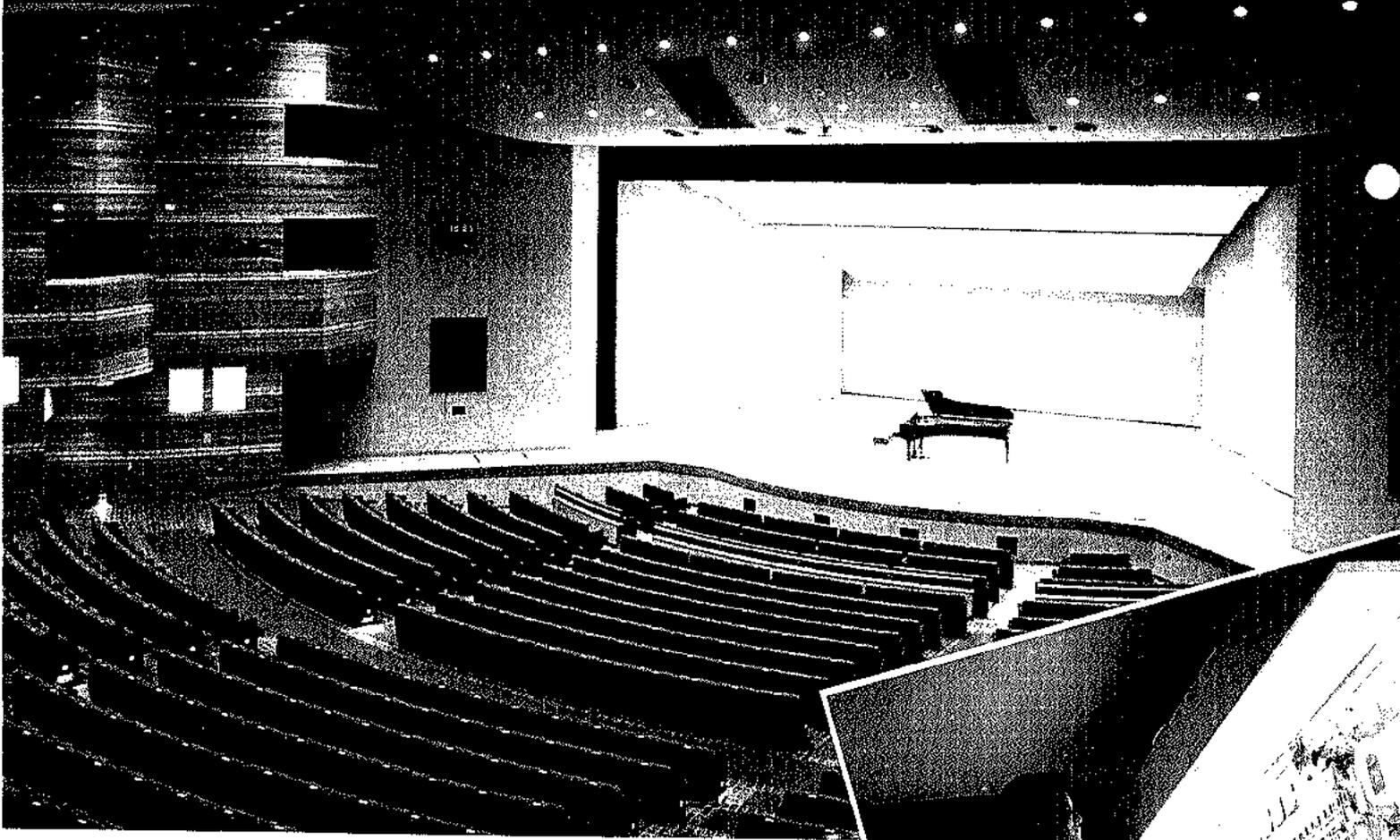
- 상설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02)563-2071 FAX: (02)563-5528
- 논현동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9-7 태석빌딩 3층
전화: (02)590-2071 FAX: (02)540-2080
- 부산전시장 주소: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 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FAX: (051)557-2077
- 제주전시장 주소: 제주도 노형동 928-8 골드건축자재배화점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FAX: (064)42-3486

* 대구전시장이 곧 오픈합니다.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EAGON INDUSTRIAL Co. GmbH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워커히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인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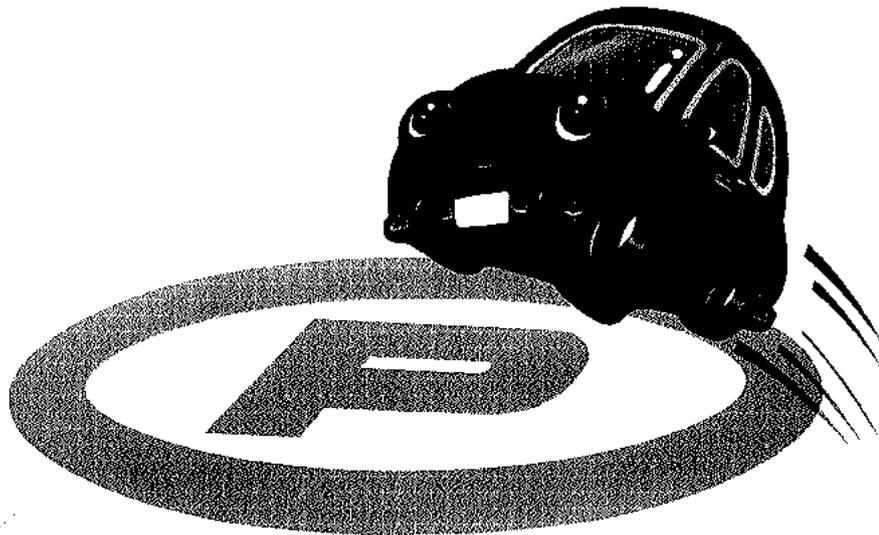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3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차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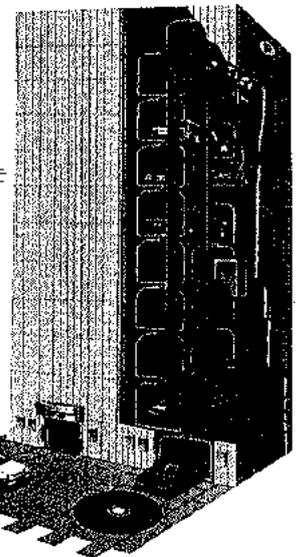
대형차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프레임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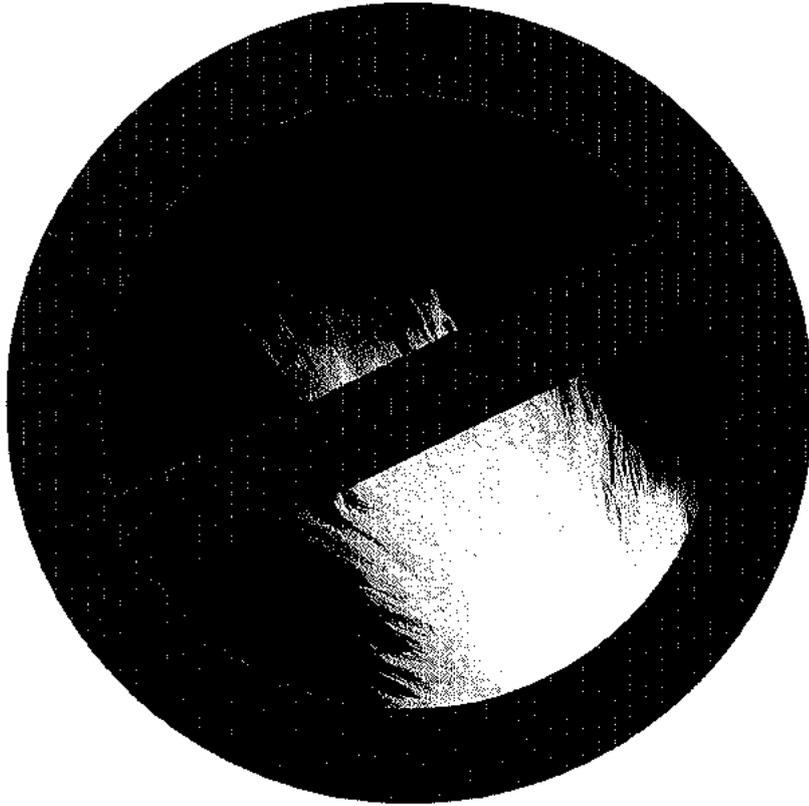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판조립식 주차장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외에서 10여년전부터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하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다양한 주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차 설비는 안전, 신뢰, 효율,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차 설비는 국내외에서 10여년전부터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하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다양한 주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차 설비는 안전, 신뢰, 효율,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화 / 재 / S / T / O / P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료 인정받은 두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써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견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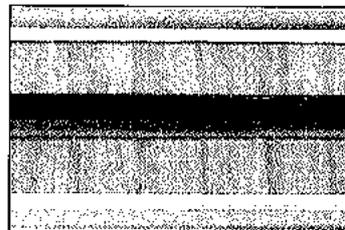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결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무게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C
P.U.R	110°C
P.I.R	180°C
페놀폼	200°C
그라스울	350°C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알 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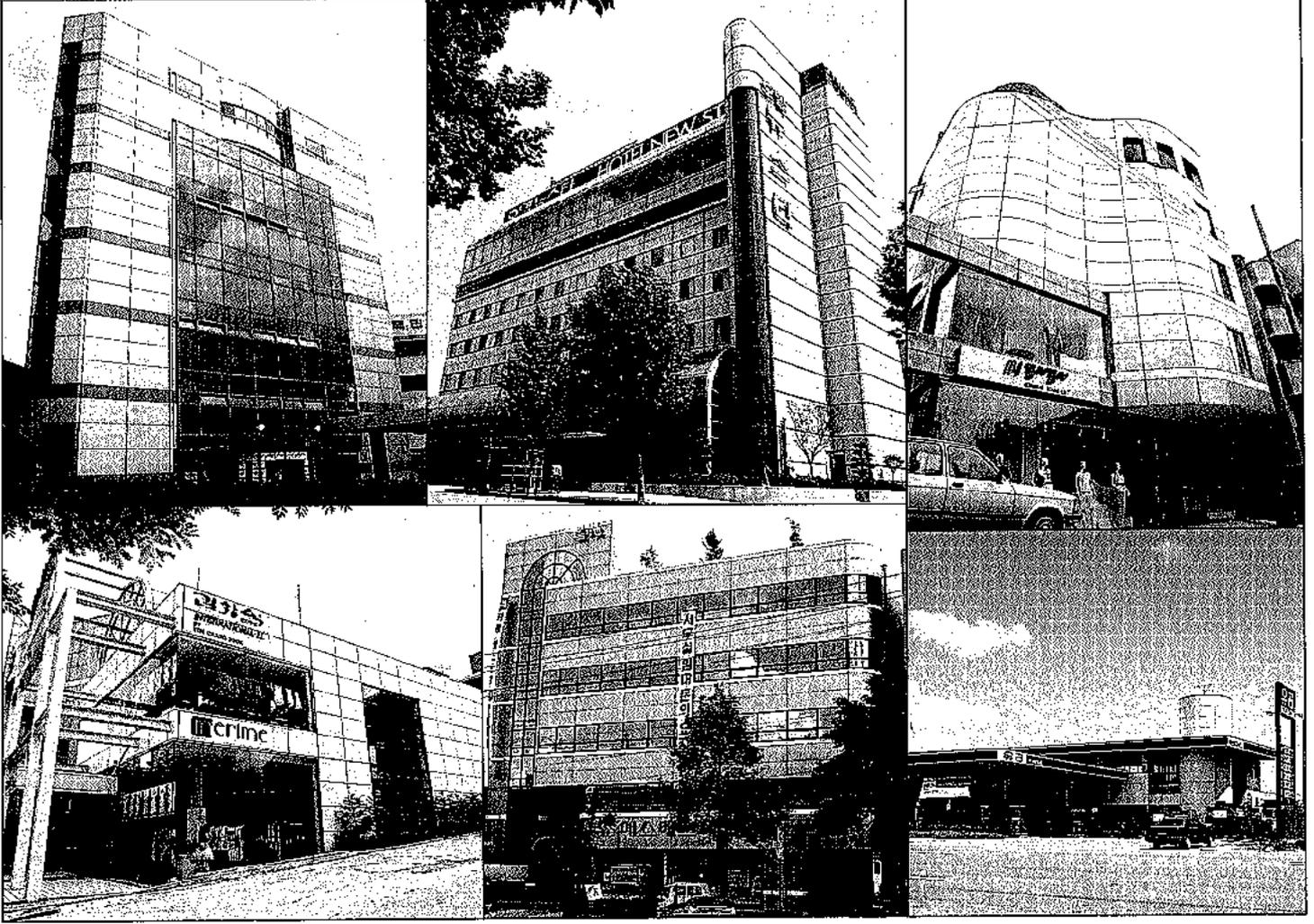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원리 39-2
TEL: (02) 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홍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내·외장재의 혁신

아키렉스

— ARCHITEXKS(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알루미늄판,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겹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처음의 효과를 낼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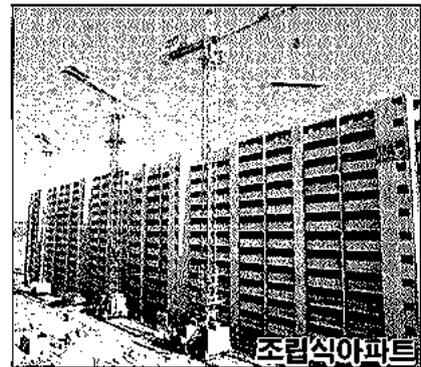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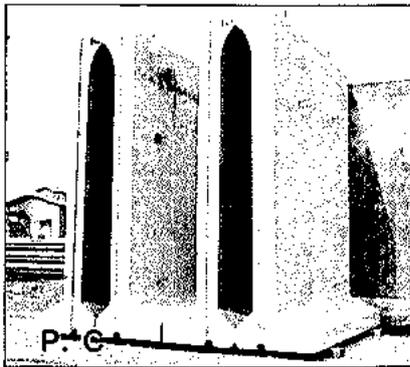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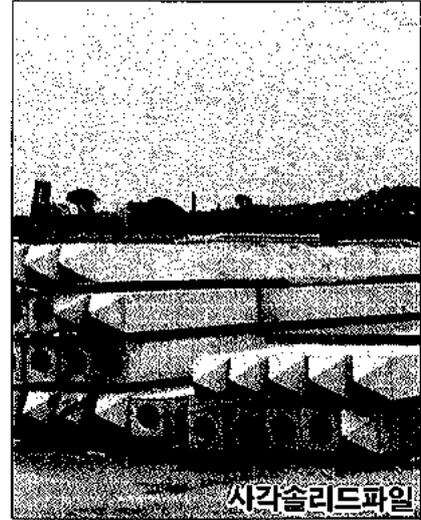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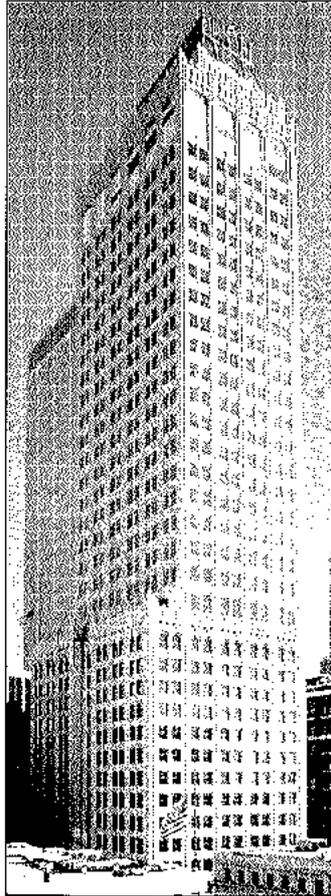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대치동 1007-3 총회화관1층 TEL. (02)562-1264, 568-3474~6, FAX. (02)566-0856



G.R.C / P.C / 사각슬리드PILE

한국하이콘(주)는
조립식 건축자재(GRC, PC)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
공기단축, 도시건축의 공간해결, 정부의 조립식 주택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생산제품

- GRC 판넬
- TPC, GPC
- 조립주택 및 빌딩용판넬
- 4각 슬리드파일

한국하이콘(주)는 유럽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력과 강도가 높은 4각 슬리드 PILE을
국내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하이콘(주)는 PCI회원으로써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R.C 제품의 특징

- ▲ **유용성**: 파괴강도, 충격강도가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표면재가 불연성 G.R.C로 내화성, 흡음성 및 방수, 방습이 완벽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영구벽체입니다.
- ▲ **의장성**: 초경량이지만 콘크리트의 중후한 질감과 세련되고 그래픽한 미관 및 쾌적한 색채,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의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 **시공성**: 조인트공법+조립식 Dry-Wall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의 단축,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MBER

pci
PRESTRESSED
CONCRETE

한국하이콘(株)
HI-CON KOREA, LTD

0458-9440

本社·工場: 忠南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25-1

TEL. (0458)37-0508 (代)

FAX. (0458)37-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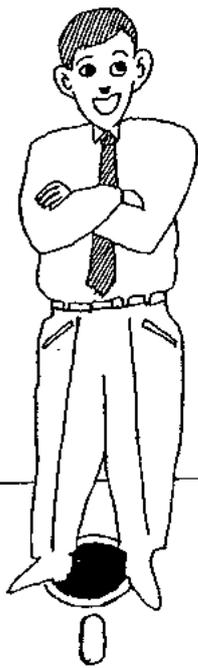
02-554-6880

서울事務所: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 韓州빌딩 303호

TEL. (02)554-6881 (代)

COST PLANNING 공사비? = 적산전문용역업체!

- 오로지 "積算"한 길로만 "성실과 자부심"으로 18年 연구로 ENGINEERING의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 향후 "積算士"제도의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 (1) 기술력 추구
- (2) 업무의 전산화/MODULE화
- (3) 공사비 산정에 따른 종합 CONSULTANT 관장



설계 내역서 작성

- 관공서 및 일반 건축주의 설계금액 산출과 설계변경, 공사완료시 청산작업의 씨어비스

실행 예산서 작성

- 시공회사 및 건축주의 집행공사비 산출 및 DATA 씨어비스 업무

HE (株) 現代 積算 엔지니어링

(本社) 서울·서초구 서초동 1503-15호
(양우빌딩 4층)
대표전화 : 587-7 2 1 1
F A X : 587-6 8 6 5
(支社)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272-3
전화 : (053) 751-6 7 5 4
FAX : (053) 751-6 7 5 4

적산업무의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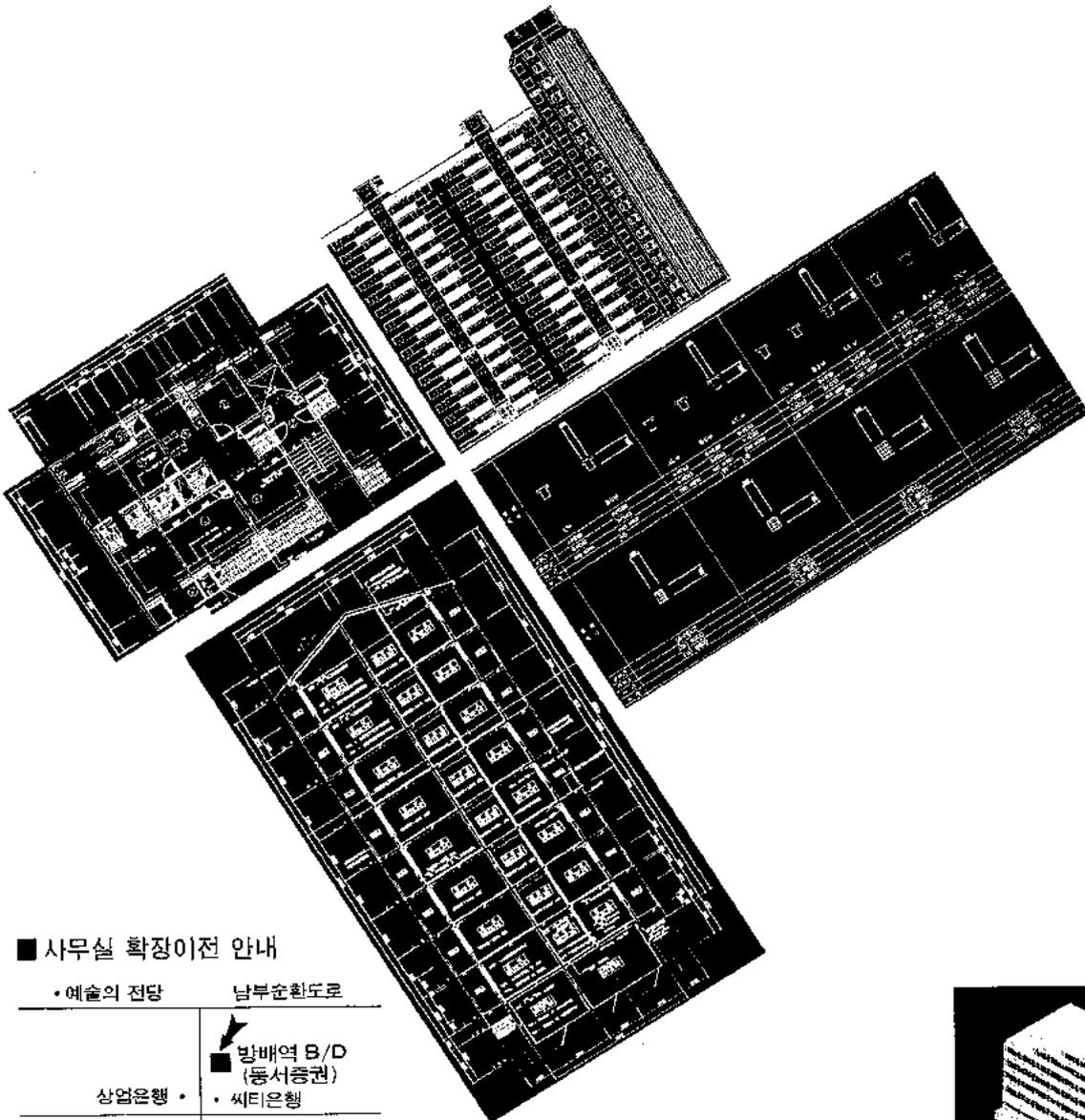
- 과거의 많은 인원과 시간의 소요를 전산에 의한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전환

작업완료후의 A/S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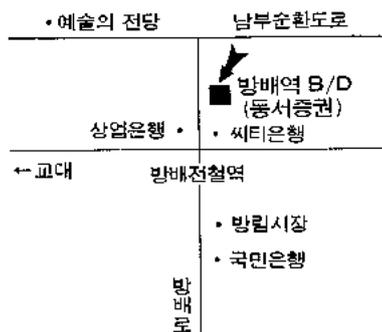
- 관공서 및 발주처의 CHECK 업무대행 및 설계변경, 기타 청산작업의 씨어비스 업무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적합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 사무실 확장이전 안내



※ 전화 및 FAX번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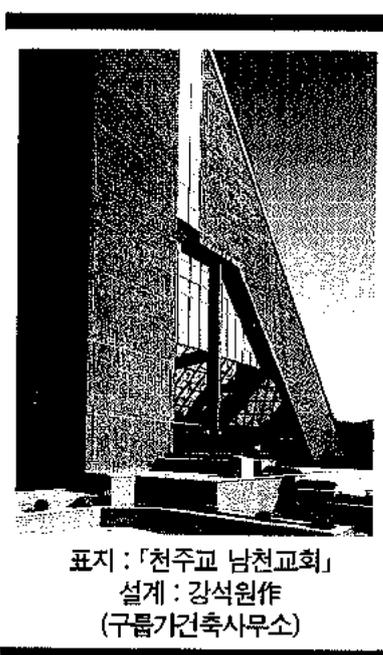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호
 방배역 B/D (동서중권) 5층
 TEL: (02) 536-4057~9
 FAX: (02) 599-4030



- ARRIS에 관한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단 선체, 한글복 선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차례 / 1991년 12월호 통권 제272호

卷頭作	김천공장 종합사회복지관 / 徐輔光	18
	천주교 남천교회 / 姜錫元	22
	충북은행 전산센터 / (주)정림건축	25
	평창동 주택 / 金盛鐸	28
	상지대학교 도서관 / 李榮一	32
	계명대학교 / 金武權	35
	한서상호신용금고 / 朴英昊	38
소 개 지	인스브룩 스키점프경기장 계획(안) / 柳春秀	40
펼쳐며 생각하며	신미년을 보내며 / 崔英集	42
초대詩	바람 속에서 / 金瑛燮	44
企劃 / 설계경기	설계경기 유감 / 藏應在	48
	현상설계경기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張世洋	50
	'91 현상 설계경기당선작 14선	52
研 究	건물의 바닥구조 설계 / 金容孚	66
	채주민가의 주거환경과 변용 / 梁澤訓	68
誌 上 中 論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72
寄 稿	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 참가기 / 김지덕+이정근	82
	ARCASIA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 전봉수+조인숙	88
	제6회 ARCASIA 토론회에 참가하고 나서 / 황길순+김윤정	90
資 料	1991년 10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 / 雜誌의 定期總會消息		94
	'82 한국건축전 작품경모(43pag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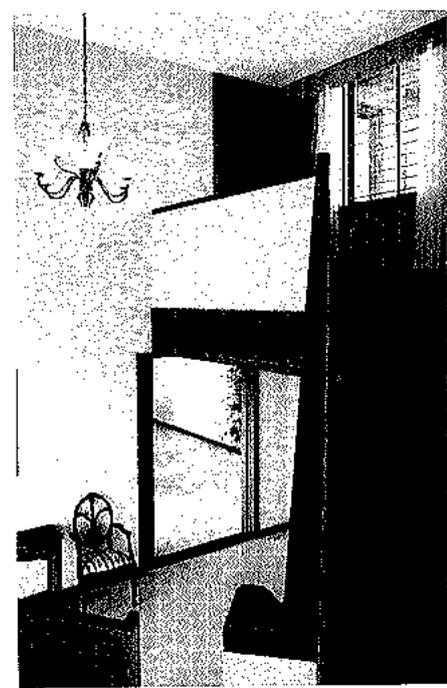


표지: 「천주교 남천교회」
설계: 강석원작
(구름가건축사무소)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n-Koo
 Member: Suh Chun-Sik/Kang, Chul-Koo/
 Kim, Hwan-Keel/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72, DECEMBER 1991



COVER	Kimcheon Social Welfare Facilities Complex / Suh, Bo-Kwang	18
	Namchon Catholic Church / Kang, Suk-Won	22
	Chungbuk Bank Computer Center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25
	Pyeongchang-dong Residence / Kim, Seong-Tack	28
	Sangji University Library / Lee, Young-Il	32
	Kyemyung University Gymnasium / Kim Moo-Kwon	35
	Hanseu Mutual Savings & Finance Co. LTD. / Park, Young-Ho	38
SECTION	Innsbruck Bergiselstadion Schematic Design / Ryu, Choon-Soo	40
FOCUS	See the Old Year Out / Choi, Young-Jip	42
ADVICE	In the Wind / Kim, Young-Sub	44
ISSUE	Looking Back Upon the Architectual Design Competition 1991. Regretbleness of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 Chang, Eung-Jae	48
	The Oper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their Coutroversial Point and It's Countermove / Chang, Se-Yang	50
	The Prizewinners of Domestic Competition 1991, 14 Serection	52
REPORT	Beam and Slab Structural Design of A Building / Kim, Yong-Boo	66
	The Commoner's Housing of Cheju-Do, their Residency Environment and Transfiguration / Yang, Teak-Hoon	68
FOCUS	The Improvement Scheme of Construction Works Supervision System	72
FEATURE	Looking Back Upon 12th ARCASIA Council Meeting and Forum	82
	Looking Back Upon 5th ACAE / Cheon, Bong-Soo & Cho, In-Sook	88
	Looking Back Upon the ARCASIA Forum 6 / Whang, Kil-Soon & Kim, Yoon-Jeong	90

MATERIALS
KI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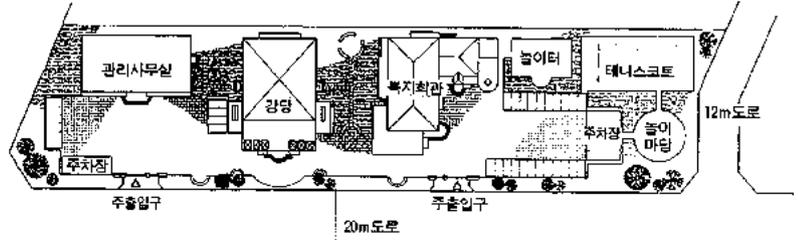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1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성동구귀봉동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중도분회/중로구수성동46-18, 735-0905.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6-9067.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38. 중구분회/중로구274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04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앙분회/중앙구연희동166-46, 923-6123.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1410, 923-4401.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부산대파트내)(051)246-6284~7.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여동3711-8, (053)753-899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894-10, (062)521-0025~6(FAX)528-002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7-6129~30. 리항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49-2698.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의정부분회/의정부시외정동182, (031)2-1083.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고양분회/고양군원당읍주교38블럭16롯데, (0344)63-8902.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이천분회/이천군이전읍창리192-1, (0336)635-6545. 광명분회/광명시일산동404-7, 682-2875. 안산분회/안산시고간동536-1, (0345)80-9130. 김원도건축사회/김원도춘천시죽천동39-5, (0361)54-2442. 진주분회/진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강릉분회/강릉시상내동6-14(0391)2-2262.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3, (0392)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95.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충주시덕천동673-1, (0441)847-3082. 제천분회/제천시리림동8-8, (0434)43-6253.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16, (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천안분회/천안시문좌동180-1, (0417)551-4551.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97-10, (0452)34-3357.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목 빌딩 508), (0652)87-6007~8. 이리분회/이리시남중1가77-22, (0653)6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양동35-4, (0654)445-4060. 남원분회/남원시해정동106-2, (0671)31-1000.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52)364-7567, 33-9944.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순천분회/순천시장전동51-11(0661)33-2457.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11번지, (0662)64-7023. 경상북도건축사회/경상북도경주시서문동964-264, (0546)52-6351, 52-7547.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김천분회/김천시영화동280-1, (0547)12-2541. 46-1664.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771-4(0561)3-3638. 구미분회/구미시천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김천분회/김천시영화동280-1, (0547)12-2541. 영주분회/영주시유전2동642-52, (0572)33-7504. 김천분회/김천시서양동280-3, (0581)2-2706, 52-2286.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23, (0582)12-4306 32-3232.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46-4530~1.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174-8836.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184-3050. 기계분회/거제군 신현읍고천리139-2, (0558)635-3432.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명동91-6, (056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포299-6, (064)62-2233.

김천공단 종합사회복지관

Kimcheon Social Welfare Facilities Complex

徐輔光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WORKS

대지위치 / 경북 김천시 대광동 농공지구 1015
 대지면적 / 7,484.87㎡
 건축면적 / 1,750.0㎡
 연면적 / 2,504.28㎡
 복지관 - 1,556.33㎡
 강당 - 947.95㎡

건폐율 / 23.38%
 용적률 / 28.27%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적벽돌 치장방기



김천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각종 집회를 위한 강당과 직업훈련 시설 및 탁아시설, 복지회관의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수용되었다. 가늘고 긴 장방형의 대지가 수용시설의 성격상 수평적 분산배치에 적합한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주 진입도로의 방향으로 정면성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용율이 높은 복지회관의 경우 외부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며 그 방향으로 정면성을 부가하는 관점에서 각 시설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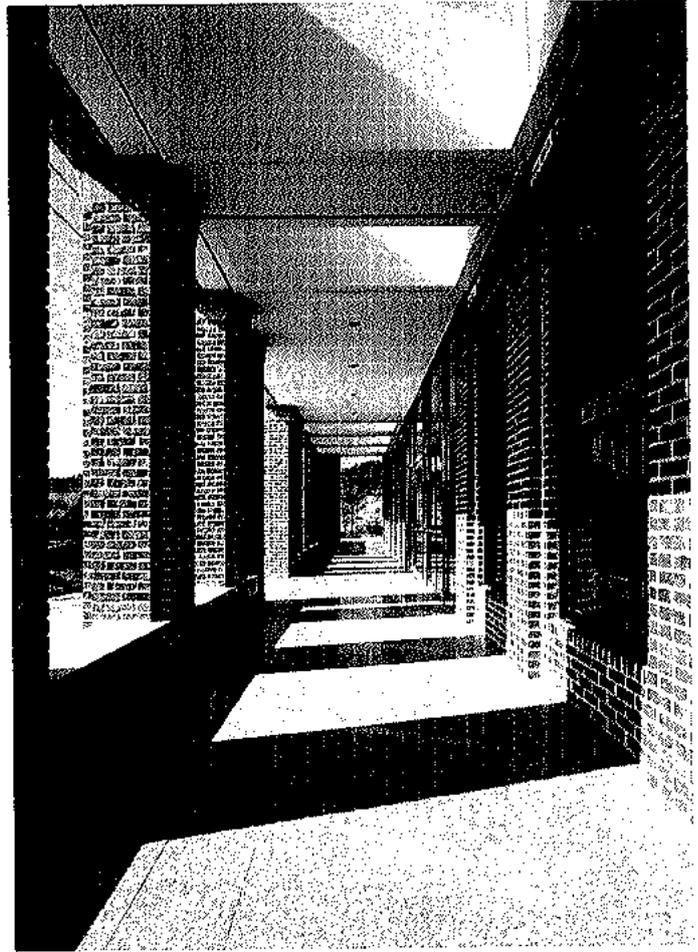
복지관

복지관은 관리, 서비스, 복지(탁아, 직업훈련)의 3개 부분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탁아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은 그 성격상의 차이로 내외부공간의 영역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강당의 메스와 조화되도록 지붕을 비롯한 전체적 형태의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하고 색채 또한 붉은 벽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명도가 높은 석재를 기구부 상하부에만 한정하여 액센트 색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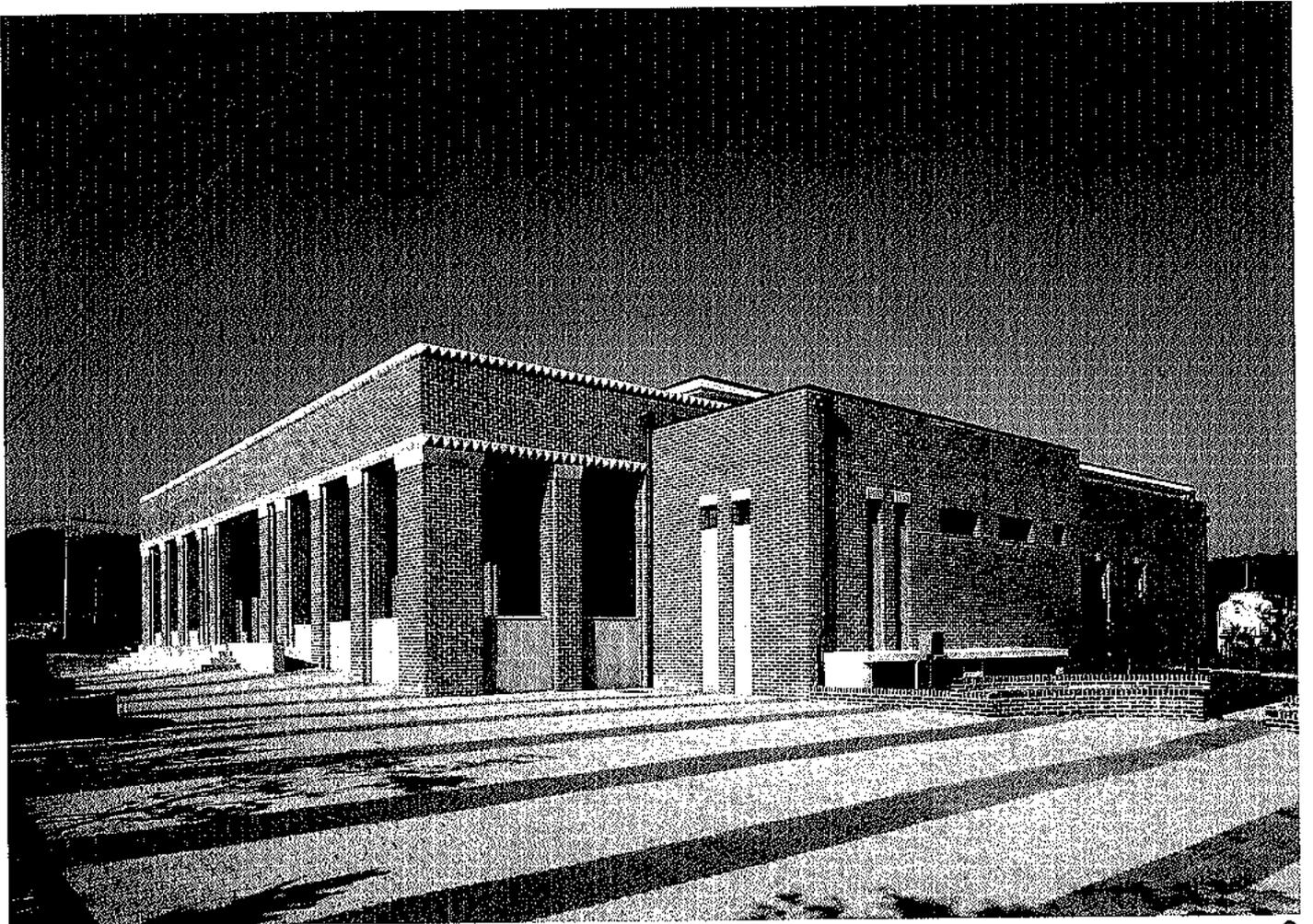
강당

입면은 정면에 있어서 좌우대칭에 의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리스 신전의 열주양식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정면에서는 수평방향의 코니스를 수직방향의 열주가 지지하고 완만한 경사의 모임지붕으로 전체적이 안정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열주양식은 외부입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적용되어 내외부공간의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좌우대칭의 평면형으로 내부동선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지붕은 Space Truss를 사용하였고, 외부는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공기조화설비와 함께 노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서비스 공간에 부분적으로 Top Light를 설치하여 특징적인 공간적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외부마감은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주조색으로 하고 명도가 높은 석재를 코니스 상하단의 띠모양의 액센트 색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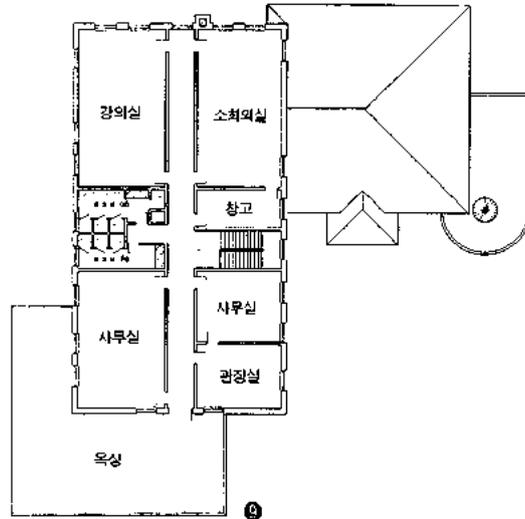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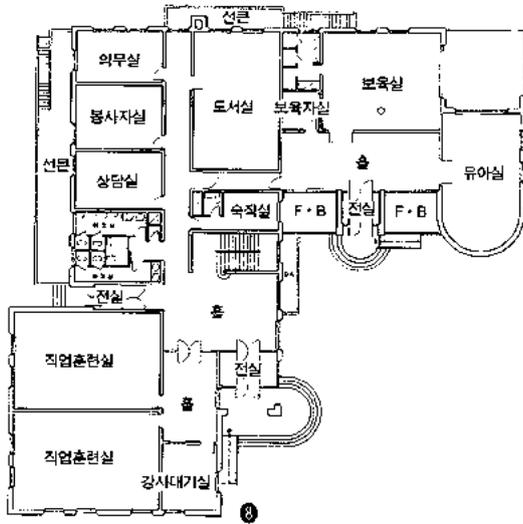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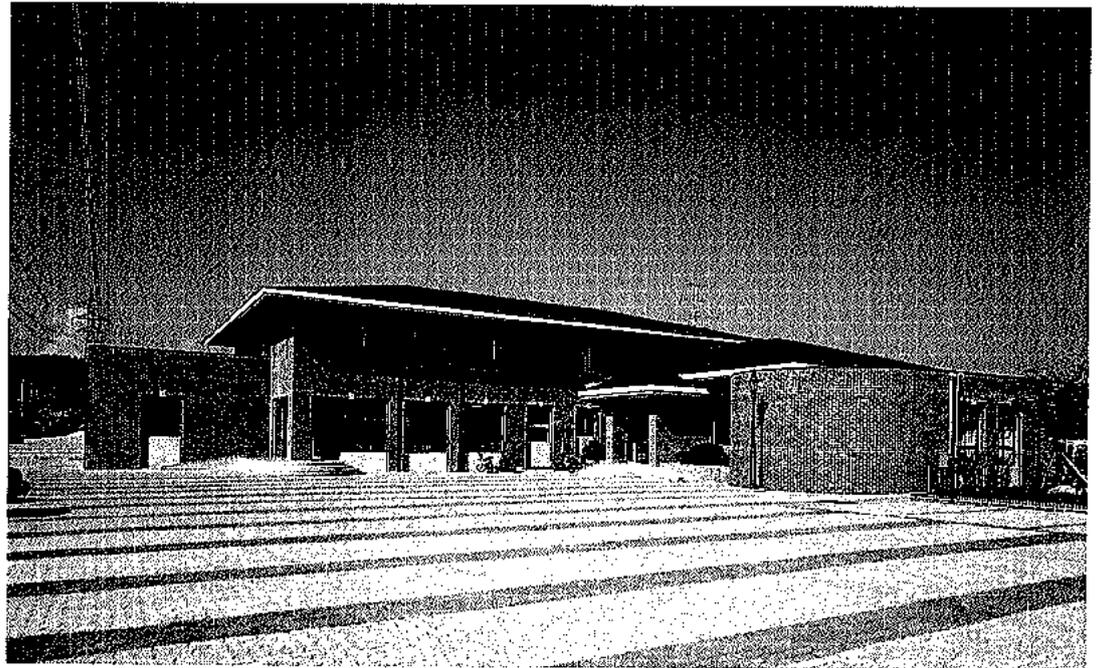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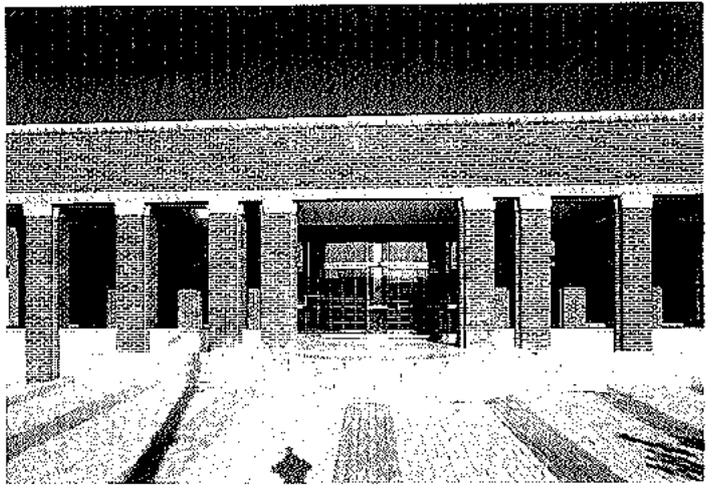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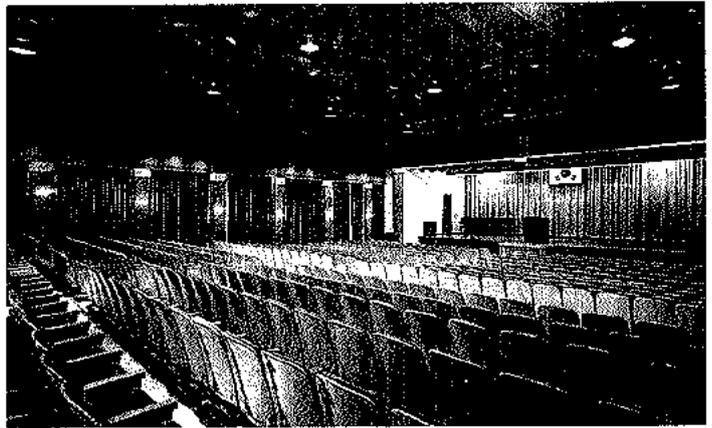
6

- ① 배치도
- ② 강당 정면도
- ③ 복지회관 정면도
- ④ 복지회관 주출입구
- ⑤ 강당전면 회랑
- ⑥ 강당 남서측 전경
- ⑦ 복지회관 상세
- ⑧ 복지관 1층 평면도
- ⑨ 복지관 2층 평면도
- ⑩ 강당남측 입면
- ⑪ 강당 1층 평면도
- ⑫ 강당 주출입구측 상세
- ⑬ 강당내부 전경
- ⑭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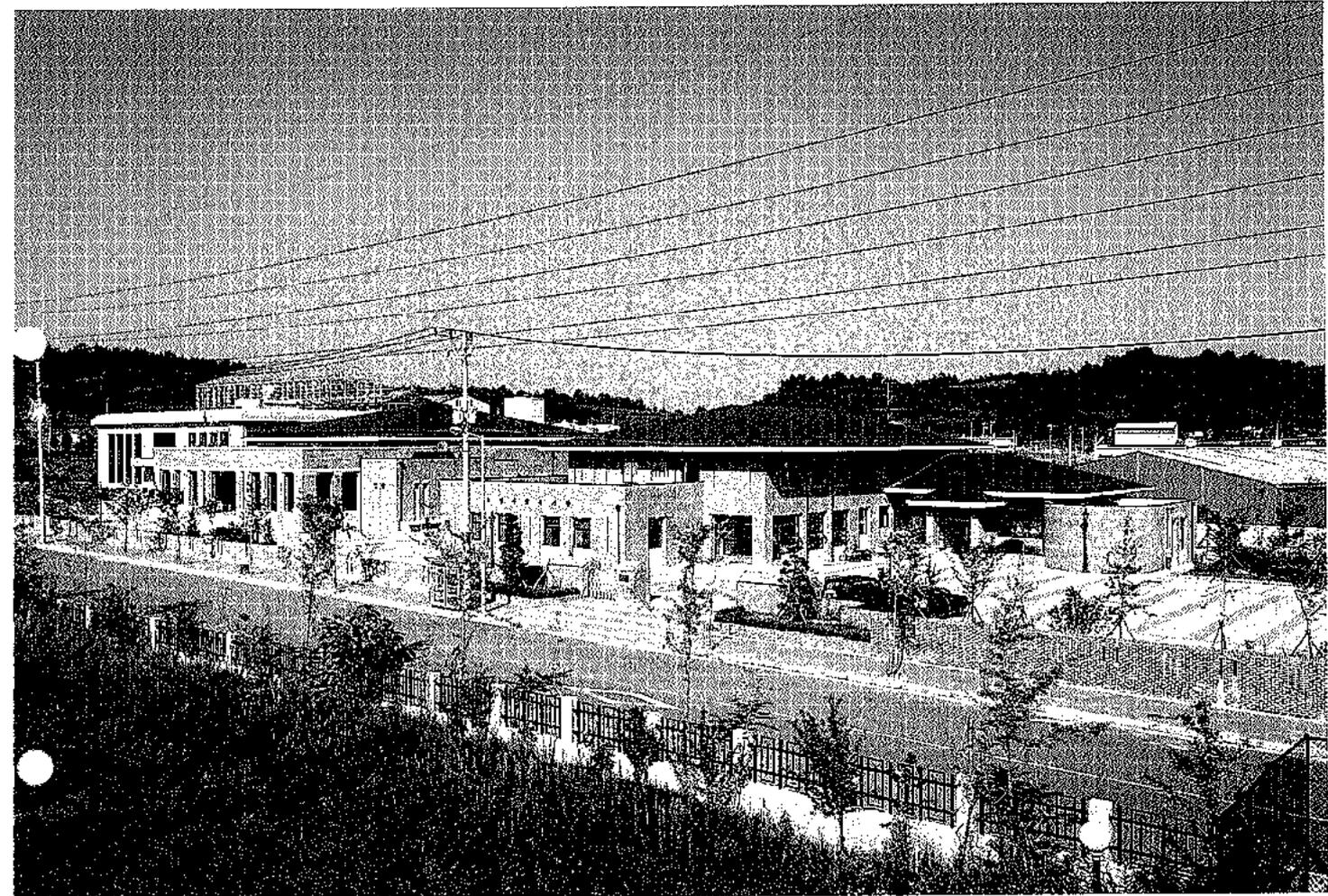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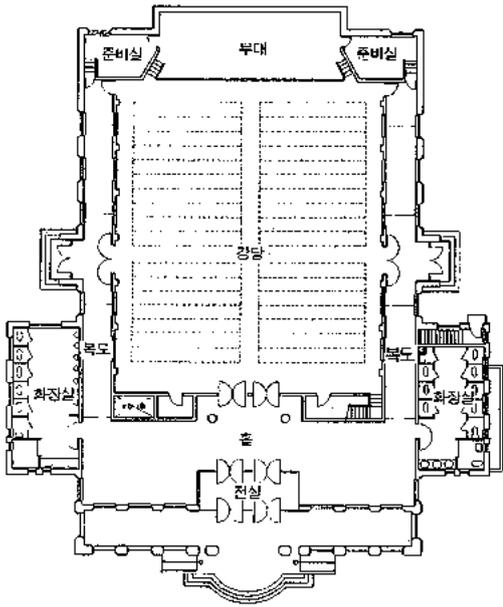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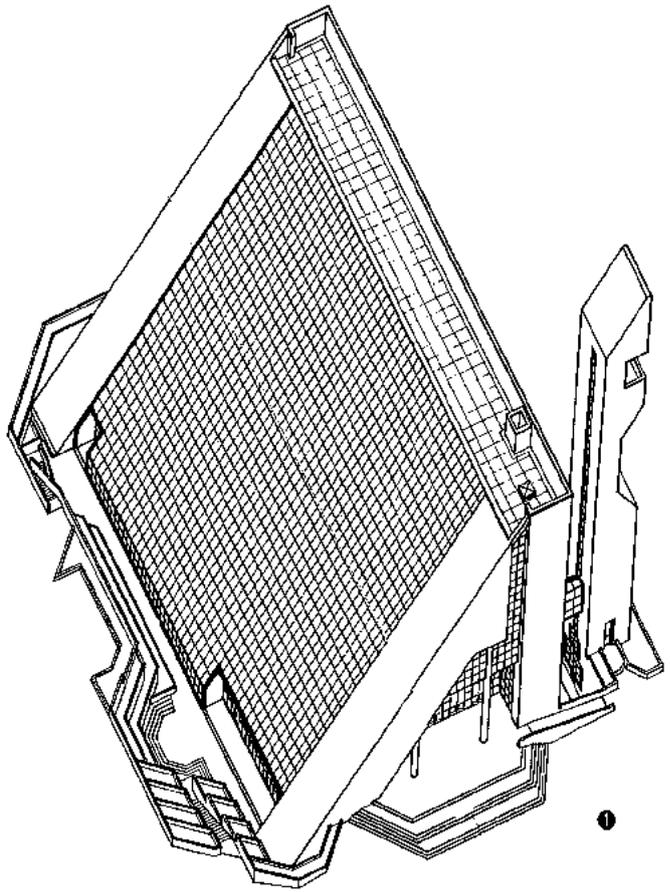
14

천주교 남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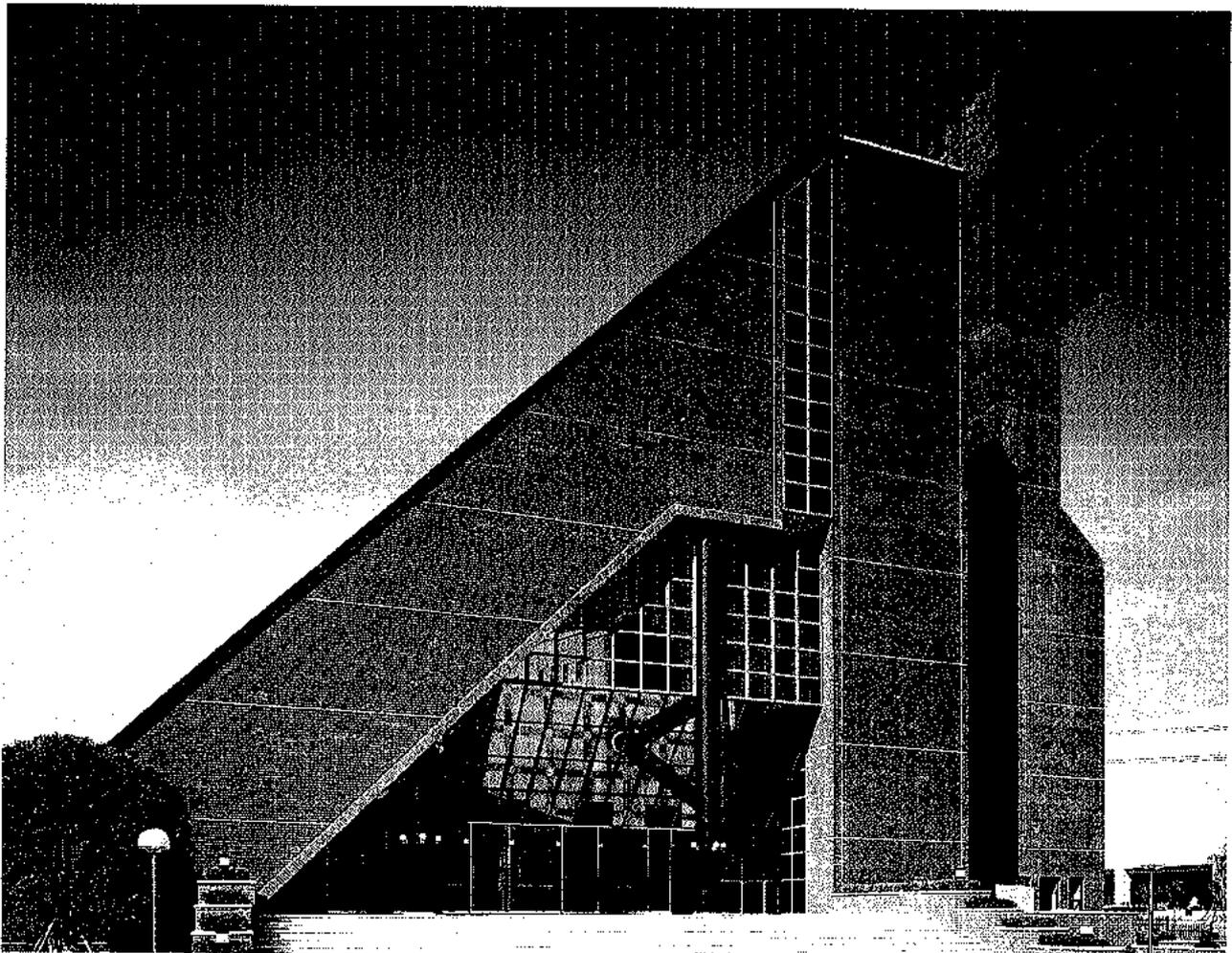
Namchon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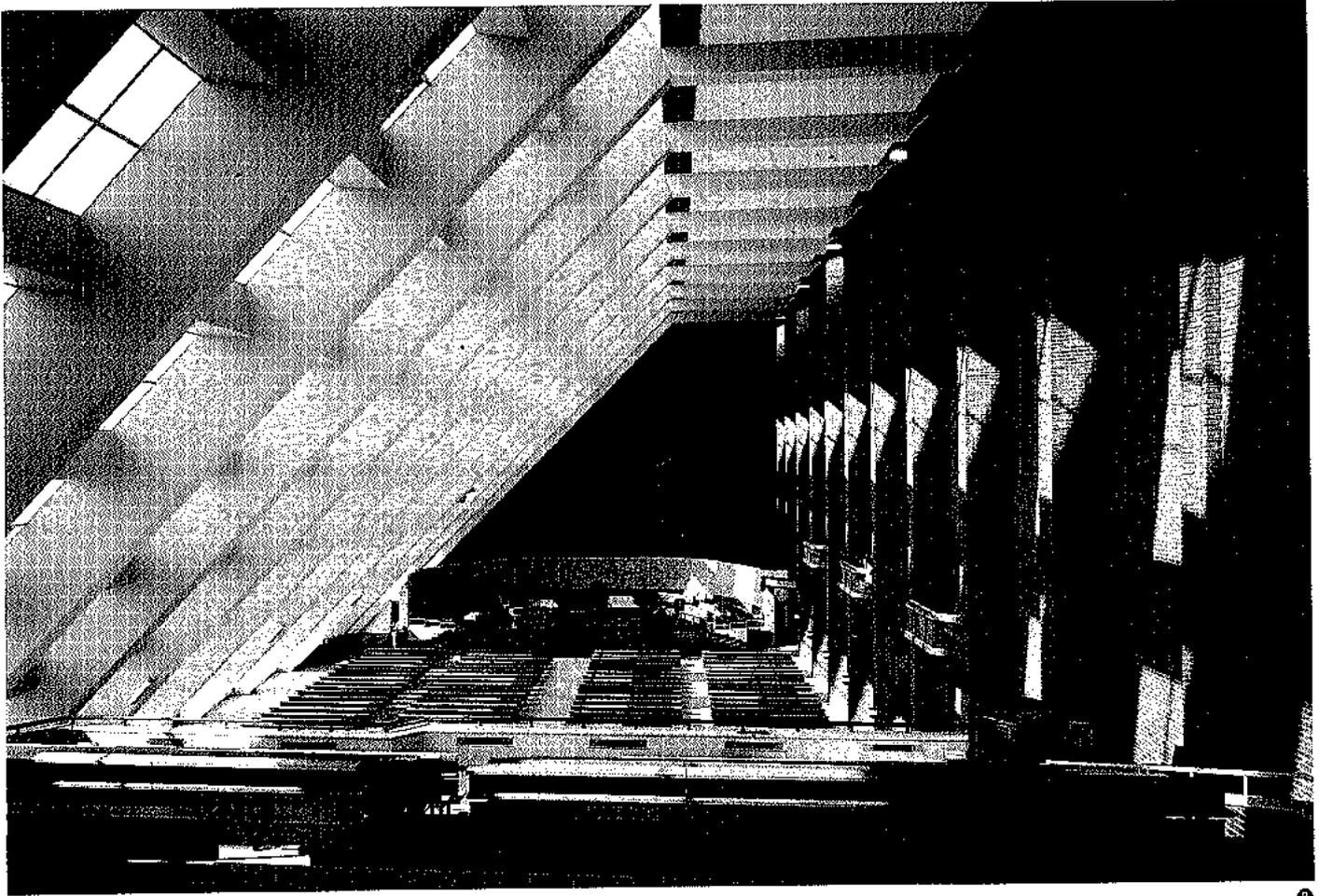
WORKS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Designed by Kang, Su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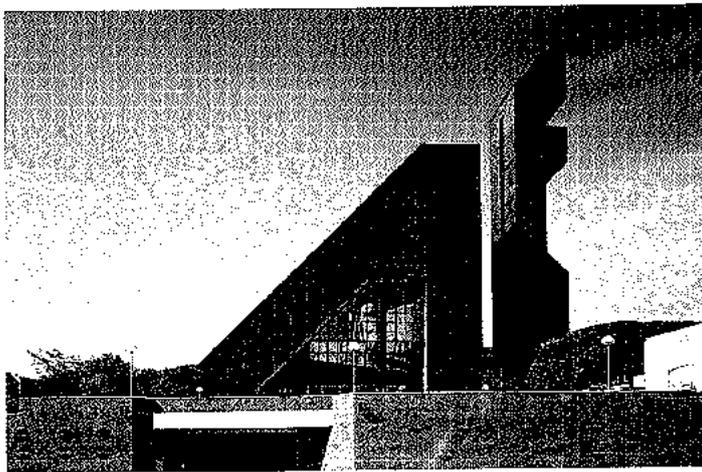


■
 대지위치 / 부산시 남구 남천동 69-1
 지역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 / 1,935㎡
 연면적 / 4,473.3㎡
 대지면적 / 10,981.9㎡
 건폐율 / 17.6%
 용적률 / 40.73%
 구조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외부마감 / 적벽돌 + 18mm 열선반사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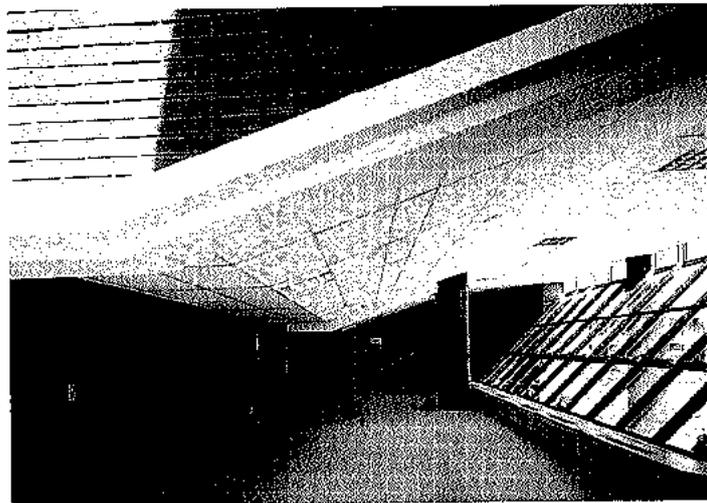




①



②



③

본 성당은 10층 규모의 KBS건물과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경사진 이형의 대지로 도로에 평행하게 본 건물을 배치하고 남측으로 야외 미사 공간과 성모상을 두고 동측에는 장래 성당의 확장에 대비한 남겨진 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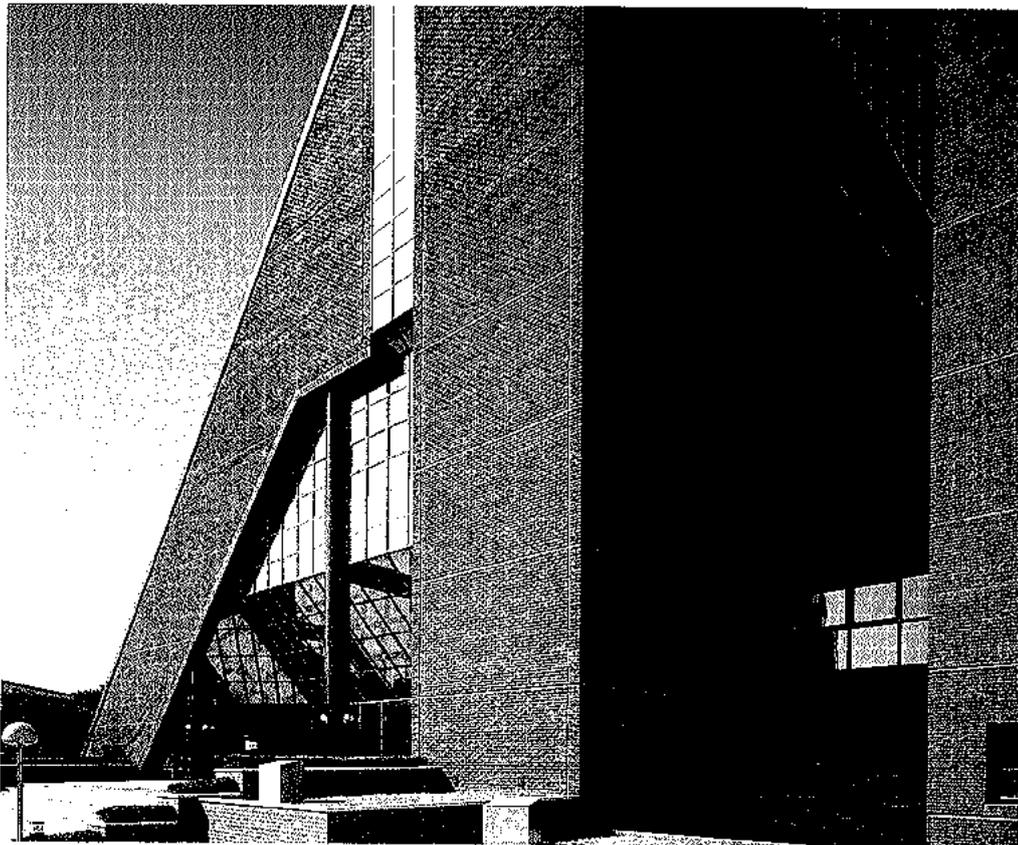
도로에 평행하게 높이 25m, 길이 64m의 거대한 수직벽의 매스에서 오는 중량감은 교회에 대한 상징적 울로서 건고성과 강한 이미지를 주는 요소이며 마주보는 KBS건물에 대한 반사적 의미로서 교회의 이미지 감소와 외소함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며, 상부의 수평으로 반복 운동하는 개구부는 정적인 형태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매스의 무게감을 해소하고 있다.(부산 바다에 떠있는 범선 형태는 지역적 이미지 강조)

남측의 45도 경사의 커튼월은 북측벽과의 강한 대비로서 극적인 양면성을 강조하면서 매스의 무게감을 해소하고 KBS와 동일성을 갖는 도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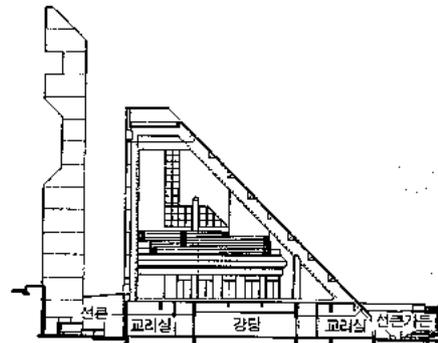
낮은 출입구를 통하여 성당내부에 들어서면 갑자기 확산되는 시각적 공간적인 확산은 극적인 공간 변화를 주고 우측벽의 수직의 강렬함과 좌측의 경사진 커튼월의 투명성은 공간의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커튼월을 통해 밀려드는 외적 요소와 수직벽의 요철에 의한 음영의 길이를 통해 부드러운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북측벽의 수평선과 종탑의 수직선의 서로다른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순화되어 질서를 이루며 종탑의 상승감은 교회의 상징적 미로 천국을 향한 인간의 의지로 계획하였다.

- ① 엑소노 메트릭
- ②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③ 성당내부 전경
- ④ 전경
- ⑤ 2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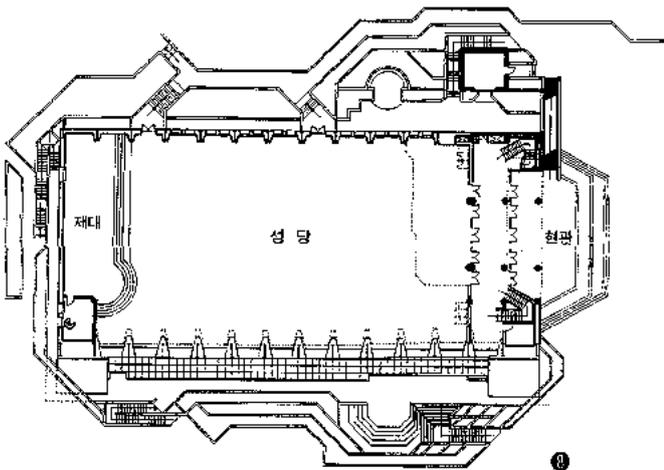


- ① 전면 상세
- ② 종단면도
- ③ 1층 평면도
- ④ 지하층 평면도
- ⑤ 배치도
- ⑥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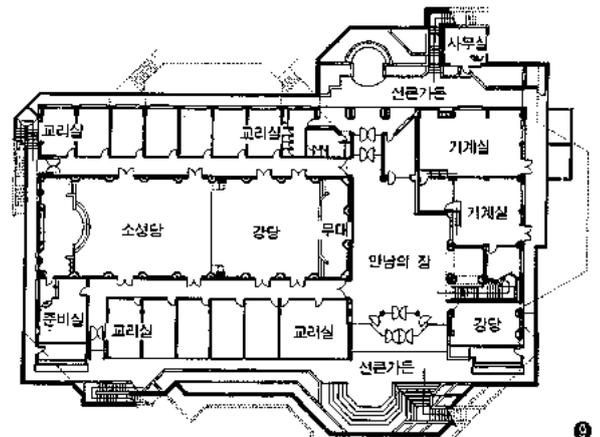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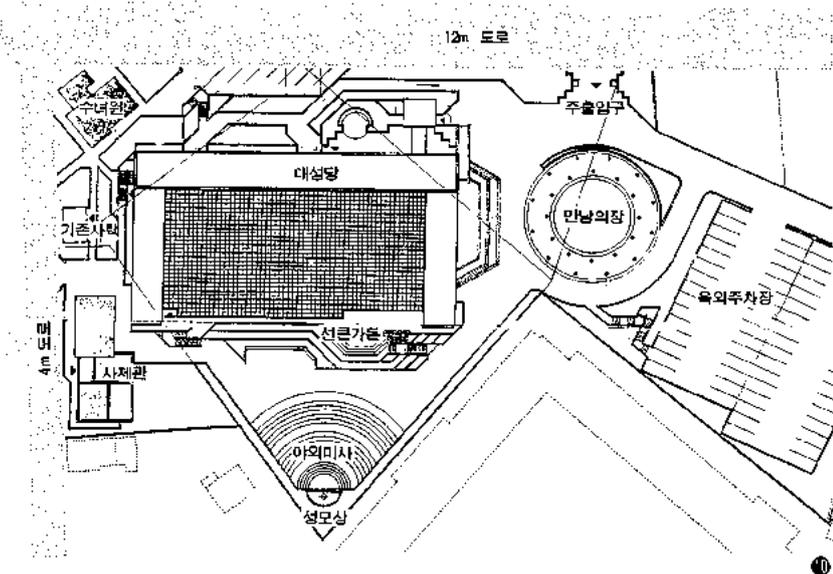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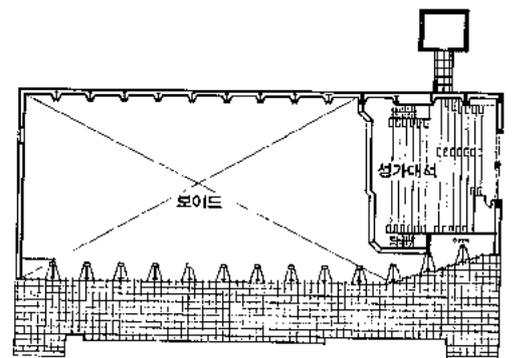
③



⑥



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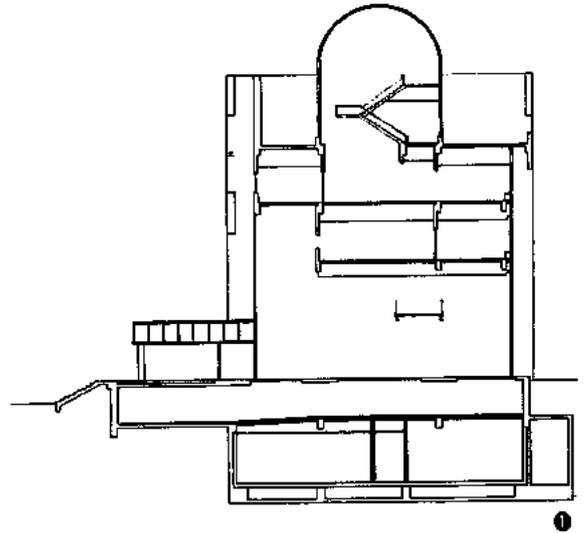
충북은행 전산센터

Chungbuk Bank Compute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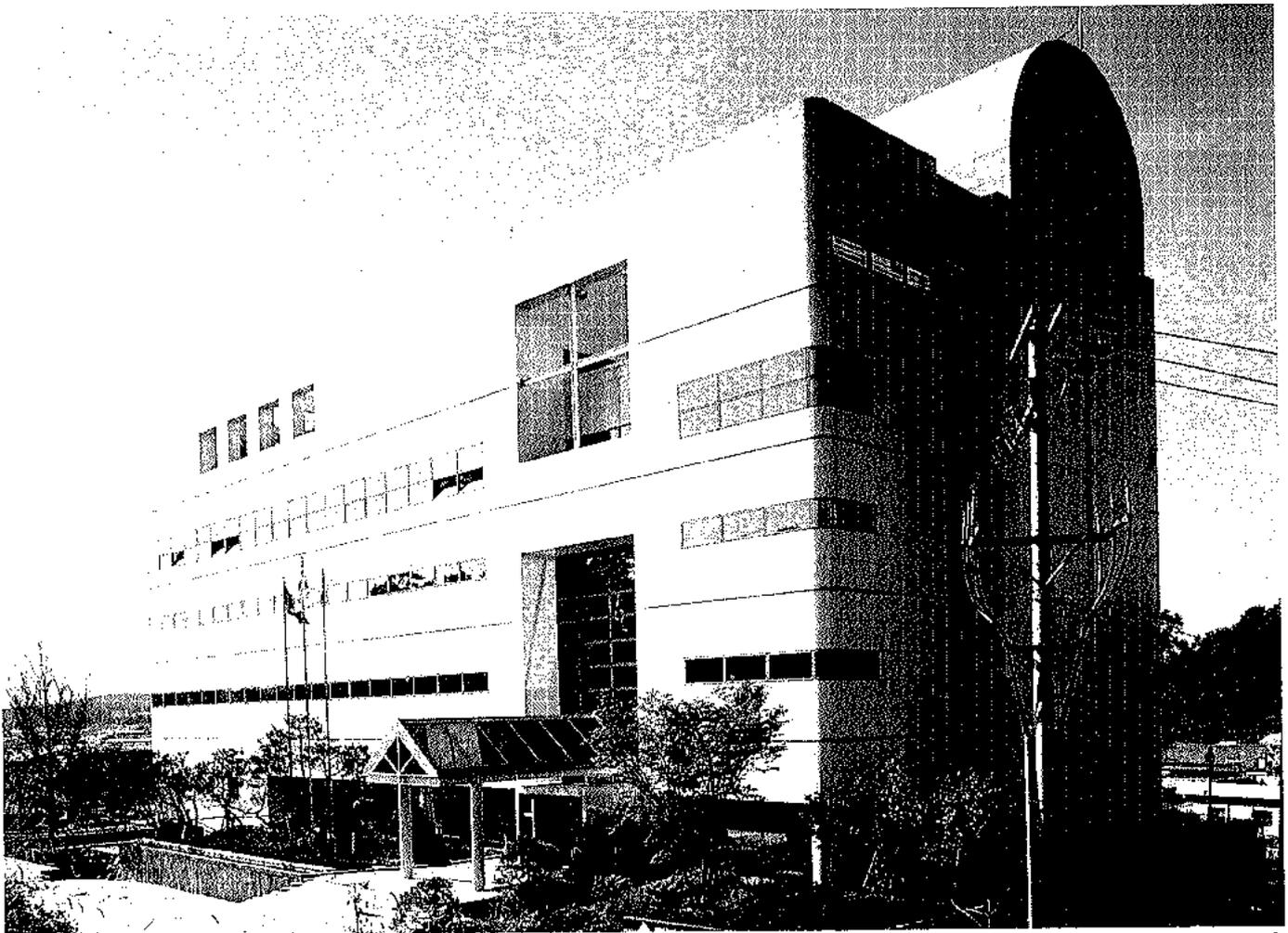
WORKS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방서동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187.0m²
 건축면적 / 974.7m²
 연면적 / 6,019.2m²
 건폐율 / 44.57%
 용적률 / 192.06%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외부마감 / 알미늄 복합페널, 칼라북충유리



1



2



■ 청주시내에서 약 4km쯤 떨어진 부지는 주도로로부터 계획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 현상설계에서 당선될 당시, 이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아직 그 개발이 미흡하여 제대로 가로경관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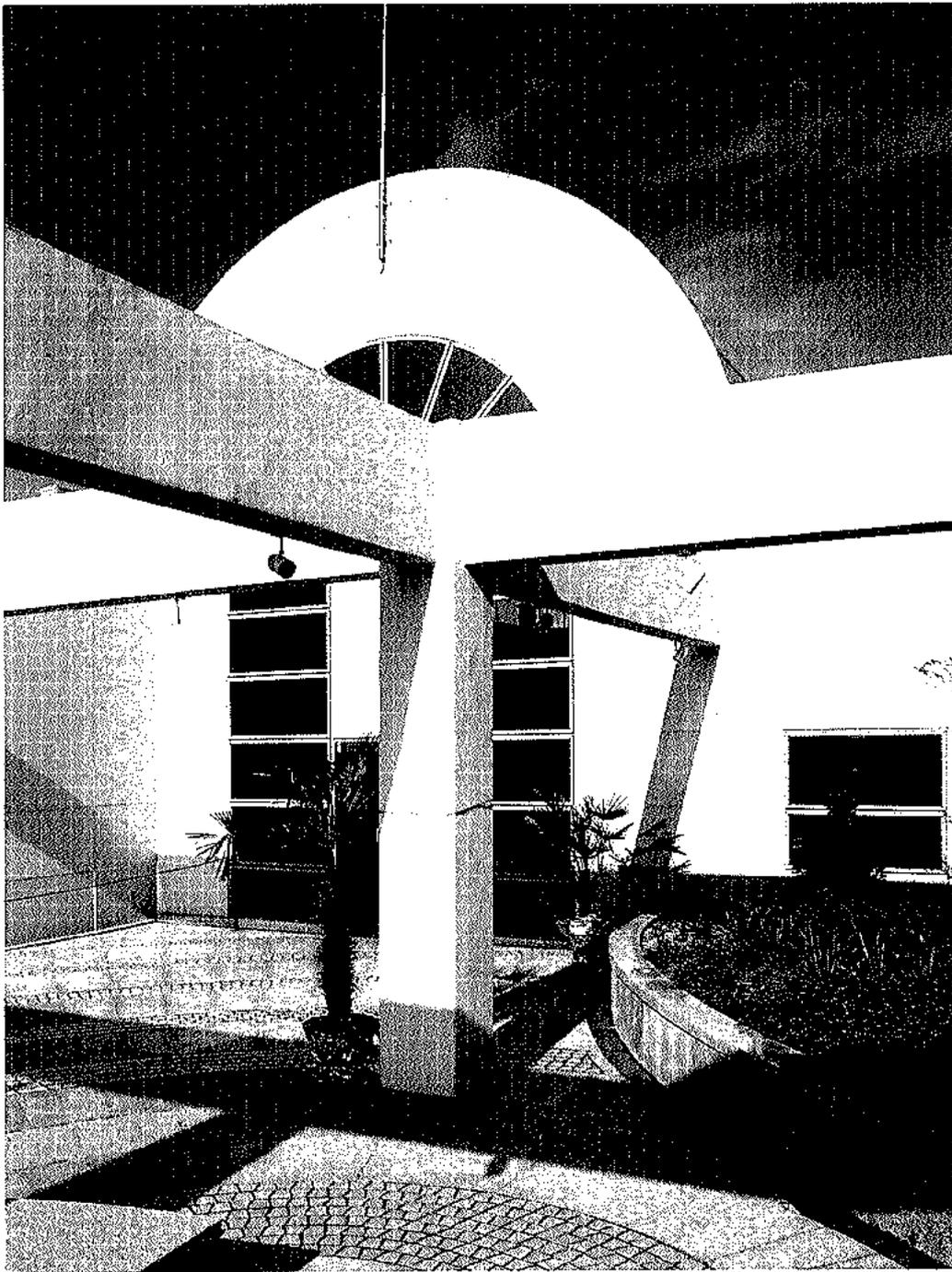
일반적이기는 하나 고도의 기능성과 전산센터로서 첨단기술에 대한 이미지, 안전성, 그리고 부가적인 것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이 계획시 의태 요구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능과 보안에 대한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검토되어 원래의 설계의도와는 달리 주변환경과는 소외된 형태로 그 모습이 소개되곤 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주안점은 요구되는 기능과 안전성 외에 첨단기술에 대한 이미지표현으로,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주변환경 혹은 외부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태로서 표현하는 것이었다. 우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후퇴 배치함으로써 아직은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경사지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보된 녹지공간을 통한 보행자의 건물에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 검색과 전산기능을 위한 대공간의 확보, 계반설비기능의 집약화를 위해 편심형의 코어를 채택하였으며, 출입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스가 주는 스케일을 시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고려되었다. 내부공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로비공간은 캐노피, 라운지의 커튼월과 연결되어 수평적으로 시각적 공간감을 외부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상부로 오픈되어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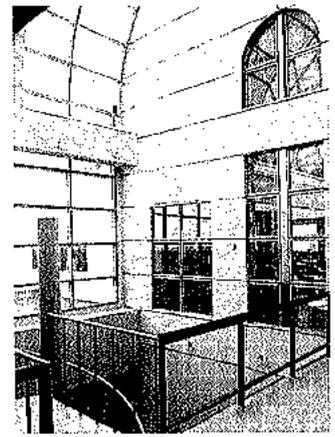
이러한 로비공간 수직의 커튼월, 격자 프레임 속에 후퇴되는 유리벽면과 지붕으로까지 연결되어 중첩된 내부기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1층 부분의 후퇴된 벽면과 노출된 원형기둥, 캐노피, 옥상정원의 정방형 개구부와 발코니, 측면을 수직적으로 분할하며 위로 상승하는 돌출된 코어와 볼트지붕과 함께 모듈화된 알루미늄 패널과 좁은 수평미장으로 구성되는 폐쇄적이고 기계적인 건물형태에 다양한 변화와 시각적 경험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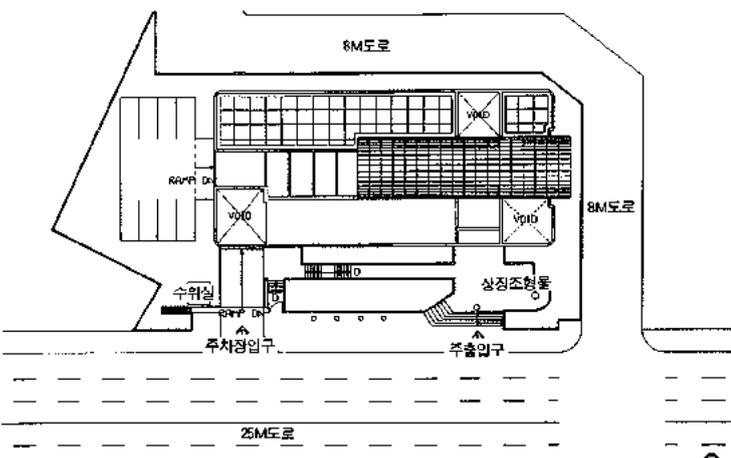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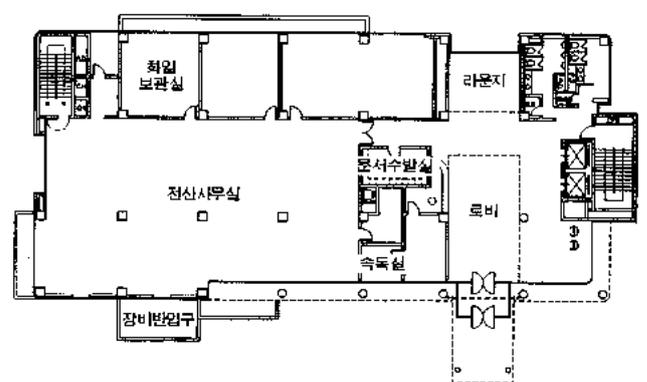
- 1 종단면도
- 2 남동측 전경
- 3 남서측 전경
- 4 1층 로비
- 5 옥상 정원
- 6 5층 식당측 상세
- 7 배치도
- 8 1층 평면도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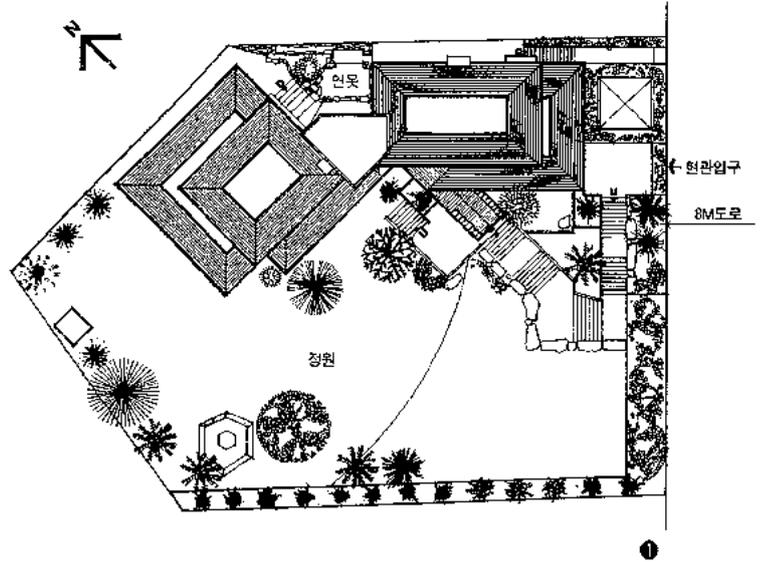
8

평창동 주택

Pyeongchang-dong Residenc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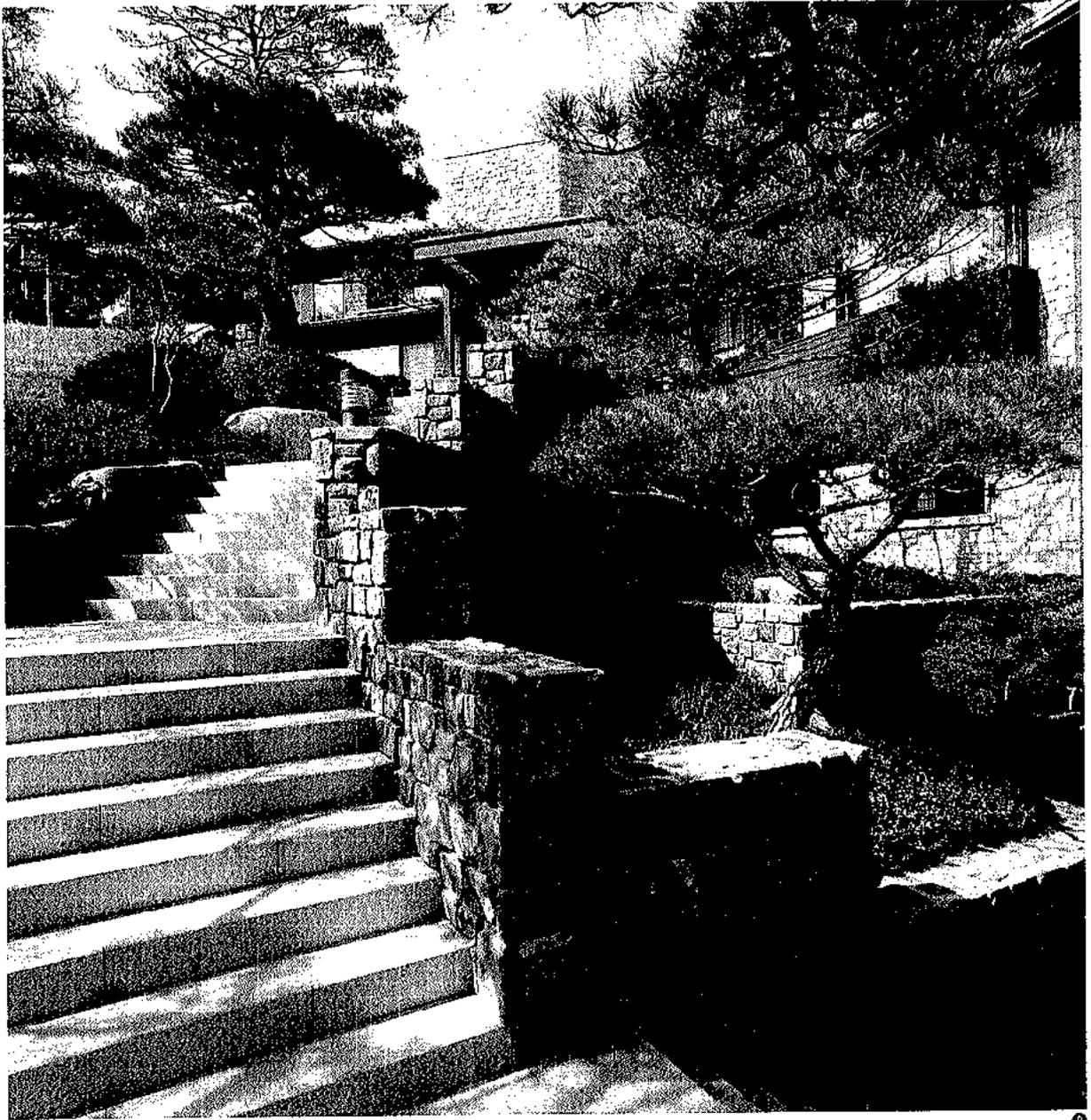
金盛鐸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ong-Tack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면적 / 1,462.00㎡
 건축면적 / 283.28㎡
 연면적 / 475.00㎡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조적조
 외부마감 / 화강석

- | | |
|----------------|------------|
| ① 배치도 | ⑦ 거실 |
| ② 전경 | ⑧ 1층 평면도 |
| ③ 현관입구 계단 상세 | ⑨ 2층 평면도 |
| ④ 1층 식당 전경 | ⑩ 2층 연결 계단 |
| ⑤ 인방 | ⑪ 현관 상세 |
| ⑥ 정면에서 본 주출입구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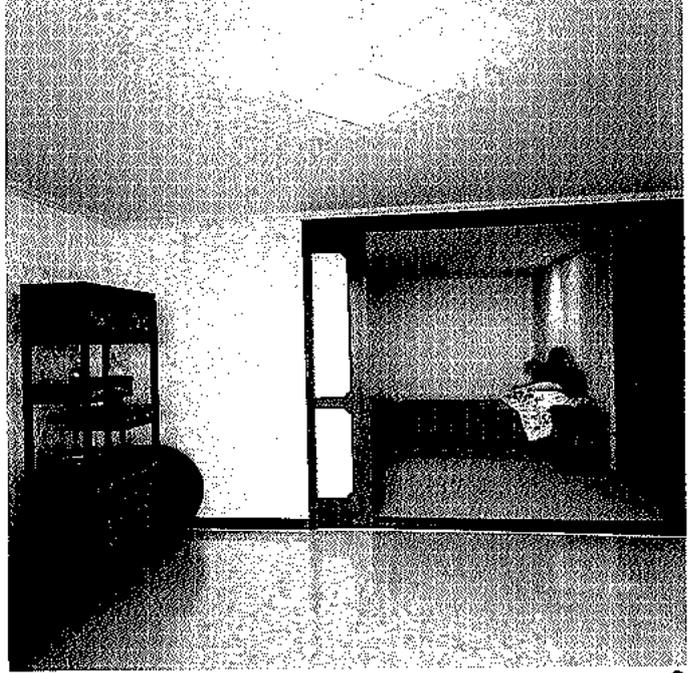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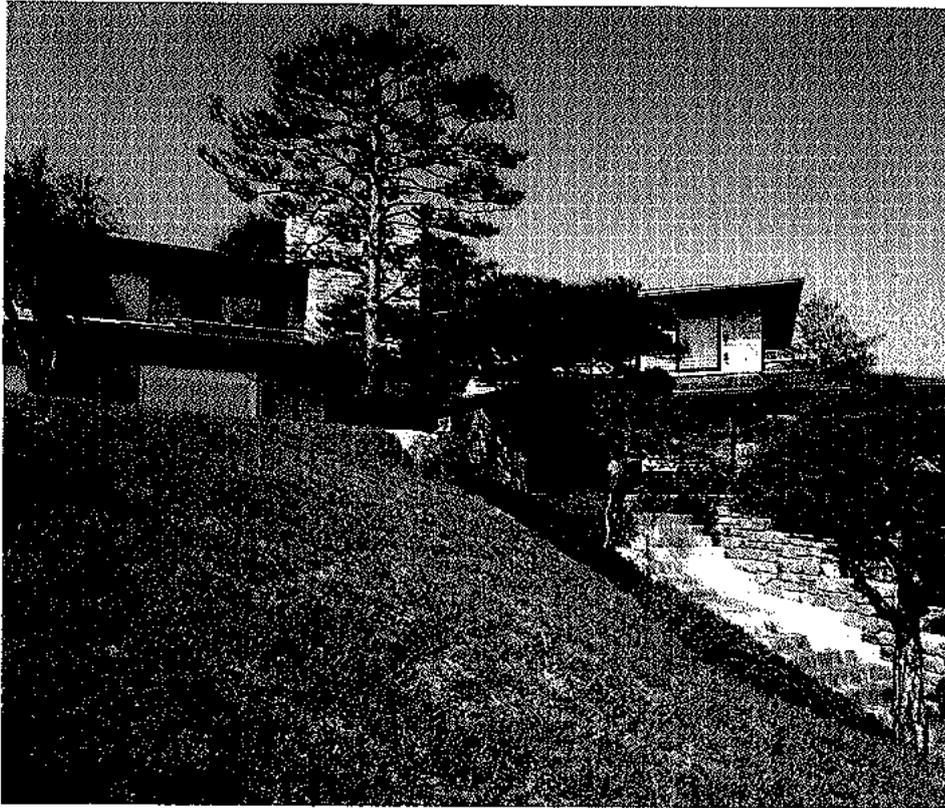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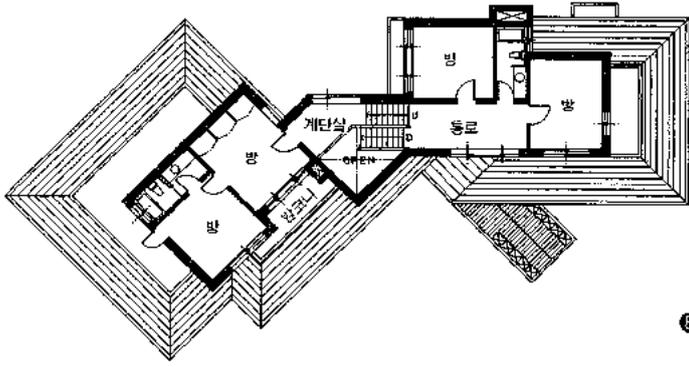
■ 건물에 앉히는 대지와 진입 도로와의 Level이 10m나 되어 Aproch의 설정에 무척 고심하였다.

대문으로부터 현관까지의 진입은 숲의 터널을 통해 외부 계단의 오르내림에 위압감과 지루함을 해소시키고, 단면상으로는 반층의 차이를 주어 현관의 Level이 최대한 도로면에서 높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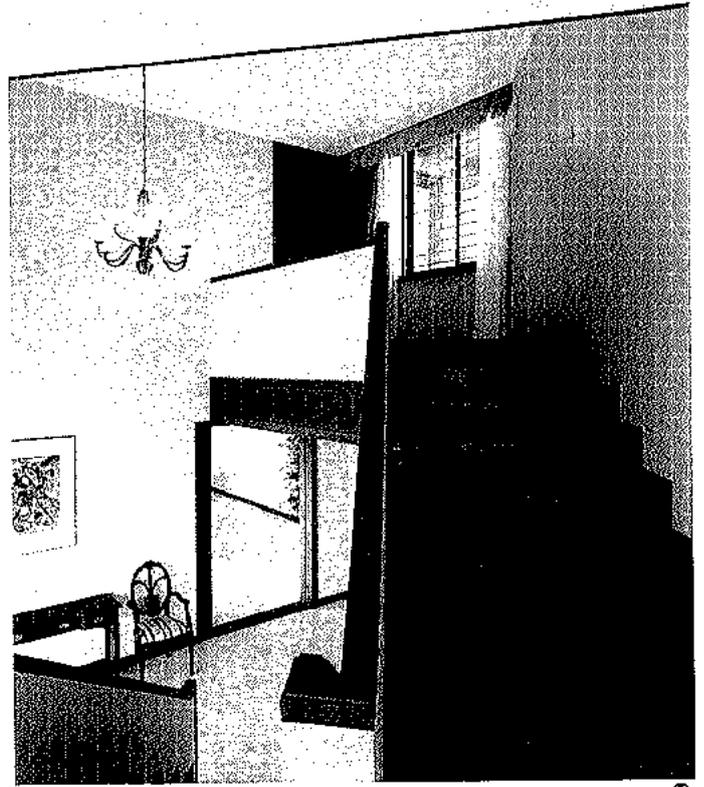
입면계획은 자연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수평선은 강조하고 소탈하고 편안함을 주기위해 자연적인 재료를 주재하였고, 배치 계획은 지형이 지닌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망이 가장 좋은 남향과 남서향의 두 군(群)으로 나누어 연결부는 계단실을 두어 처리하고 계단실 후면은 연못을 두어 계단실 및 식당 거실에서 후정의 고즈넉한 감정을 연출케 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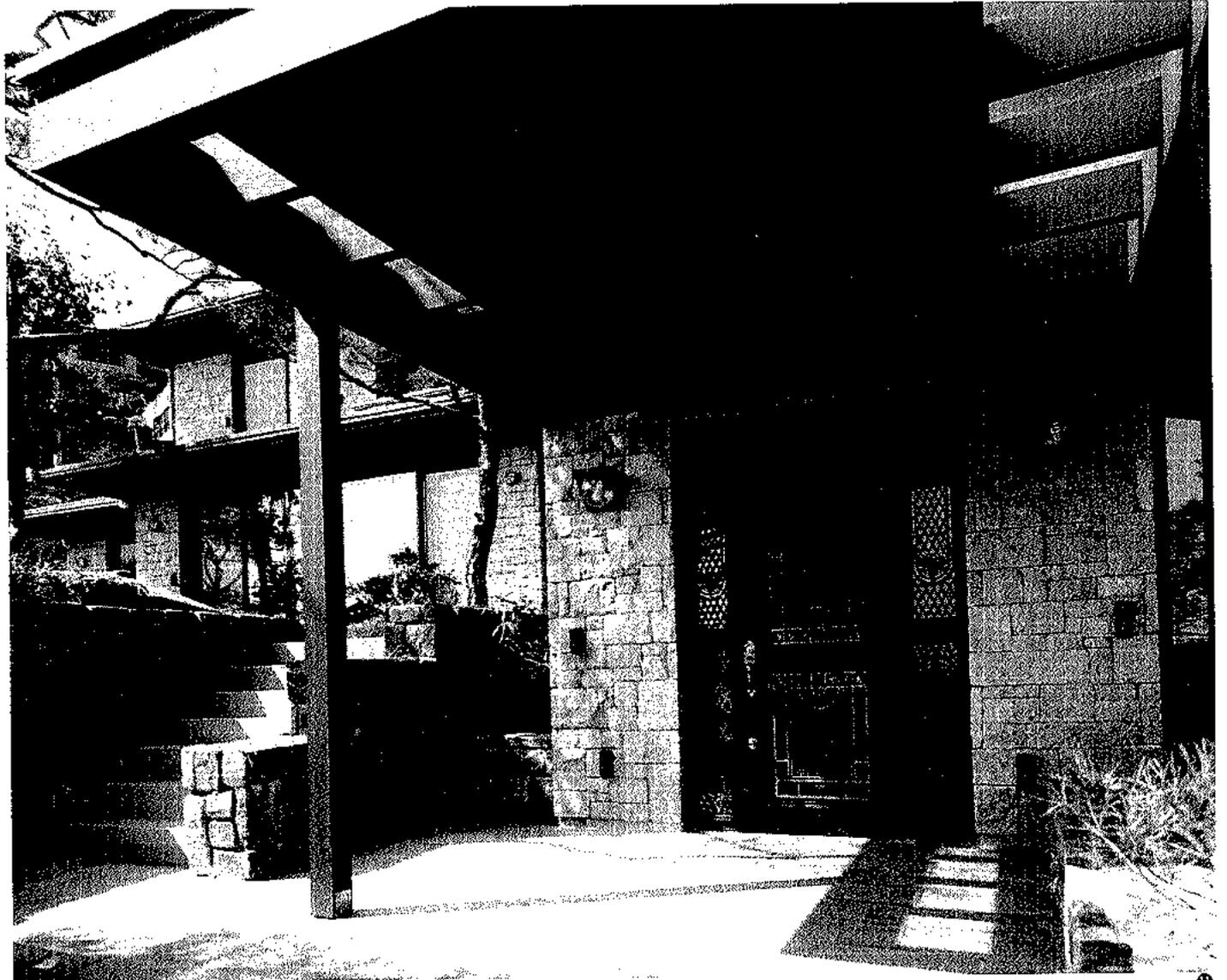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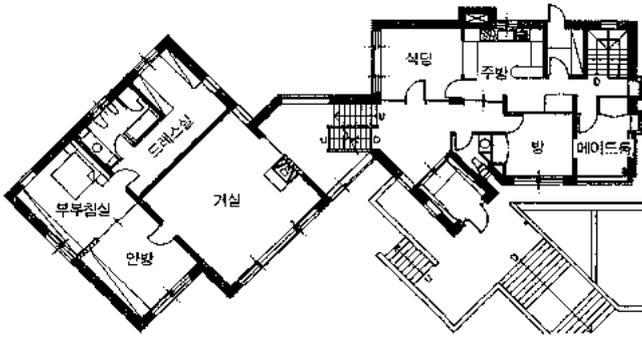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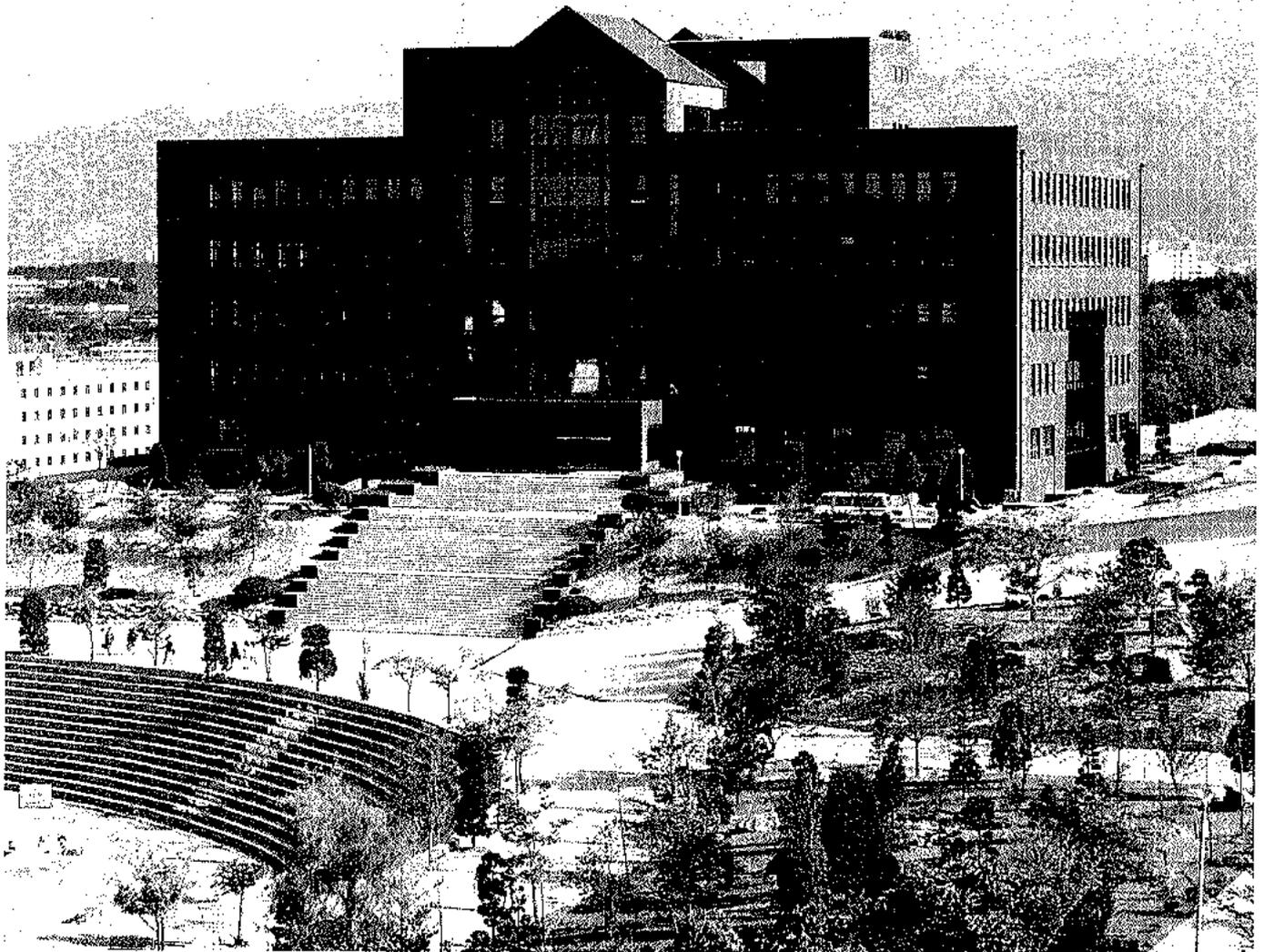
상지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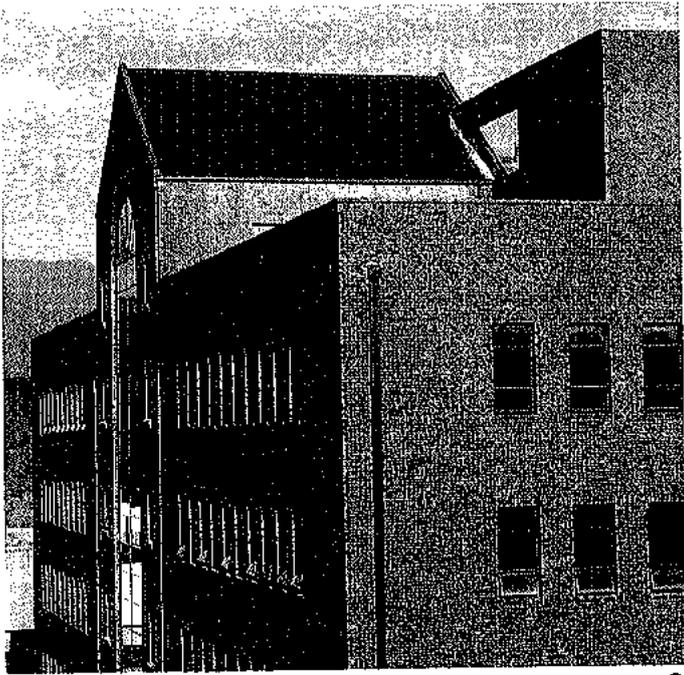
Sangji University Library

■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대지면적/218,812㎡
건축면적/2,231.7㎡
연면적/13,336.3㎡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붉은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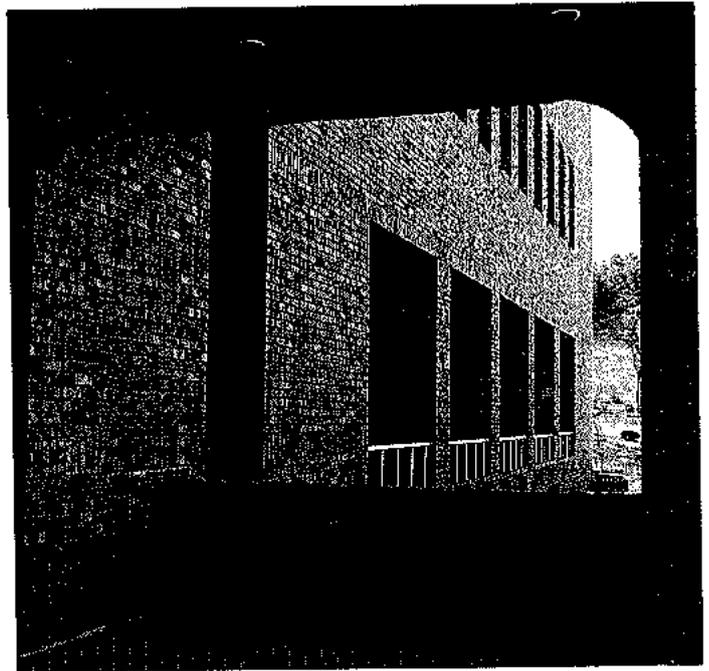
WORKS

李榮一/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Designed by Lee, You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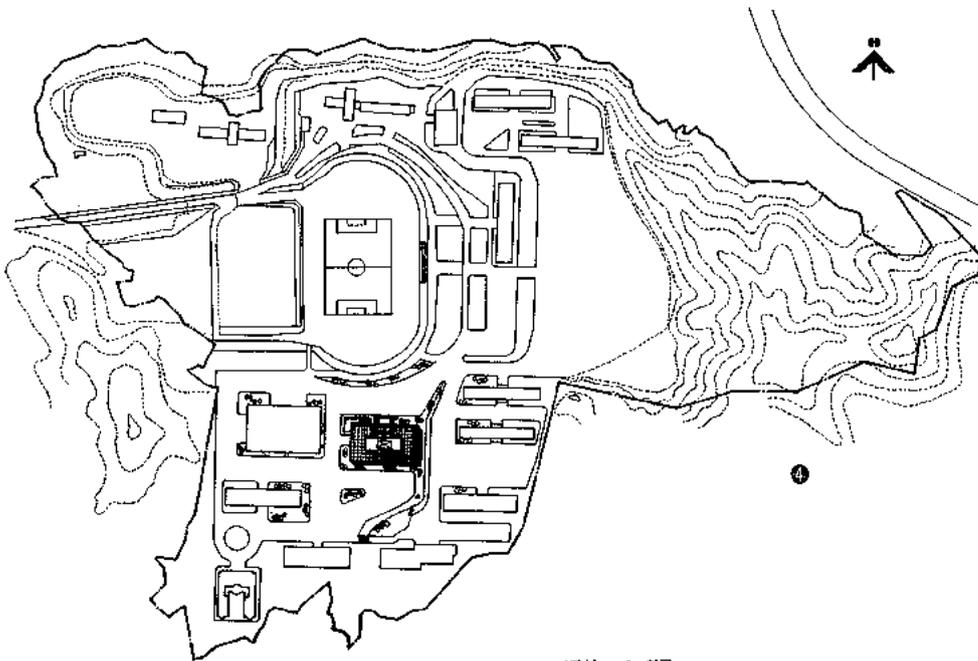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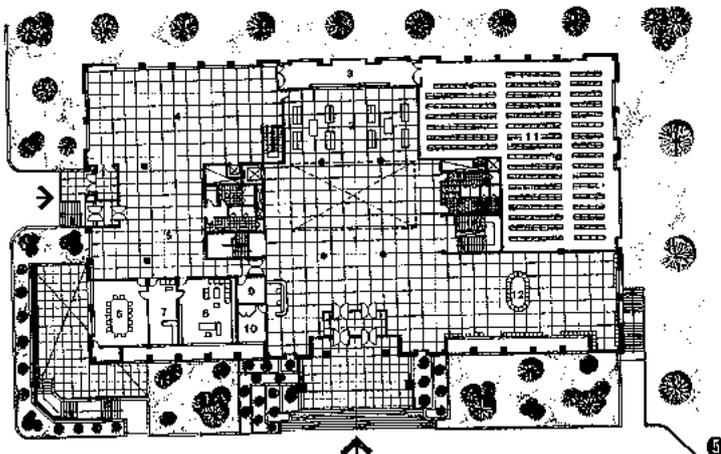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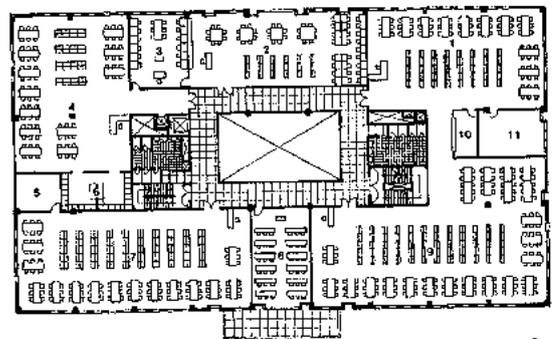
- 1 전경
- 2 측면 외벽 상세
- 3 배면 외벽 상세
- 4 전체 배치도
- 5 1층 평면도
- 6 2층 평면도

- 1. 로비
- 2. 복욕실
- 3. 대합계
- 4. 수사사무실
- 5. 사무실
- 6. 회의실
- 7. 부속실
- 8. 관장실
- 9. 창고
- 10. 숙직실
- 11. 서고

- 1. 귀중본열람실
- 2. 시청각자료실
- 3. 마이크로 필름열람실
- 4. 신문접지 열람실
- 5. 휴게실
- 6. 경복서실
- 7. 정기간행물실
- 8. 세아나실
- 9. 참고자료열람실
- 10. 복사실
- 11. 정보검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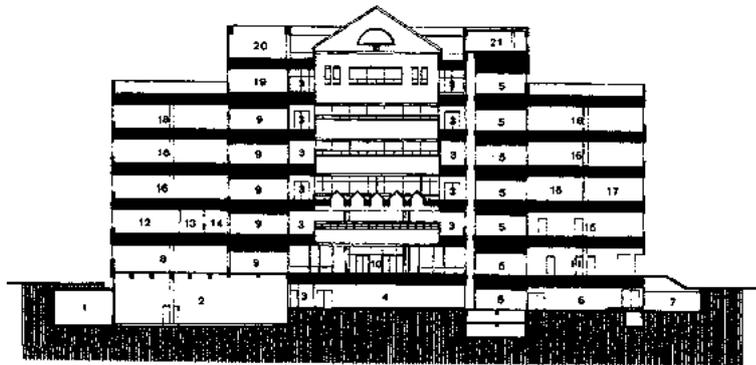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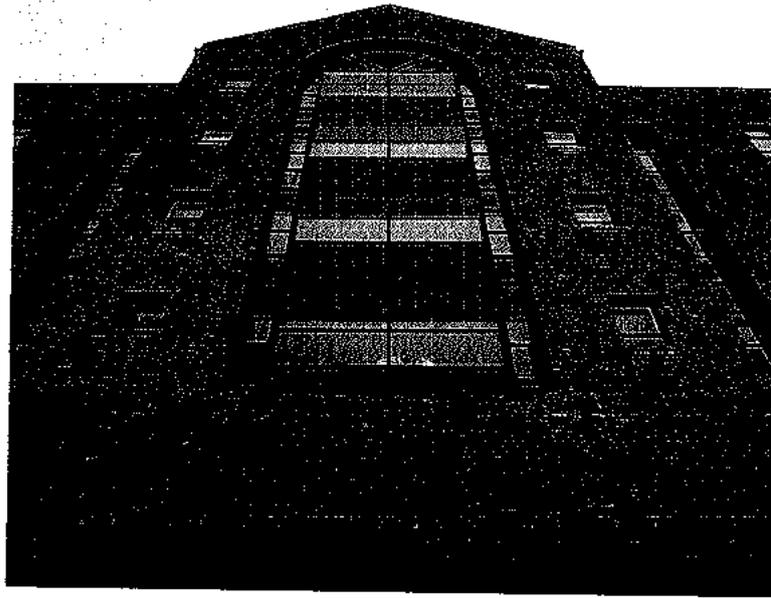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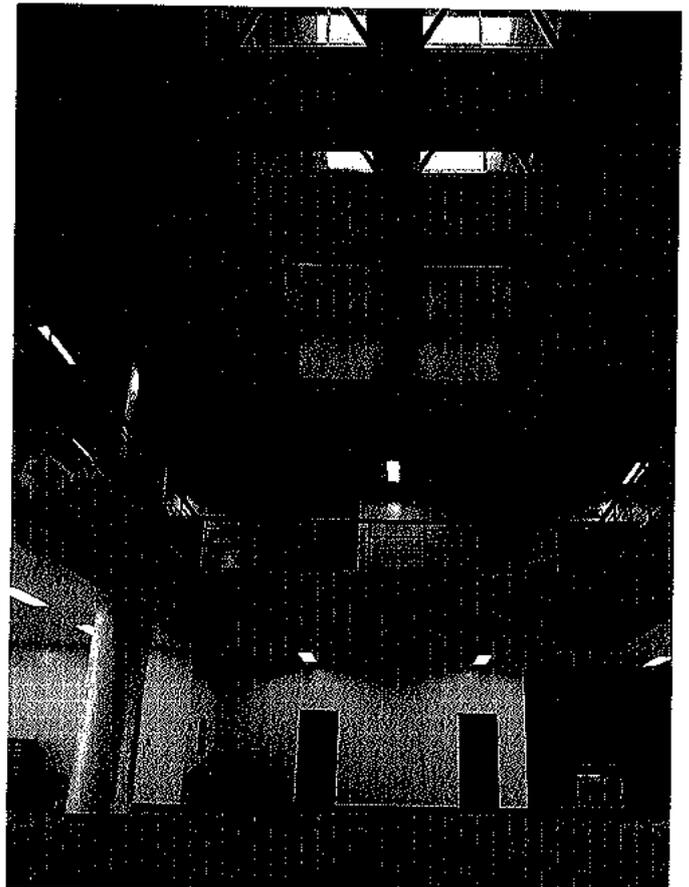


6

- ⑦ 전면 외벽 상세
- ⑧ 종단면도
- ⑨ 중정
- ⑩ 내부상세



- 1. 저수조
- 2. 기계실
- 3. 복도
- 4. 서고
- 5. 화장실
- 6. 초음
- 7. 방공실
- 8. 서고
- 9. 화장실
- 10. 로비
- 11. 사무실
- 12. 정보검색실
- 13. 독서실
- 14. 복도
- 15. 신문장지열람실
- 16. 자유열람실
- 17. 공동연구실
- 18. 박물관
- 19. 준비실
- 20. 클링터워
- 21. 볼텔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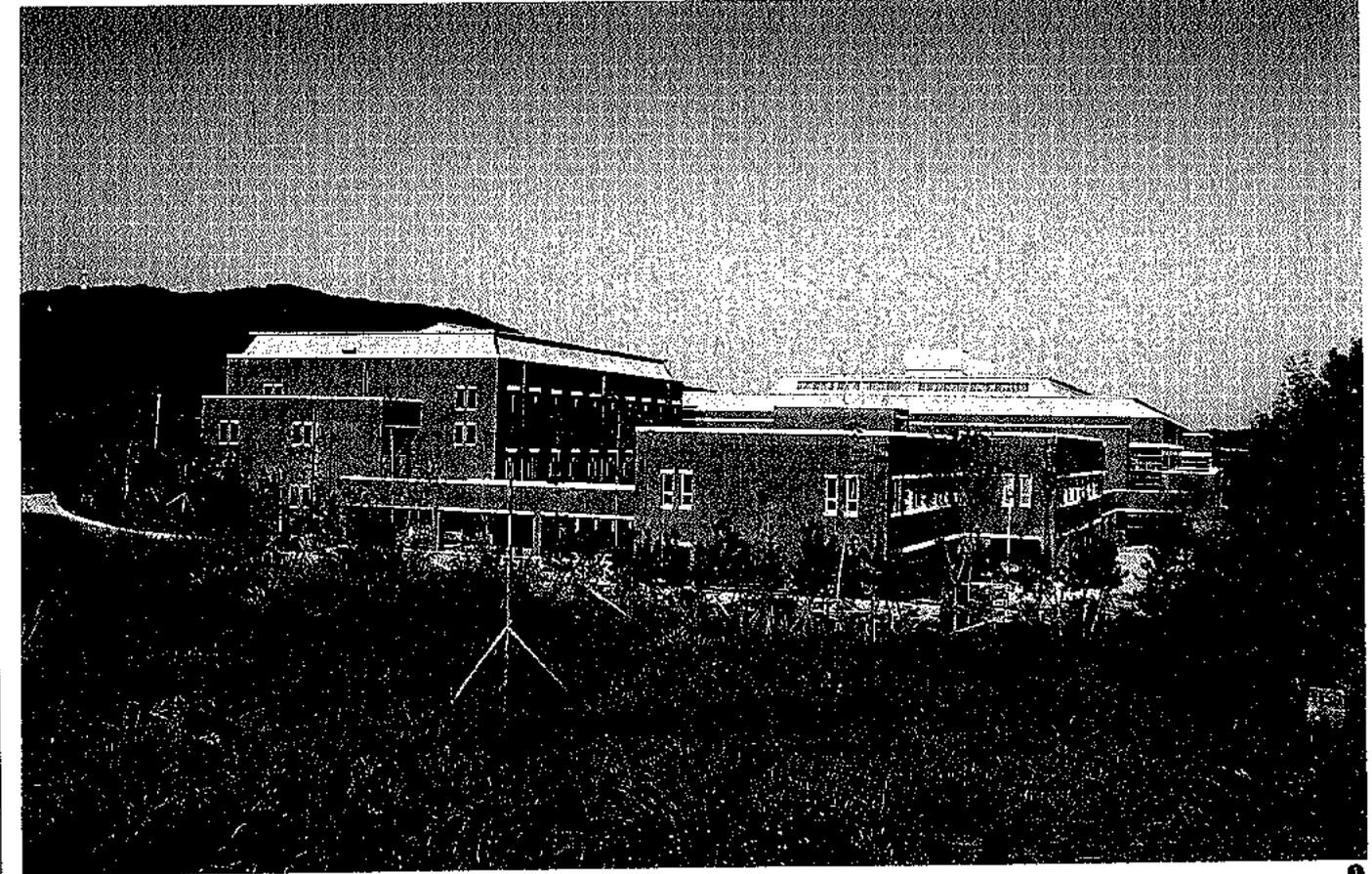
계명대학교 체육관

Kyemyung University Gymnasium

金武權 /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Moo-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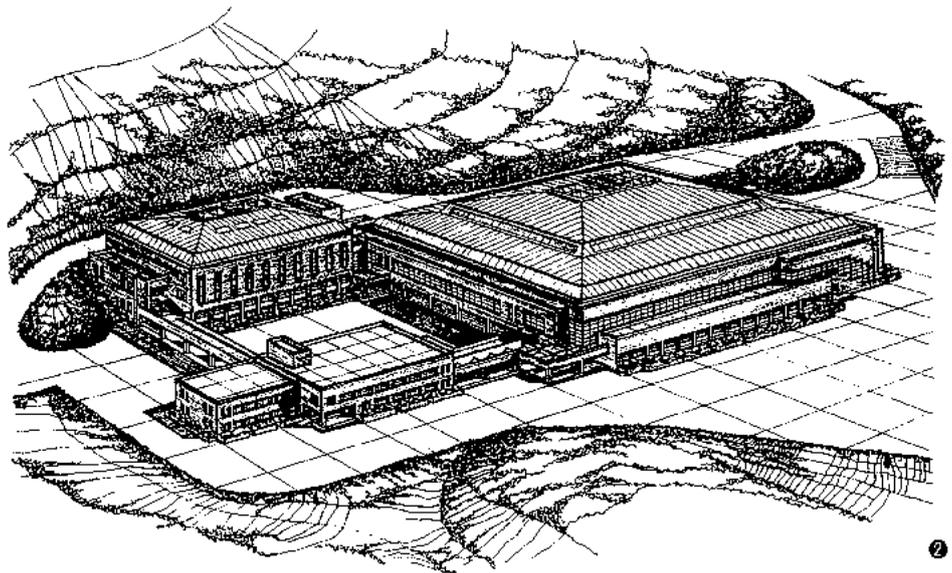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성서로 이전되면서 체육대학생들의 요구사항과 학교측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된 프로젝트로서, 체육고 학생 및 일부 선수들을 위한 전용 시설물의 한계를 넘어서 일반학생, 교수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사회의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건물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구강의동의 기능 및 구조가 다른 세 건물동으로 구분하고 각 건물간을 연결부도를 통하여 원활한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외무마감은 계명대학의 상징적 재료인 붉은벽돌을 사용하였고 단헌듯 하면서 열린공간의 중정을 돕으로써 사용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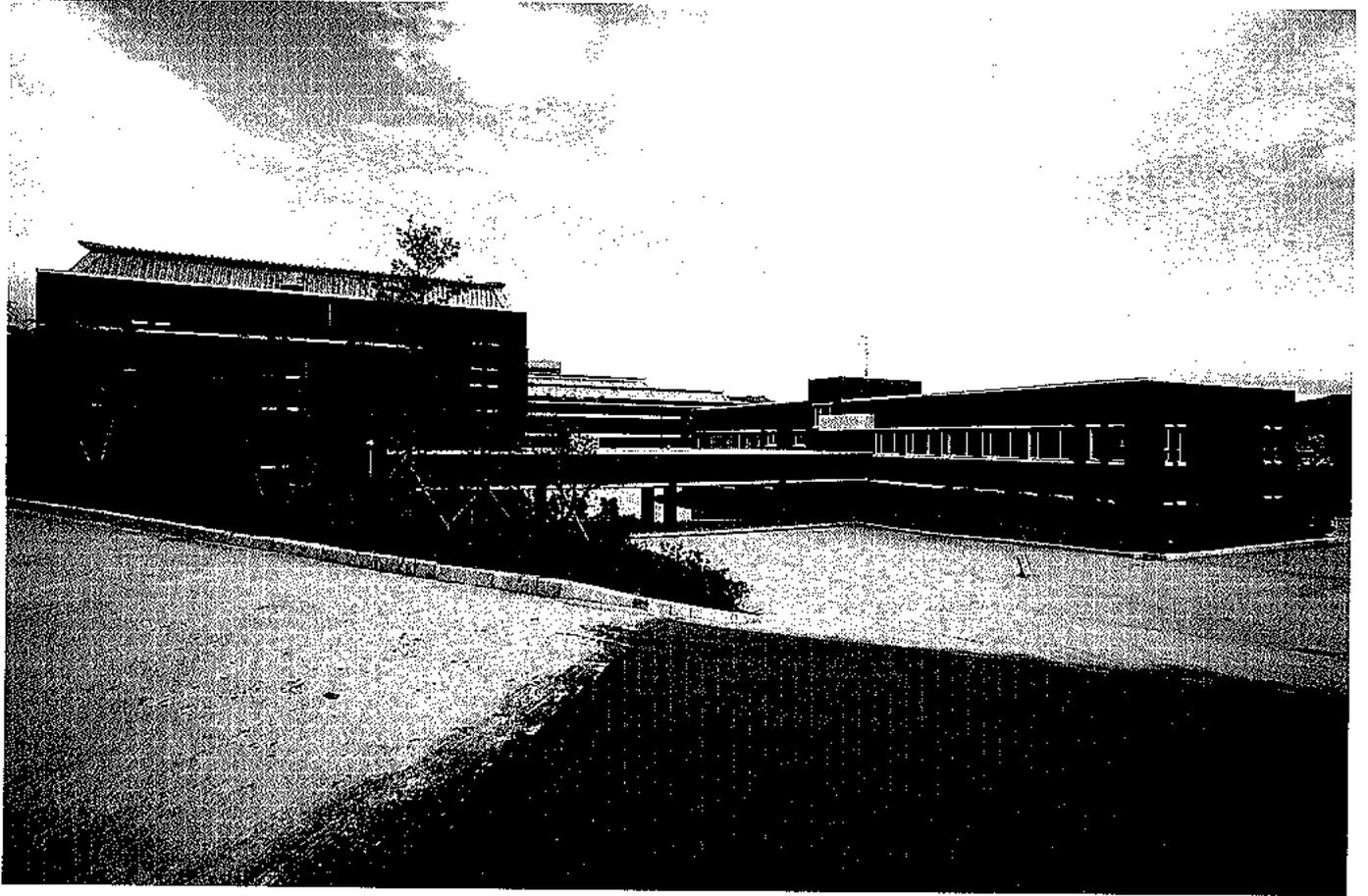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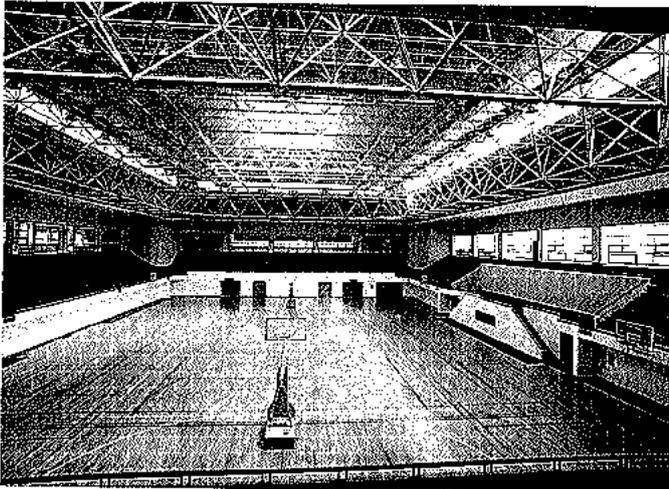
대지위치 /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대지면적 / 1,813,397㎡
건축면적 / 6,356.34㎡
연면적 / 11,528.5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마감 / 붉은벽돌, 하색 샌드위치판넬,
Space Frame 파이프 입체트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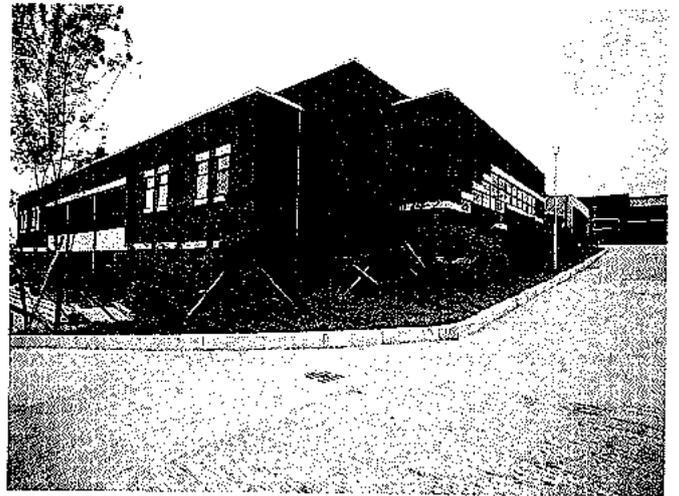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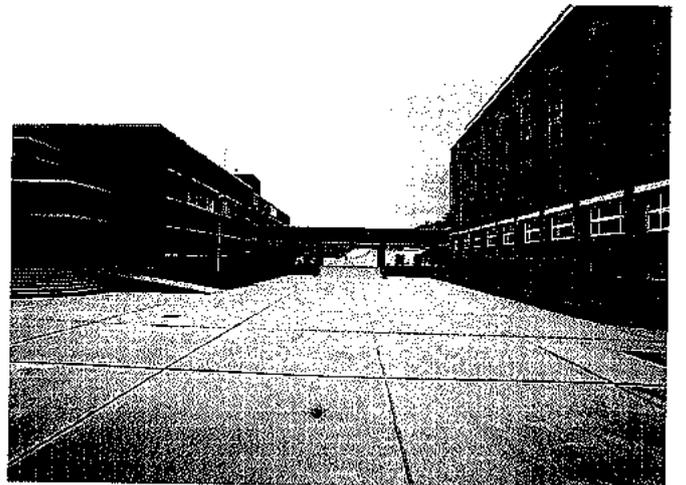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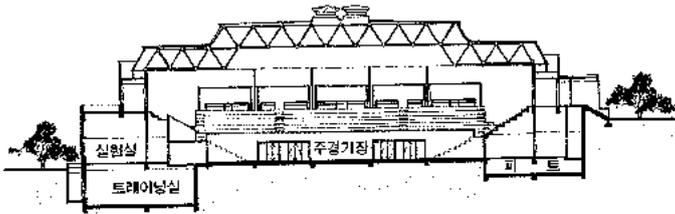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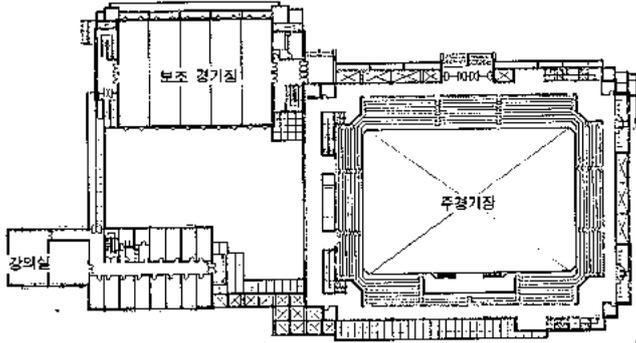
- 1 전경
- 2 투시도
- 3 전경
- 4 주경기장 내부 전경
- 5 보조경기장 전경
- 6 연결 브릿지
- 7 단면도
- 8 2층 평면도
- 9 1층 평면도
- 10 측면 외벽 상세
- 11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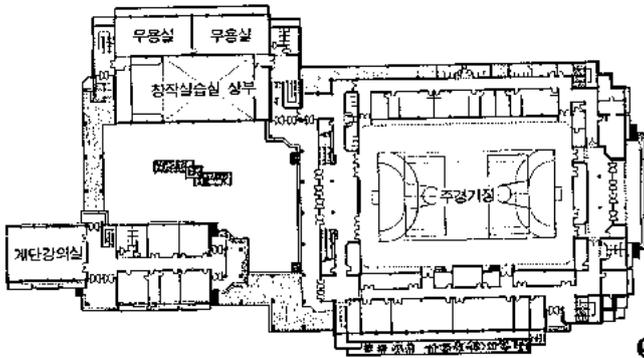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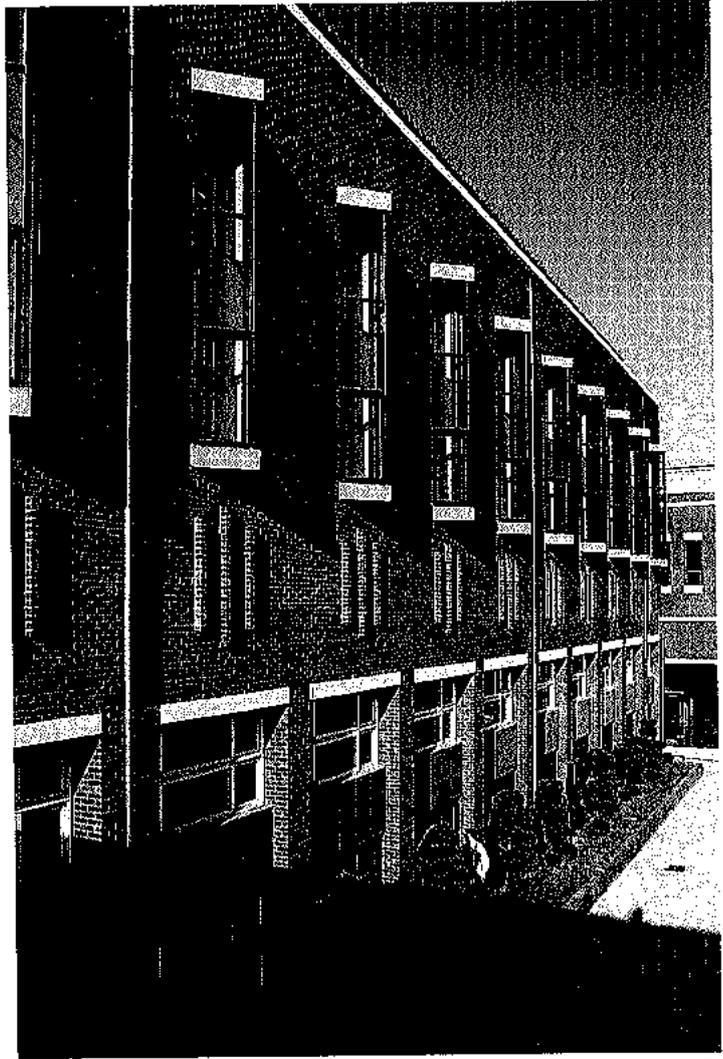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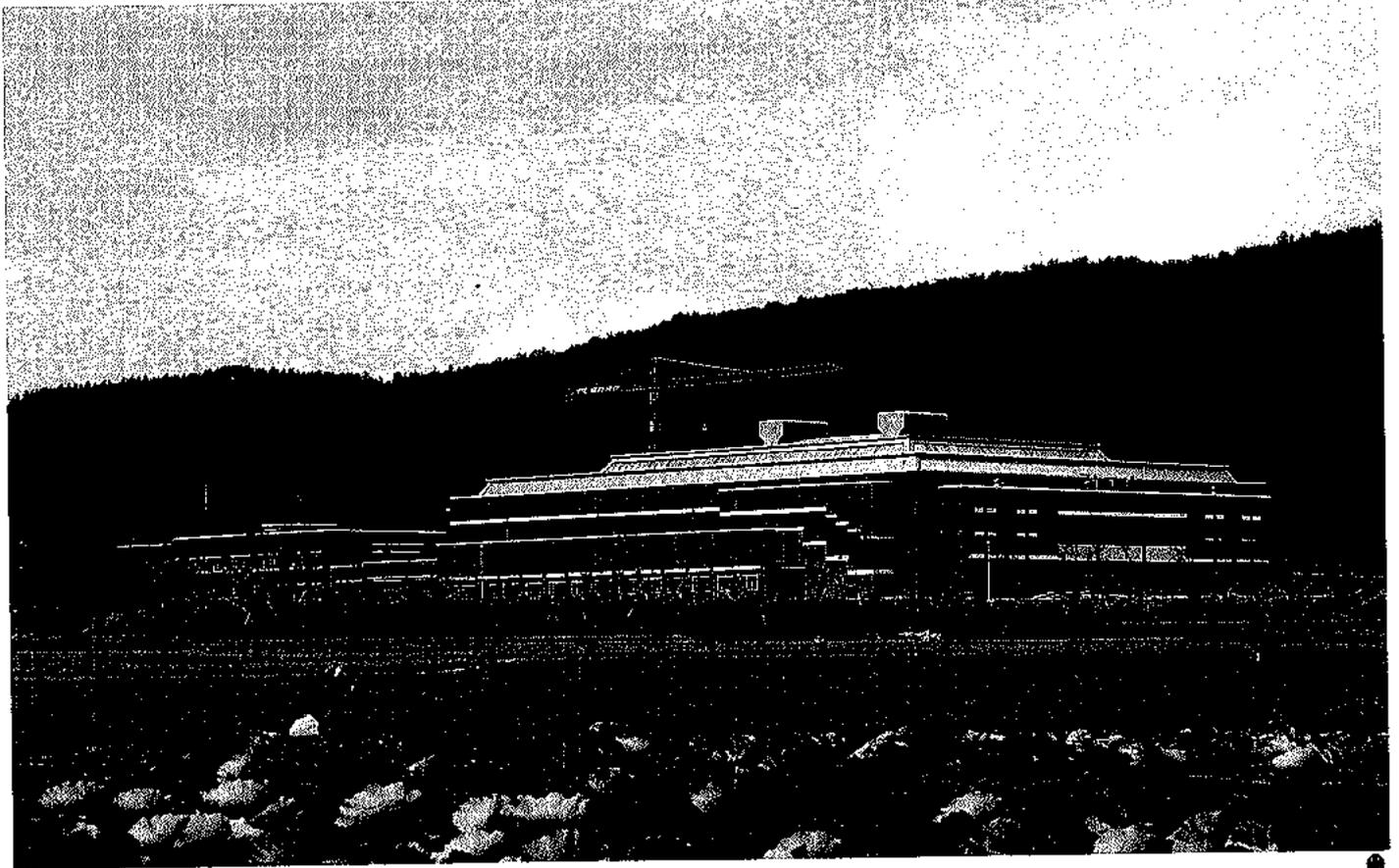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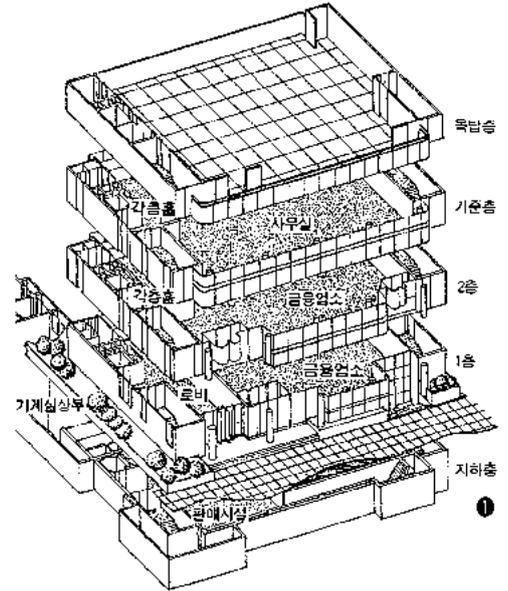
10



11

한서상호신용금고

Hanseo Mutual Savings & Finance Co. LTD.



WORKS

朴英昊 / 종합건축사사무소 의전건축
Designed by Park, Yo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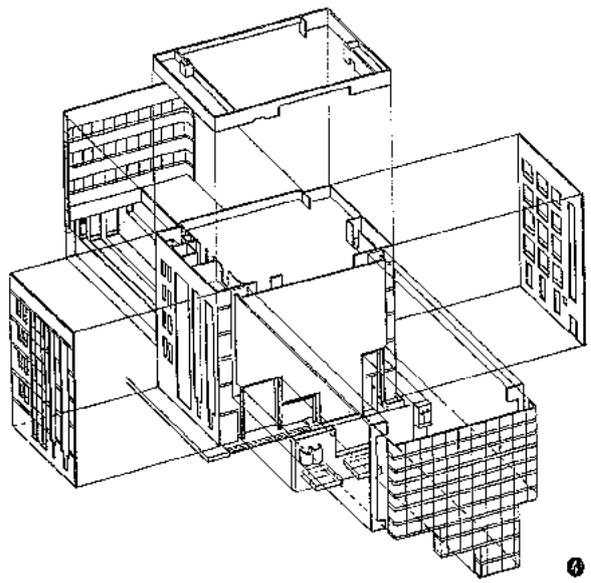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인천서 부구 부평동 439-2
- 지역지구 /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방화, 2종미관지구
- 용도 / 업무,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1,092.60m²
- 건축면적 / 545.14m²
- 연면적 / 3,732.03m²
- 건폐율 / 49.89%
- 용적률 / 222.19%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패널 + 외장용 타일, 컬러복층유리



- ① 평면 투시도
- ② 전경
- ③ 1층 영업장 내부
- ④ 조형 개념도
- ⑤ 주출입구측 상세
- ⑥ 1층 영업장 내부
- ⑦ 엑소노 메트릭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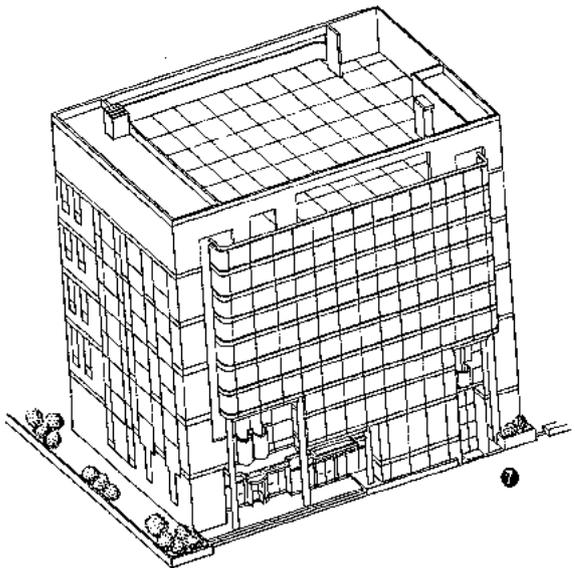
이 지역은 작고 넓은 건물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 얼마 있지 않아 이루어질듯 싶은 낙후된 지역이다.
 규모가 이미 한정된 치지에서 값비싼 건물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는데의 유난스러운 건축 파동을 감안한다면, 그 수난을 감당해낸 것이나 대견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몇몇 공사에서 날림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정일을 두달 가량 넘 산동스럽게 마무리 되었다.
 이른월 부분 부분에서와 출입구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대목에서의 처리는 그런 파동의 흔적으로 보인다.
 보면 그저 덩 덩하나 가까이에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상 되어 했다. 요철과 색채, 질감에서 그런 요소를 찾아 보았다.
 1선도로의 동과교통을 염려하여 후면에 주차장을 두었던 것이 4유공지를 다소 어렵게 했던 것으로 새겨본다.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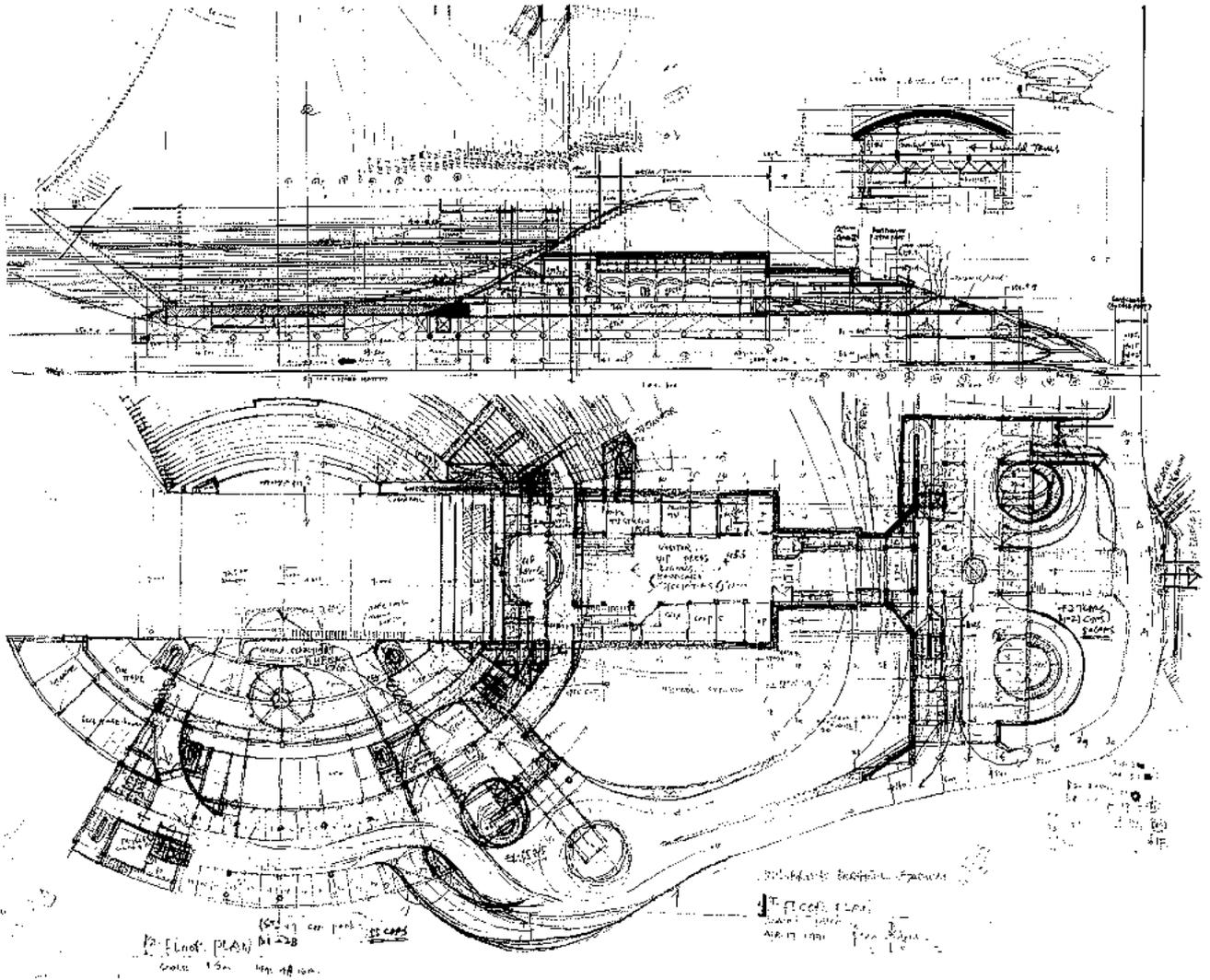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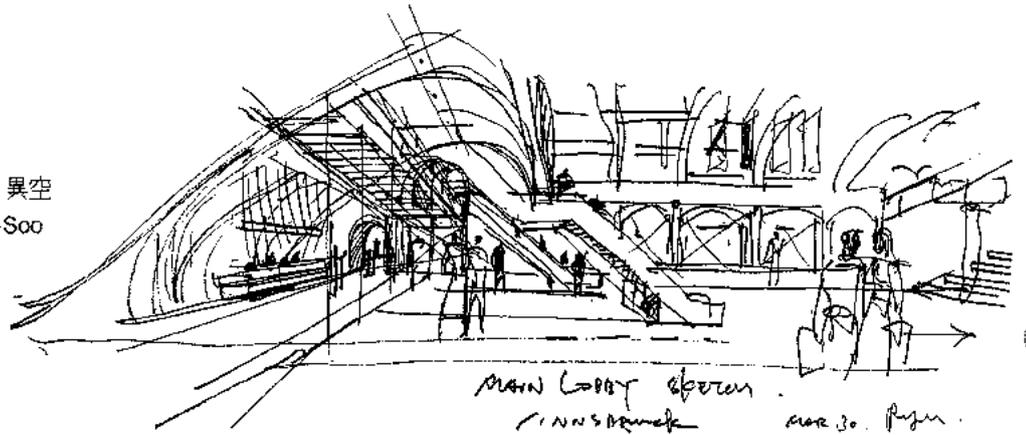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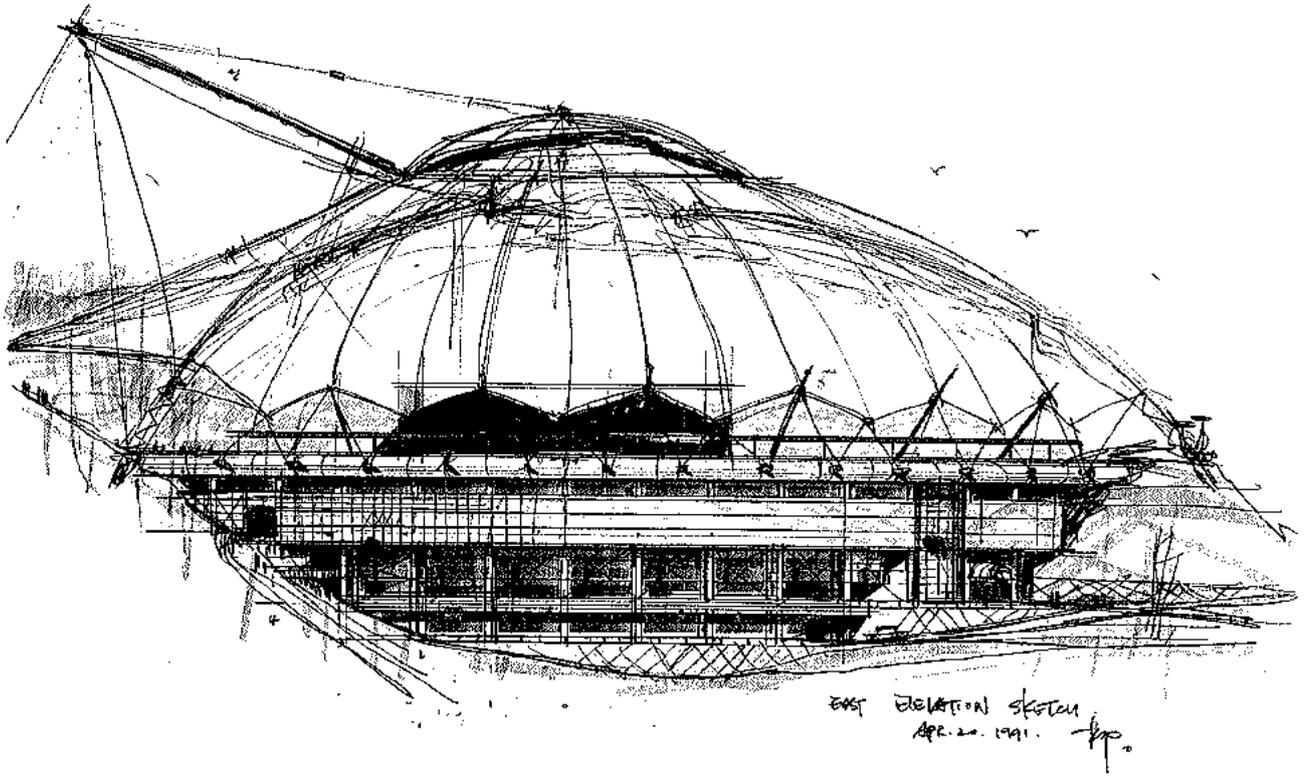
인스브룩 스키점프 경기장 계획 (안)

Innsbruck Bergiselstadion · Schematic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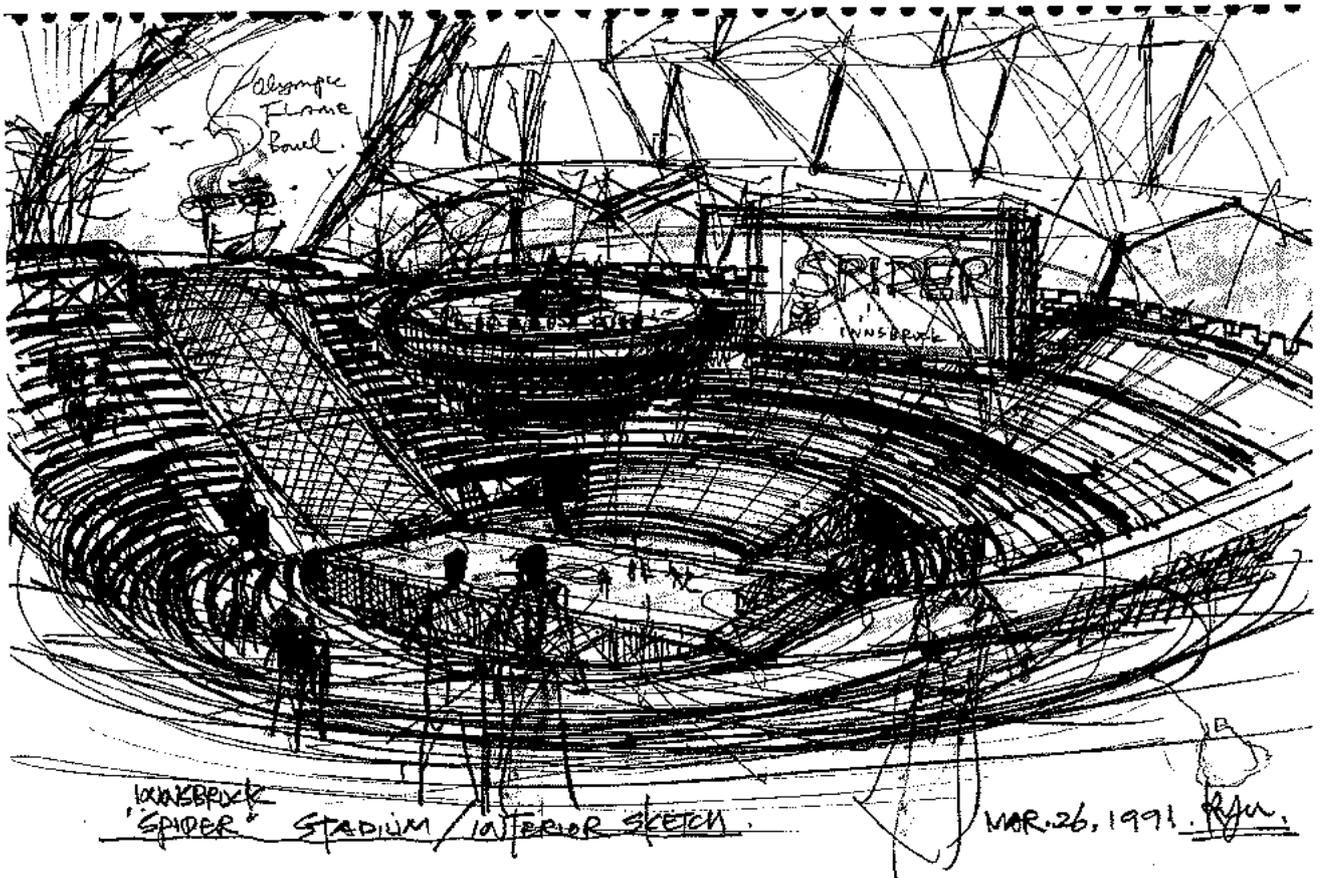
SKETCH

柳春秀 / 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Designed by Ryu, Choon-Soo





EAST ELEVATION SKETCH
APR. 20, 1991. *fp.*



WINDSHIELD
SPIDER STADIUM INTERIOR SKETCH

MAR. 26, 1991. *Ryu.*

신미년을 보내며

See the Old Year Out

崔英集 / 종합건축사 사무소 탐
 by Choi, Young-Jip

대망의 90년대를 맞으며 선진한국의 꿈을 그려보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90년대의 2년째를 보내는 마음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어쩐 일일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며 급변해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목조르기를 당하며 숨막혀 객객거리는데 살광질광 뚫은 부러지고 키를 잃고 표류하는 국내 제반상황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구나 그 하나의 희생양으로 영광스럽게도 우리 건축이 선택되었으니 90년대와 건축은 좋은 인연은 아닌상 싶다.

1991년을 맞으며 건축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과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닥쳐올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우리의 위상을 재창출하자고 독려하면서 몇가지 중점추진사항을 제시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올해도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도 시원하게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않은 채 저물어가고 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또 누군가가 「1992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희망사항을 열거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세월의 흐름을 탓할 것이다. 자 91년의 정리가 92년을 여는데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91년에 대두되었던 문제들, 거론되었던 상황들을 한번 뒤돌아 보면서 못다한 한을 넘겨보기로 하자.

• 고무적인 현상들

먼저 91년을 마치며 건축계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추려보면 첫째로 사회에서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형이하학적인 상태에서 형이상학적인 상태로 가치를 인정해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예로서 주요 일간지나 월간지에서 건축을 콘크리트 덩어리로서가 아닌 건축의 참다운 의미로서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기는 하나 신문사회면이 아닌 문화면에 건축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미 건축이 건축수 또는 건축가만의 것이 아닌 사회의 유산이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는 넓어진 현상설계의 기회를 통해 응모작품이 많아지고 있고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작가와 작품들이 빛을 보아 건축계에 희망을 던져주며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심히해서 작품이 좋으면 좋은 기회에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데뷔할 수도 있다는 건전한 꿈이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풍토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 건축의 발전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건축을 건설의 일부로 생각하는 현실에서도 점점 각종 공모전에 응모학생이 많아지고 있고 설계를 건축의 주역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비로소 정착되어간다는 상황이다. 한동안 70년대 해외건설붐으로 거의 모든 건축인력이 건설회사로 몰려가는 무분별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의식있게 자기 길을 선택하려는 주체성이 돋보이고 있으며 의욕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의 그러한 인식은 분명 우리 건축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넷째, 해외여행 자유화로 또 각종 정보의 풍요로 인해 건축사조의 진과력내지 영향력이 빠르고 커졌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비단 91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이 91년에 더욱 팽배해져서 건축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외국건축가들의 초청강연, 진사회개회등 가까워진 외국의 영향들이 건축계를 잠깨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우리들에게 고무적인 현상에 틀림없다.

다섯째, 건축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다분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집장사에서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주들의 인식 속에 어느 틈엔가 건축은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어박히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업성도 좋은 일이고 사회적으로 명분도 서는 일이며 개인적으로 성취욕을 이루기도 하는 뜻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우수한 의식있는 건축사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는 우수한데 사회인식이 부족하고 건축주 설득이 어려워서 좋은 건축을 못만드는 것처럼 자위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다. 어찌 분명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항상 무엇을 보낼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91년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만행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고통을 삼켜야 했던 해이며 발전적 미래를 위해 1보 후퇴해야 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다시는 어리석은 91년의 전철을 밟지말도록 하고 고무적인 일들만 잘 기억하며 미래를 맞는 큰 힘이 되도록 하자.



있겠는가.

고무적인 일을 더 찾으면 또 있겠지만 그쯤 해두고 이번에는 한심한 일들을 또 열거해보자. 어찌보면 야누스의 일곱어기도 하겠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 한심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하고 개탄해마지 않은 한심한 일들...

첫째, 민주화 시대에 반민주적인 만성적 행정만능의 폭력지행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어리석은 행정력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통키호테식의 시행착오일 뿐이다. 건설행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구조적 고통을 이해는 한다지만 대원근 매나 있을 수 있는 일이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건축전문집단을 희생양으로 하고 건설회사의 연쇄부도를 구경하면서 한마디 행정착오의 사과도 없이 2년을 규제라는 미명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건설행정의 민주화는 진정 요원한 일인가, 다른 분야는 그래도 형식적이거나 민주화 흉내를 내고 있다지만 우리의 건축행정은 언제까지 이꼴이어야 하는지 한심하다. 내년에도 자재난이 좋아질 전망은 없고 4대선거인가 무언가로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텐데 계속 규제를 연장하실런지.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계 법규 및 제도의 운용도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뿐인 우리의 건축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흔들리는 건축법 체계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종합이다, 단독이다 갈라놓은 편의주의적인 규제일변도의 행정발상은 건축사의 질을 높인다고 교육이다 부이다 하면서 특별전형의 특례를 미끼로 주는 시험제도, 인턴과정을 거치며 열심히 설계 수습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찌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건축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심할 뿐이다. 그동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충분한 토론 끝에 집차 개선될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91년을 보내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셋째, 시대는 급변하고 상황은 악화되는데 구태의연한 태도로 건축에 임하는 우리들 자신의 나태와 타성이 한심하다. 국가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볼때 기대되는 수준에 미달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저저로 살아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혹독한 현실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 밖에 없을 터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받고 함께 힘이 되어 사는 길일텐데...

넷째, 건축의 인식은 좋아지는 반면 그 건축을 달려들어 추구하려는 근성은 점점 약해져서 30기피현상에 건축이 들어간다는 실제 상황이 우리를 또 한심하게 한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연습하지 않은채 걸뭇만 들어서는 우리의 건축을 탄탄히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고 이리저리 홀라다니며 뿌리박지 못하는 부초 인생으로서 깊이있게 건축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길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보람 속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고생스럽더라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건축계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소화시키지 못하는 무분별한 해외건축사조의 모방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축도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겠는데 현대 건축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건축사조의 근간을 이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전하고 풍요로운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깊이있는 고민을 나누어야 한다. 기성작가나 학생이나 유행적 형태의 복사는 우리 건축에 의미없는 혼란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이상 91년을 보내며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적인 상황이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두서없이 열거해 보았다. 항상 무엇을 보낼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91년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만행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고통을 삼켜야 했던 해이며 발전적 미래를 위해 1보 후퇴해야 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다시는 어리석은 91년의 전철을 밟지말도록하고 고무적인 일들만 잘 기억하며 미래를 맞는 큰 힘이 되도록 하자.

바람속에서

In the Wind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ub

POEM



“연인의 초상” 1977. 5.
Portrait of sophia
pencil on tracing paper

프롤로그

生の 찬란한 中心으로 부터 時間의 힘이
어느덧 우리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려 한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지난날의 색들이 더 바래지기전에
젊은 날 戀人의 초상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回想의 나래를 편다
그대는 밤을 새우고 보라빛 새벽이 내릴때까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詩想을 다듬기도 했었다.
먼 훗날 그글을 다시 읽고 늙어버린 가슴이 무너진다해도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을 영원히 추억 속에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에...

십이월

별빛이 유리의 잔해처럼
하늘에서 쏟아질것 같은
크리스탈의 밤을 만들고 밤에 걸치진
외로운 電線을 더욱 외롭게 합니다.

십이월은

거리의 나무들을 웃베키우고
풍성하였던 두팔에서
모든것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자애롭던 땅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1년전 이맘때의 비정함이
기억날때
사람들은 이속고
고독하여 지는 것입니다.

십이월속으로

詩를 쓰는 계절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차거운 사색의 미소를 머금고
텅빈 거리에 눈과 바람을 뿌리듯
풍요로운 말의 유희를
씩웃뿌리너.

십이월 어느날

책갈피 속에서
쓰다만 詩를
문득 꺼내어 봅니다.

십이월의

차가운 바람에 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를
담은
스케치를.....

바람속에서

산은
우리더러
높이
오르라 한다.
높이
오르지 않고
세상을 널리 볼 수 없다한다.

강은
우리더러
흐르라 한다.
길게 누워
내가
흐르지 않고
다른 세상을 볼수 없다 한다.

누우런 들판은
갈바람이 불때마다
우리더러
누우라 한다.
그렇게
높지않고
검손할 수 없다 한다.

파도는
우리더러
외치라 한다.
외치고 부르다가
이름모를
해안에서 물거품되어
부서지라 한다.

바람은
대자연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자를
소리내어
소리내어
슬퍼하라
슬퍼하라 하신다.

나뭇잎은
땅에
떨어지라하고
이슬들은
서로 모이라 한다.
손에 손을 모아
사랑하라 하신다.

IN THE WIND

by Simon Kim

The mountain bids us to soar
If we refuse the climb, we cannot see ahead

the river urges to flow
If we lie low and motionless
we cannot see the changing world

In the golden field
every breath of wind gently bends us
without bowing, we cannot know humility

The tide beckons us to cry out
until finally we are crushed
against some nameless shore

The wind mourns for those of us
who live uncaring of nature's grandeur

Let the leaves fall
Let the dewdrops gather
Let us go hand in hand
and sing "I love you"

translated by B. Grinell & Y.S.Jin

'92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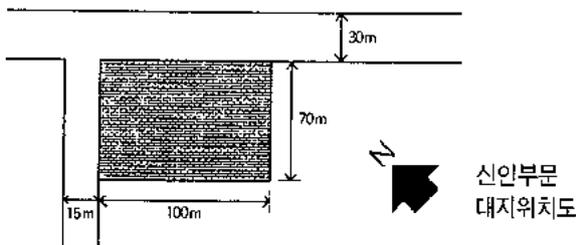
- 1992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개최
- 1992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2년 2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전문대학 졸업후 2년이내인 자도 응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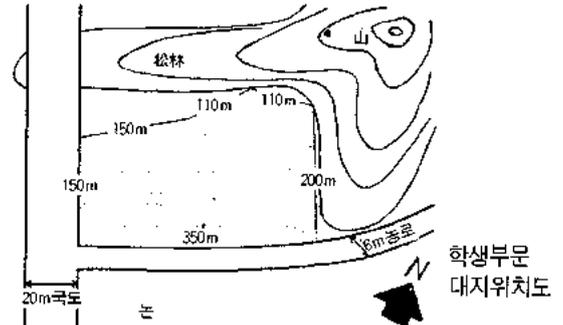
■ 출품내용

- ◆ 건축사부문
 - '89년~'92년 2월 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 신인부문
 - 1) 주제 : 지역문화회관(Community Center)
 - 2) 대지조건 : 주거지역 7,000㎡
 - 3) 개요 : 인구 20만 단위의 지역문화공간 및 교육복지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는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체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주민들 생활의 중심지로 계획함(구민회관 or 주민회관 성격)
 - ① 연면적 7,000㎡내외
 - ② 4층 이내
 - ③ 700석 규모의 강당 및 기타시설
 - ④ 주차장은 옥외로 계획할 것
 - 4) 주요기능 : 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습실, 체육실, 독서실, 식당 등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作家의 의지에 따라 특성에 맞추어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5) 특기사항 : 현행 건축관계 법규에 맞추어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1) 주제 : 청소년 수련회관(Youth Center)
- 2) 대지조건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 약 60,000㎡
- 3) 개요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시설로서 MT 또는 복합수련용
 - ① 연면적 5,000㎡ 내외
 - ② 4층이내
 - ③ 500명 수용 규모의 숙박시설 및 부대 수련시설
- 4) 주요기능 : 강당(500석 수용능력의 다목적 홀), 숙소(4~16인용 침실), 식당 공동 세면장 및 목욕탕, 교실(분임토의실), 회의실 등을 기본으로 하되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마감

- 건축사부문 : 1992년 3월20일(금) 본 협회 출판사업부
- 신인·학생부문 : 1992년 3월30일(월) 17:00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응모신청시 신분증 필히 지참, 마감시간 엄수

■ 탈락작품반환 : 1992. 4. 2(목) 10:00~17:00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90cm이내의 규격 패널 2~4매
- ◇ 신인·학생부문 : 120cm×120cm 규격 패널 1매 및 80cm×80cm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지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시상

- ◆ 건축사부문
 - * '92한국건축대상(▷) : 상장 및 트로피
- ◇ 신인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별도 해외건축연수 경비 200만원 보조, 상장
 -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학생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ARCASIA 학생멤버리 파견특권 부여)
 -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10) : 상금 50만 및 상장
 - * 시도건축사회 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문의

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581-5711~4

'91 현상설계경기를 뒤돌아보며

本誌에서는 '91년도 우리나라 설계경기를 뒤돌아보며 아직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건축의 본질이 일부 왜곡된 경기운영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면서 올바른 설계경기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에 이루어진 일부 설계경기의 당선작을 통해서 거기에 주된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평면적으로나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향후 서어비스부문의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업체들의 국내설계경기의 참여가 여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우리의 문제점들이 범 건축계 차원에서 정돈되고, 적극적인 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설계경기 유감	장웅재
현상설계경기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장세양

'91 현상설계 경기 당선작 14선

둔산 정부 제3청사	삼우건축
전남대학교 본관	단우모람건축
서귀포 시청사	천일건축
안양시청사	부림건축
군산시청사	삼정건축
통일 전망대	진원건축
춘향문화예술회관	청건축
동해시 종합문예 회관	대건사건축
경기도립박물관	공간건축
서울시설 관리공단	범한건축
대전상공회의소 회관	정림건축
한국청년회의소연수원	간건축외
부산은행 전산센터	목전건축
3대 동거형 공동주택	토문건축

설계경기 有感

Regretbleness of Korean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藏應在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 건축
by Chang, Eung-Jae

ISSUE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설계경기를 시행할 경우 그 목표는 「훌륭한 작품」을 얻는데 두어야 하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건축가」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형식이든 원칙적으로 「작품」이 선택되는 것이어야 하고 지명설계경기의 경우 건축가의 선택을 위한 경기일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작이나 그 제출방법에서 그 의도가 표시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설계경기를 선택할 경우 그만큼 신중히 목표도 설정되고 그 시행 방법이나 과정이 상기의 목표 구현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할 일이며, 그결과 그에 관계된 모든 건축인이 함께 공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한 작품」의 선택에 의해 건축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설계경기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자의 지침에 좀 안맞더라도, 또 심사내용이 좀 덜 공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에 선택되어지는 것을 희망한다면 너무 역설적이라 할 것인가?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설계경기」의 거의 대부분이 「외관설계경기」이다. 그래서 「투시도경기」이고 또 「모형제작경기」이며 「도면표현력 경기」이곤 한다.

건축적 내용은 아마 실시설계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가장 중요한(?)외관 또는 입면으로 안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또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에도 건축적 내용의 훌륭함이나 독특한 제안의 유무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으며 면적을 얼마나 더 크게 소화했는지, 높이를 몇층으로 만들었는가에 주취측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곤한다. 이렇게 「질」이나 「격」보다는 양적인 해결을 선호하고 좋은 건축, 훌륭한 건축에 대한 내용적인 구현보다는 외형적이고, 주위환경에 군림하는 「외관」으로 결판내는 설계경기를 보곤 한다.

물론, 모든 설계경기가 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설계경기가 그런 수준에서 진행되고 구체화되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 관계된 주취측, 응모자, 심사위원들의 양식을 의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 능력을 의심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있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한탄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②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설계경기를 시행할 경우 그 목표는 「훌륭한 작품」을 얻는데 두어야 하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건축가」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형식이든 원칙적으로 「작품」이 선택되는 것이어야 하고 지명설계경기의 경우 건축가의 선택을 위한 경기일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작이나 그 제출방법에서 그 의도가 표시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설계경기를 선택할 경우 그만큼 신중히 목표도 설정되고 그 시행 방법이나 과정이 상기의 목표 구현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할 일이며, 그결과 그에 관계된 모든 건축인이 함께 공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한 작품」의 선택에 의해 건축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설계경기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자의 지침에 좀 안맞더라도, 또 심사내용이 좀 덜 공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에 선택되어지는 것을 희망한다면 너무 역설적이라 할 것인가?

③ 설계경기는 주최자 또는 건축주, 심사위원, 응모자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는 구룹이 관계하게 된다. 설계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구룹이 각각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응모자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성패가 여기에 달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먼저 주최자 또는 건축주와 심사위원의 역할에 의해 설계 경기의 여건과 매력이 제공되어지므로 주최자와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작품에 대한 구체적 능력을 발휘할 응모자의 역할에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주최자로서의 건축주는 설계경기의 동기를 제공하며 그에 의하여 설계경기의 성격과 목표, 또 수준이 결정되므로 3자중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설계의 확실한 목표설정 적절한 진행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지침은 설계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 수행방법에 따른 적절한 대가의 설정에 의해 응모자에게 그 창작의욕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최자가 담당해야 한다. 건축설계의 내용이 일종의 선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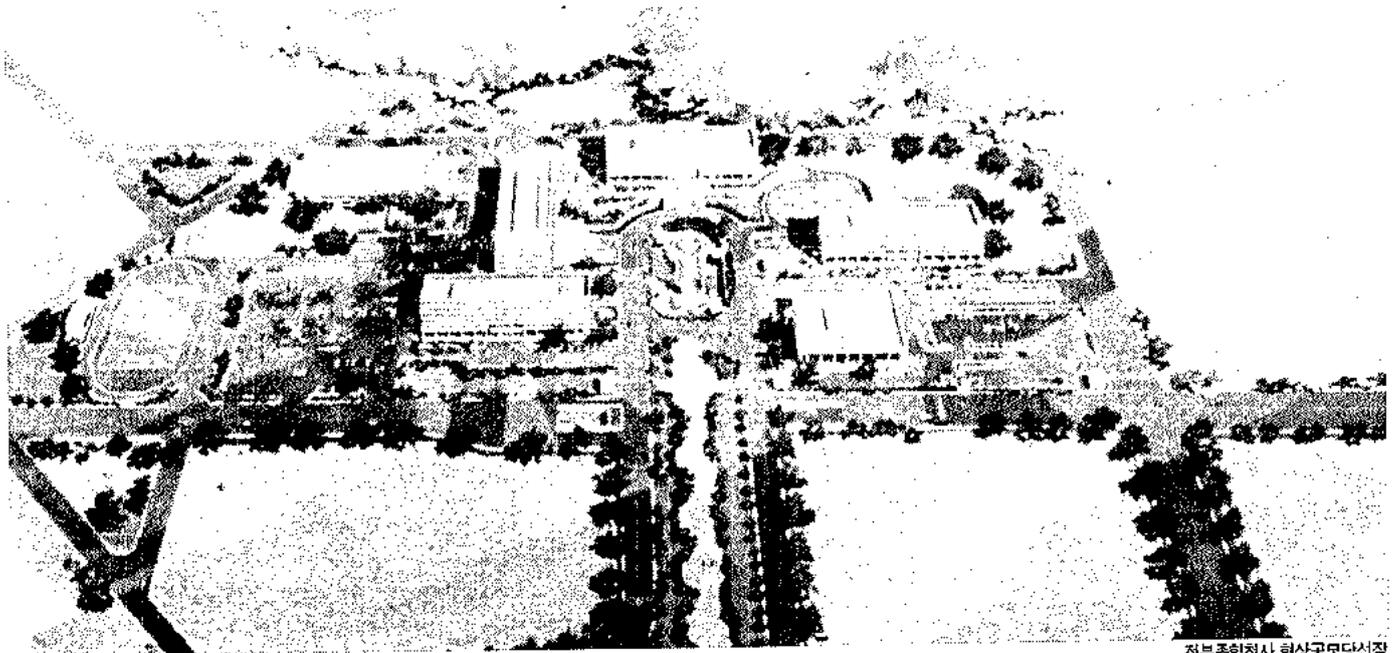
의한 해결을 바탕으로 이루게 되는 속성을 무시한 채, 정확한 수치가 결여된 채 추상명사로 일관된 설계지침의 제시라든가, 규모나 용도의 소화를 무시한 극단적인 짧은 제작기간의 제공, 또 실제의 제작비에도 거리가 먼 대가의 지불을 여건으로 설계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훌륭한 작품에 대한 바람에 앞서 그 불확실함과 무모함, 불성실함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또 설계경기의 여건 제공의 중요한 역할로서 심사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사전 발표, 전문성의 확보, 건축가의 심사위원에의 주도적 참여 등 심사위원 선정문제와 합의에 의하지 않는 심사방법등에 대해서 무수한

오직 건축주의 과도한 요구에만 영합하여 (案)으로서가 아닌 건축작품 외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는 한 많은 수의 설계경기가 일방적이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 3자 중 응모자의 역량에 좌우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며, 돌이켜보면 구분된 3구룹이 실제적으로는 주로 「건축인」이 관계하는 역할의 분담이고 보면 우리들 건축인들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④ 초기의 남산국회의사당계획, 부산민중역사, 공군본부, 정부종합청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초창기의 설계경기가



정부종합청사 현상공모당선작

논란과 제안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든,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심사위원의 양식과 능력에 의존되는 것이 심사의 본질일 것이며, 당연히 선임된 심사위원의 자질, 도서를 파악하는 능력과 성실성, 또 설계경기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의해 심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심사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투표방법이나 「결점심사」의 경향을 자주 볼 수 있으나, 이는 훌륭한 작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설계경기의 방법이라면, 결점이 없는 무난한 작품의 선택보다는 약간의 결점이 있더라도 독특한 건축적 의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선택되어야 옳지 않을까. 왜 설계경기를 하는가, 그 목표에 대한 최종의 선택이 심사위원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지되며 더욱 건축가로서 참여한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상기의 두그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모자의 경우 그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응모자의 경우는 그 훌륭한 작품에의 구원능력과 노력에 대한 성실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며, 응모자 구룹 스스로가 규율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설계경기에는 스스로 참여치 않음으로 건축가의 품위와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경기에 참여할 경우 오직 훌륭한 작품으로서 평가받도록 노력하는 규율을 지켜 나갈 경우 우리들이 불쾌해하는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보여주듯이 주로 공공성을 띤 용도와 상당한 크기의 프로젝트가 설계경기에 등장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용도에서 공공의 청사가 주종을 이루던 것이 문화시설,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넓어지고 규모도 몇 백평 수준에까지 확대되어 금년에는 연간 30~40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설계경기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임대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까지 설계경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설계경기 남발시대를 맞은 느낌이다. 응모자의 입장에서 더 많이 주어지는 기회를 나쁘다 할 수 없으나 좋지 못한 여건을 제공하는 수많은 설계경기에 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의 설계경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사람의 건축가생각보다는 여러 건축가의 의견을 받고 싶어하고 확실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도 무언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건축주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으나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 하고, 상당수 설계경기가 변칙적인 건축가 선정보 방법으로 동원되어 「외관적인 공정성」만 부여하는 절차로서 수행되며 또 많은 경우에 당선작이 없거나, 당선작 선정 후에도 별도의 새로운 설계에 의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변칙적 설계경기에 우리들 응모자 구룹은 과도한 출혈과 정력의 낭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몰이해적인 조건의 제시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인간적 욕심과, 어떤 방법으로도 당선할 욕심으로 과도한 출혈을 자진하여 선택하는 건축가들이 존재할 경우 설계경기의 풍토개선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상설계 경기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The Operation of Korean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 their Controversial Point and It's Countermove

張世洋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Se-Yang

ISSUE

현상설계의 목적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좋은 안을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상안을 통해서 적합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상설계는 좋은안을 선정하거나 적합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 국내의 현실은 앞에서와 같은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설계자 선정의 방법상 수의계약, 가격입찰(설계비), 현상설계 크게 삼분되는 방법 중 수의계약은 감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란 지적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가격입찰방법은 건축계의 덤핑에 대한 반발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므로 어쩔수 없이 선택된 방법일뿐 좋은 안이나 좋은 건축가를 선정 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방법이 아니므로, 지금의 현상설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여기서 현상설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나열하여 각요소마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현상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성요소는 건축주, Project, 건축가와 심사위원이다. 그리고 구성요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현상설계를 이루고 있다.

1. 건축주

건축주가 공공단체이건 개인이건 그 자체로서의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건축주가 공공단체로서 현상설계의 목적이 순수하지만 감사를 의식한 책임회피의 방편에 있느냐가 문제다. 현상설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야기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프로젝트(Project)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현상설계가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기능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이용자가 특수층이 아니므로 어떤 건축가에게나 쉽게 파악이 되나 특별한 아이디어의 창출로 새로운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 Project들이 현상설계의 Project로 적합하다.

예를 들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음악당, 기념관 등이다.

그외 대부분의 Project들이 현상설계로 진행되기보다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줄기를 잡아갈 필요가 있으므로 현상설계의 방법보다는 건축주의 의도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 후 협의로 풀어가야 할 Project들이다.

3. 건축가

일부의 건축가들이 현상설계를 단순히 프로모션의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참여한다면 역시 현상설계가 야기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건축가가 한프로젝트에 특이한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전념을 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현상에 응한다면 지금처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상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상설계는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Open해도 좋은 안을 창작할 수 있는 건축가를 찾겠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이상 지역이나 지방에 따라서 폐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결국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폐쇄적인 현상설계의 용모태도 역시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는 건축가가 자기의 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건축대전의 일반공모전에 제출하는 학생들의 작품과 같이 가능한 걸치레의 화려함을 나타내려하는 것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걸치레의 화려함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으므로 이 문제도 건축가가 현상설계에 미치는 안좋은 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4.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구성원은 현상설계에서 건축주의 의지가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 혹은 책임회피를 위한 한가지의 방편으로 선택했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심사위원이 가지고 있는 현상설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과 어떤과정을 거치든 간에 결과를 마무리짓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심사위원의 선정자체에 어떤 프로젝트의 특성상 명확성을 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격보다는 학연 또는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단체의 어떤 배경에 의해서 심사원으로 선정된다면 그 역시 심사위원의 선정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심사위원이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가와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대변인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한 두번째 문제점은 심사위원선정의 구성원 비율의 문제이다.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성비율의 문제가 된다. 심사위원의 선정을 사전에 공고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 심사위원이 심사결과에 대해서 건축주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나 하는 문제, 심사결과를 지면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과 함께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심사결과를 공개할 뿐 아니라 한국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재검토 내지는 하나의 연구 케이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다같이 공부하느냐 하는 문제 등은 심사위원이 현상설계에 미치는 참으로 막대한 영향력만 아니라 그러한 위상을 한시바빠 정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5. 대안

앞에서 현상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요소간의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았다. 그러나 문제점의 나열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해결방안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냐 하는 점에서 잠깐 적어보겠다.

현재 국내 건축계의 3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만들어진 현상설계의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성된 지침서는 국제건축가협회 즉, UIA의 현상 설계기준으로 참조하여 국내현실을 감안하여서 정리한 것으로 현재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현상설계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설계의 지침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적용된 케이스가 전무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 예로 1989년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의뢰에 의해 한국 건축가협회가 수뢰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을 정도이다. 그 적용된 결과 비교적 무리없는 현상설계의 진행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었다.

기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진지한 건축주, 프로젝트, 건축가, 심사위원들의 문제를 그 규정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국립대구박물관에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아울러서 얘기해 봄으로서 현상설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한 예로서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대구박물관의 설계지침서 작성을 위하여 박물관 설계에 전문적인 충분한 연구가 있었던 국민대학교측에 대구박물관 설계지침서를 의뢰하게 된다.

그 지침서에는 대구박물관이 가져야 될 설계상 배려해야만

될 여러사항들이 자세히 요구되어 있다. 하지만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은 분명히 2~3개월 정도로 무척이나 짧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서로서의 문제점은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구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의 목록과 확실한 계획서가 없었던 지침서의 부족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지침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지침서에 의하면 심사위원의 숫자 역시 규정되어 있다. 전문가 5인과 비전문가의 숫자적인 비율을 규정지어 놓고,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숫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장은 분명히 현상설계공고시 동시에 심사위원을 발표하는 규정도 있다. 이 문제는 심사위원 역시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상설계가 공모되고 있는 동안 역시 심사위원도 그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하나기아만 하고 연구의 결과가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로서 뿐 아니라 건축가로서 자기의 주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왜 이 건축가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역시 건축주가 이 프로젝트를 현상설계를 내어걸 때의 목적이 이런 생각의 건축을 원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건축주가 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에는 심사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다. 심사는 두단계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기술적인 검토라는 형으로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심사위원의 보조자들이 제시되어 있는 요구사항과 제출된 안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맞추어져 있느냐하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구박물관 현상에서도 국내의 중견 건축가들로 구성된 기술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요구된 만족 기능의 올바른 해결도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각 안마다 첨가하여 최종토의를 하게 될 심사위원들에게 첨부시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두번째 심사는 심사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검토시 1차기술심사들의 안을 참조하게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검토, 심사해야 되는 심사위원들의 후시 놓칠 수도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능한 줄여보고자하는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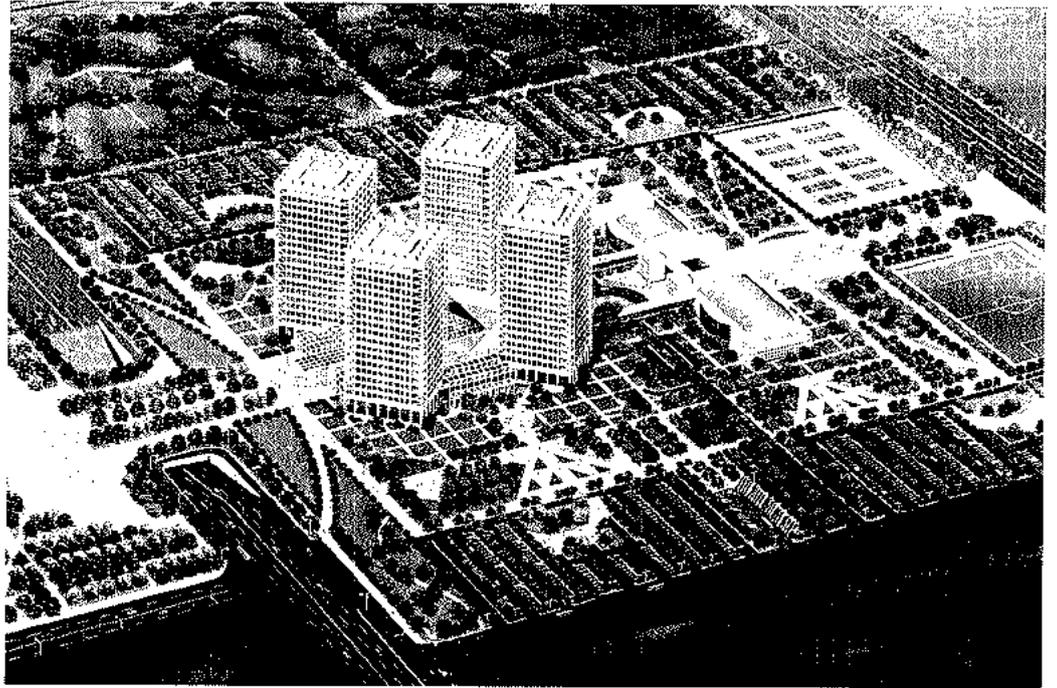
6. 결론

결론적으로 현상설계의 문제점도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 역시 찾아져서 현상설계의 국내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다만 우리 건축계가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시킬 의지가 확고히 있느냐가 문제다. 건축계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가 부정적으로 행하려고 하더라도 본체가 되지 않는다. 건축계의 확고한 의지는 역시 3단계로 나누어져,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건축계가 3단체의 협조에 의해서든 한단체로 재결합해서든 간에 하나의 목소리로 건축계의 의사가 분명하게 집중표현될 수만 있다면 현상설계의 문제점만 아니라 건축계의 사회적인 위상에 관한 잡다한 문제도 아울러 해결되리라 믿는다. 1992년은 우리건축계가 한목소리로 자체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둔산 정부제3청사

삼우종합건축(김창수)안

대지위치 : 대전시 둔산지구 내
 대지면적 : 약 526,000㎡
 건축면적 : 약 22,000㎡
 연면적 : 약 190,000㎡
 건물규모 : 지상 20층×4棟, 지하 2층(거중부 3층 규모, 부속동)
 주차대수 : 약 2,000대
 주요장재 : 국산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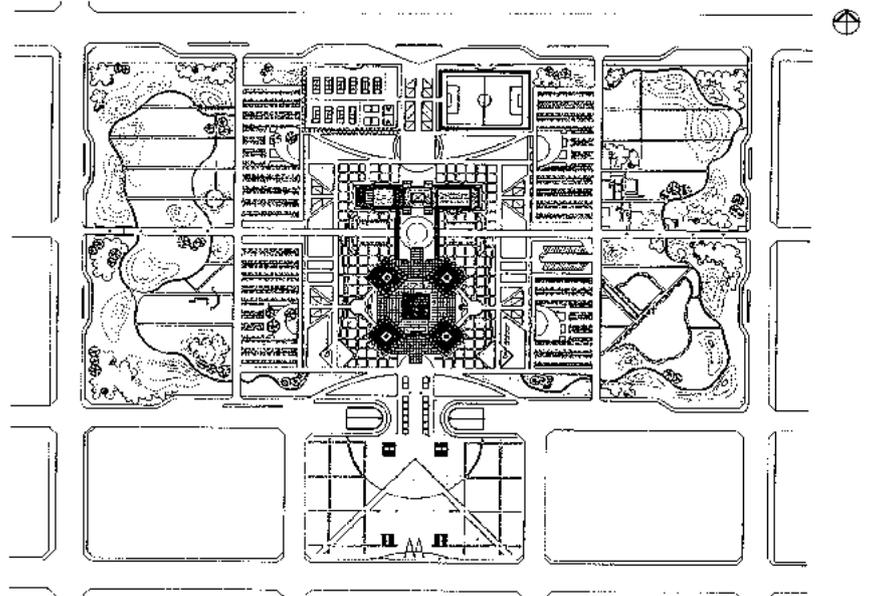
설계소요

계획 개념

- 21 세기를 향한 국제화, 지방화에 대응→지방도시의 활성화 유도
- 행정의 효율성, 대민 서비스 향상→청단위 집중으로 효율성 증대
- 균형적 국토발전의 선도적 역할→대전지역의 문화적 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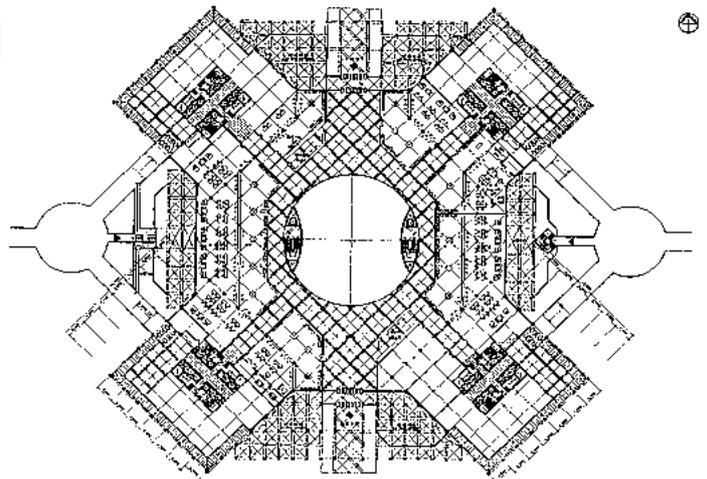
건축계획

- 12개 청사의 적절한 통합과 분리→동일 부처 기준으로 4개棟구성
-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적 관리→대민시설과 후생시설 저층에 집중 배치
- 지방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상징성 확보→고층화 처리
- 장래 증축에 대비한 충분한 유보지 확보→최소한의 대지면 사용
- 인텔리전트 빌딩 개념의 적극 도입
- 기존 도시체계와 부합되는 축의 설정.
- 진입부에서 우성이산으로 이어지는 시각축 확보.
- 구대전 도심과 유성으로 이어지는 상징적 도시축 활용.
- 각 방향에서의 정면성 고려.



단기계획종합도

- 기능적, 시각적으로 수공간-부공간-매개공간으로 구성.
- 방문객 및 보행자 중심의 주진입도로 배치.
- 개방된 중심공간을 중앙에 두고 업무동을 무산(적정규모) 배치.
- 접지성과 개방성이 강한 공간과 관리통계가 요구되는 공간으로 구분.
- 차량과 보행자공간의 교차를 배제시키는 배치.
- 특수기능공간(대강당, 다목적홀등)은 별동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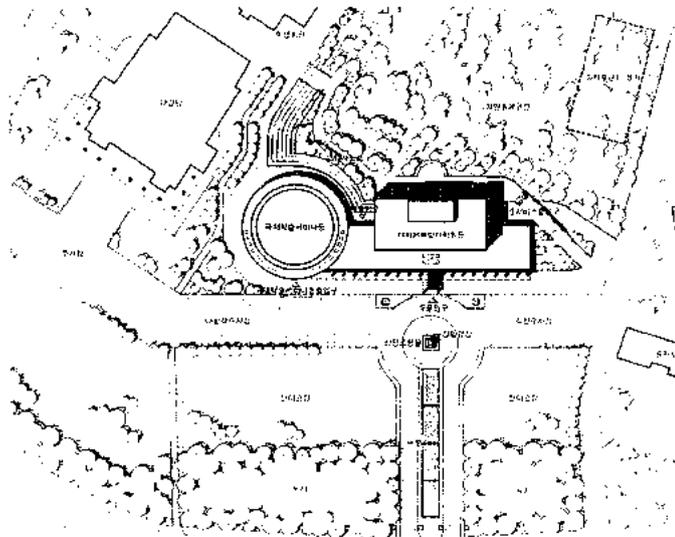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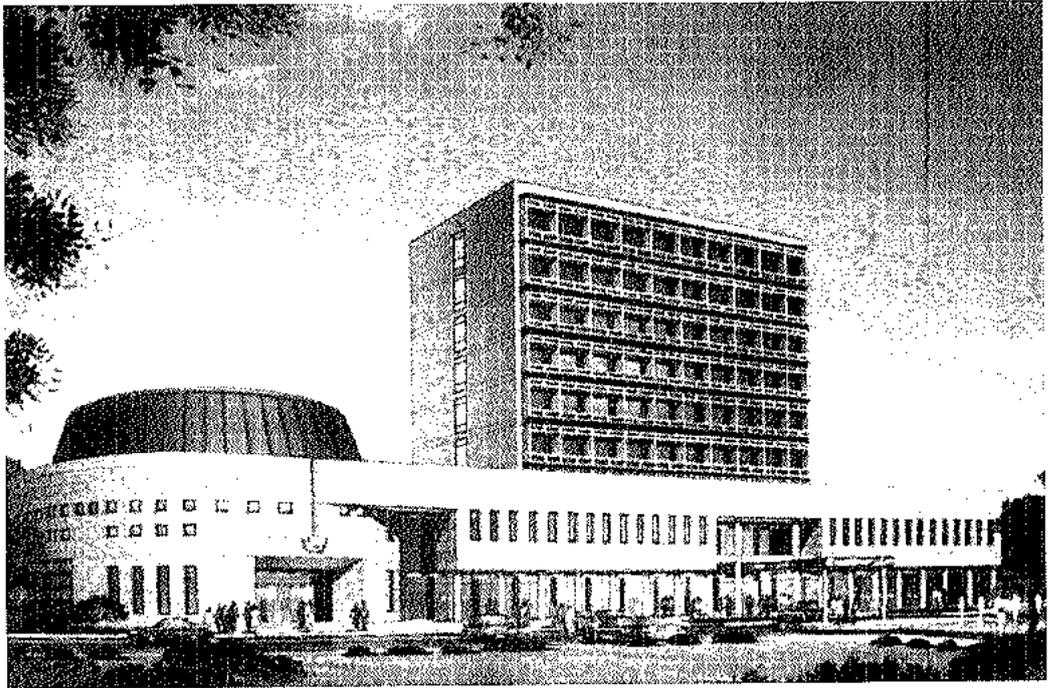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전남대학교 본관

단우모람 (최명철) 안

대지면적 : 11,400㎡
 건축면적 : 2,544.6㎡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 : 1,433㎡
 -국제 학술 세미나동 : 1,121.6㎡
 건축연면적 : 9,407.5㎡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 : 7,109㎡
 -국제 학술 세미나동 : 2,298.5㎡
 규 모 : 지하 1층, 지상 9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비너마감+화강석
 뿔청(에멀 그래니트)
 주차대수 : 53대



배치도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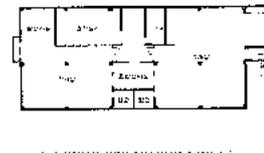
배치계획

대지는 접근성과 본관의 상징성 등으로 인해 남쪽의 강한 정면성이 요구되며, 정문과 후문을 잇는 중심도로변으로 공식적인 접근은 정문이지만, 신시가 지 개발로 후문쪽의 진입동선이 중요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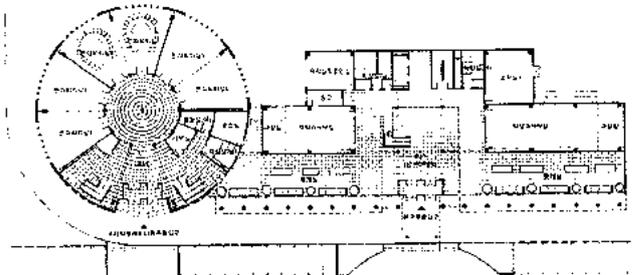
• 축 : 기존 건물과의 연계 및 지형에 따라서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주진입 방향을 고려하여 남쪽에 강한 정면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서의 기능적 축을 형성하고 남북의 시각적 축을 부여한다.

• 동선 : 중심도로의 산만한 보행동선을, 전면광장 및 회랑을 설치함으로써 저층부 전면에서 주흐름이 형성되도록 하고 후면의 녹지와 연계된 동선은 소극적인 동선처리로 전면의 활기찬 동선과 분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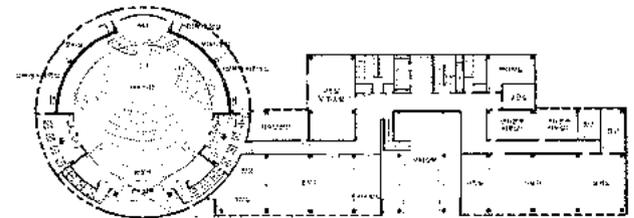
• 매스 : 기존 녹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등고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저층부를 배치하고, 강한 정면성을 갖는 고층부를 배치하여 본관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서측 대강당의 육중한 매스와 본관 고층부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원형의 국제학술세미나동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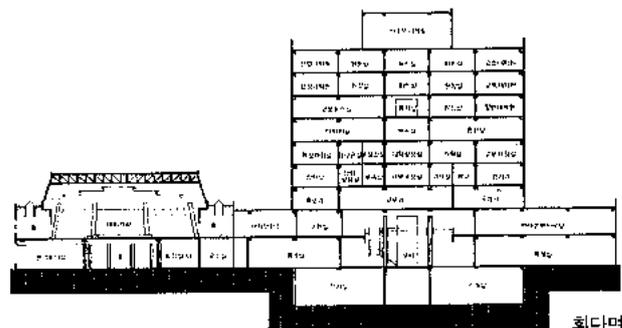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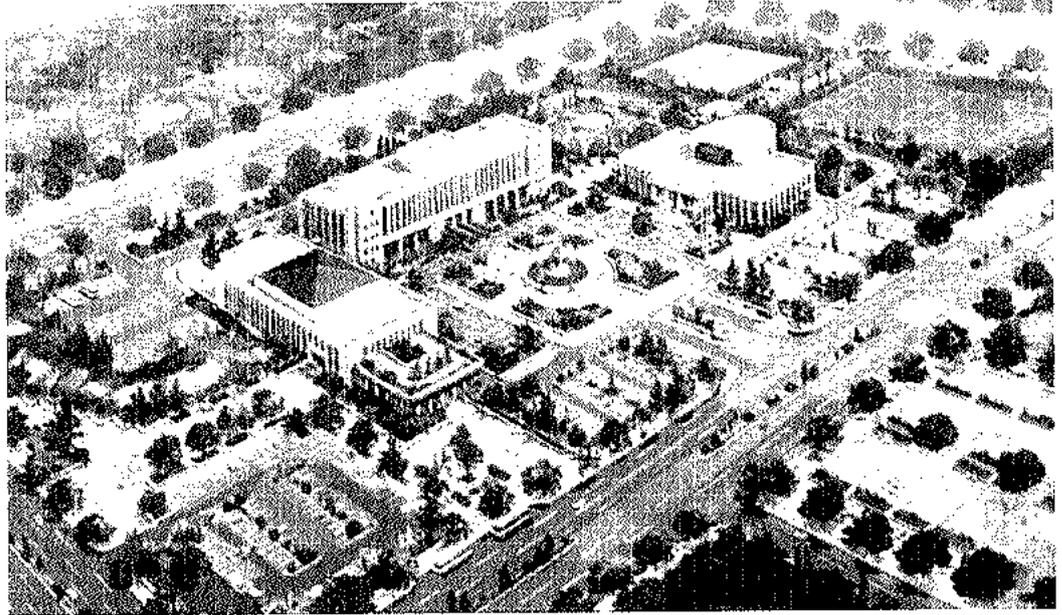


횡단면도

COMPUTATION

안양시청사

부림건축(김호+전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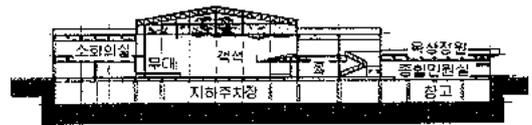


위 치: 안양시 평촌지구 내(관양동 12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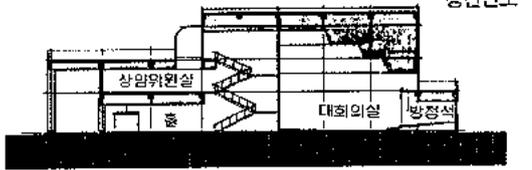
대지면적: 60,561㎡
 건축면적: 8,475.8㎡
 연 면 적: 26,867.4㎡
 건 폐 율: 14.0%
 용 적 륜: 34.43%
 주차대수: 377대
 조경면적: 1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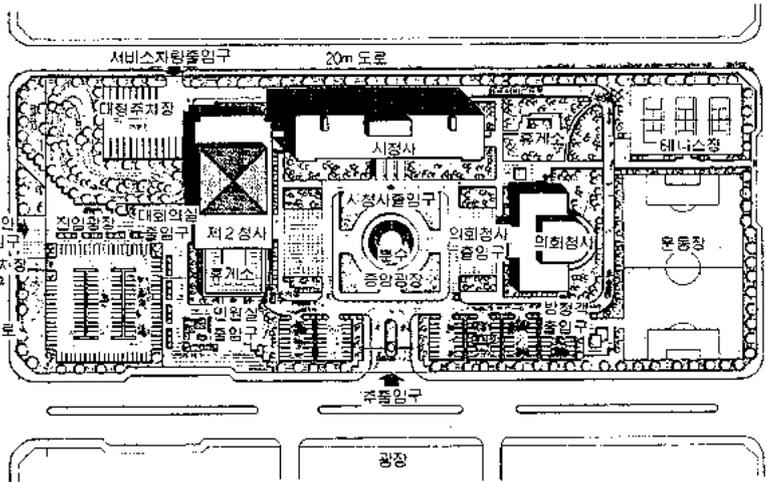
제2시청사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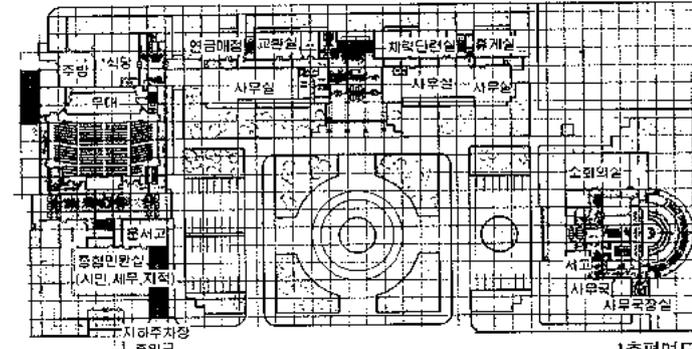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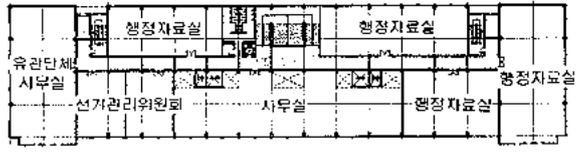
의회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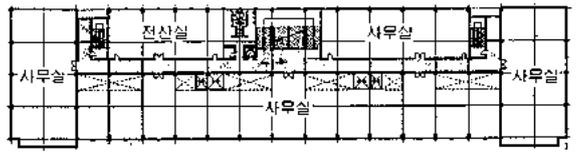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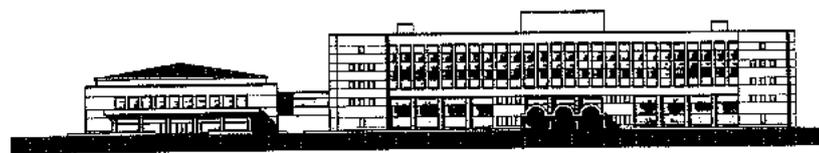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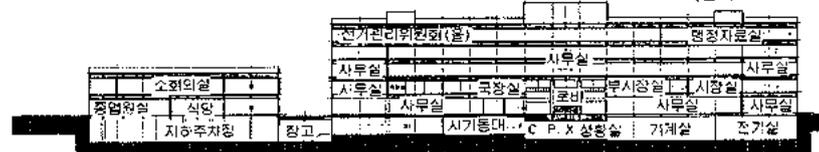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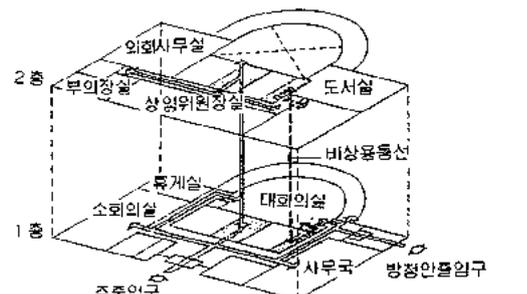
3층평면도



시청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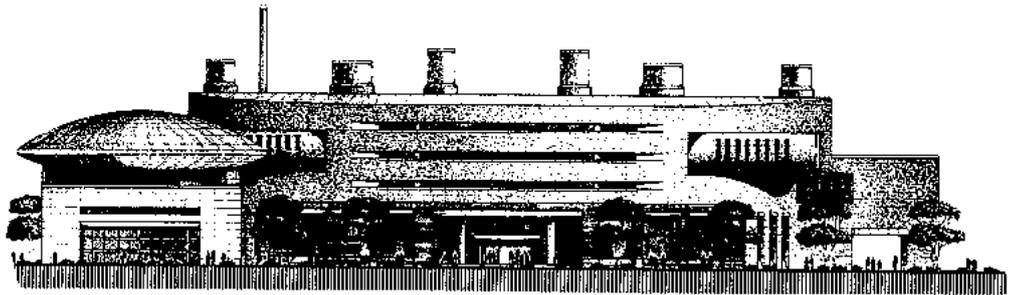
횡단면도



의회청사 기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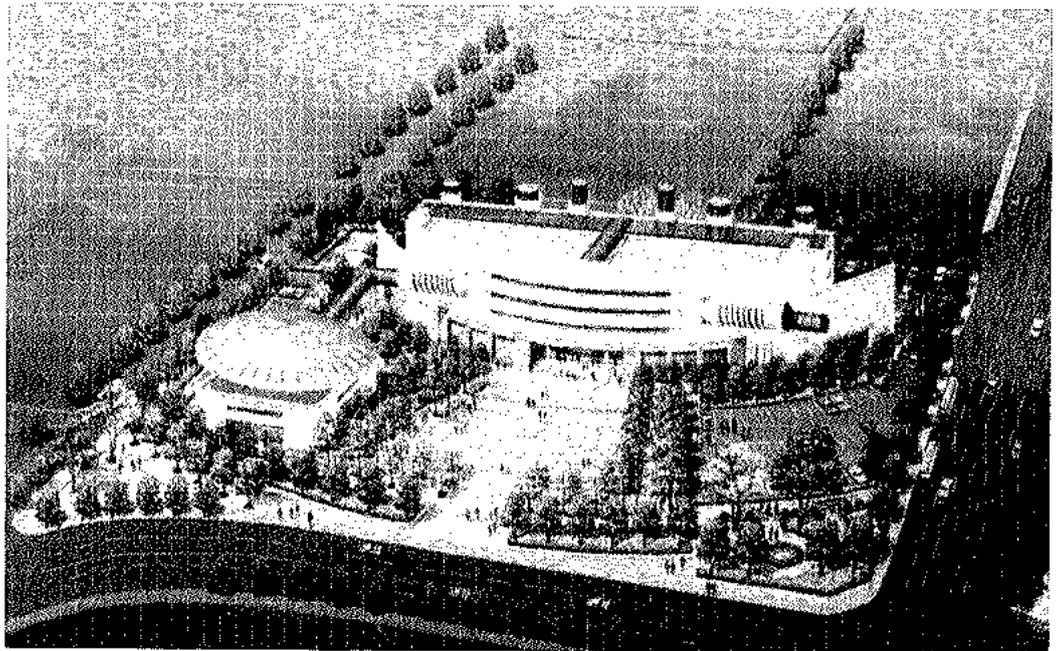
군산시청사

삼정건축(김기웅)안



정면도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토지구획 정리지구 42
블럭
대지면적 : 약 21,157㎡
건축면적 : 3,334㎡
연 면 적 : 13,716㎡
건 폐 율 : 15.75%
용 적 륜 : 83.49%
규 모 : 행정동/지하 1층, 지상
5층, 의회동/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의 장 재 : 화강석 비머=이+붉은
벽돌 치장쌓기, 관라복
층유리
주차대수 : 148대



■ 설계요요

꼭 40년 전 1.4후퇴 때에 이 군산에서 몇 달 살면서 생굴을 따먹고 뱀어를 씹던 기억이 선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이 도시가 이제는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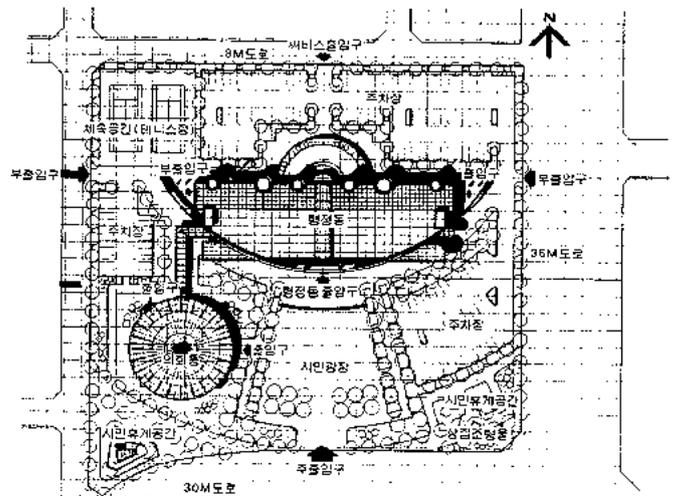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조촌동은 옛날의 조촌면이 시에 편입되면서 달라진 이름인데, 지금은 시청사가 새로이 들어서기 위하여 구획정리 공사가 한창이다.

군산은 일제시대에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내기 위하여 개발한 항구라서 일본인들이 도시를 계획했고, 또 일본식 '오카베' 집들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단층 일본집이 도시를 채우고 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는 일부를 개조하거나 개축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참고등은 벽돌벽으로 지어져서 도시의 인상에 깊은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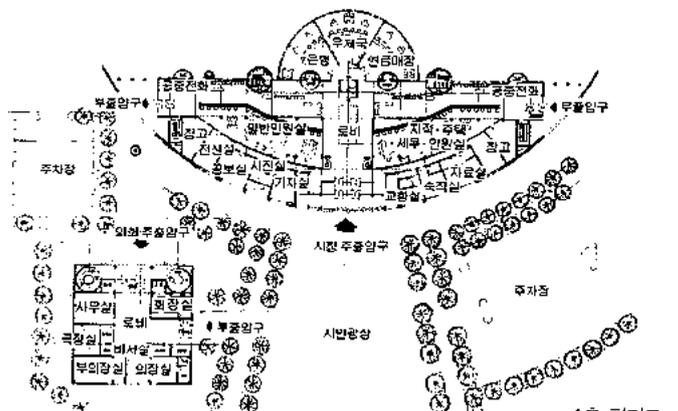
주고 있다.

군산시청사가 다른 항구도시의 시청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최근 지어졌던 여타도시의 시청사와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

지방화(민주화)시대에서 시청은 더이상 고압적이고 수탈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민에게 실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베풀며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이 좋은 전시회를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결혼식·환갑잔치 등의 모임을 열 수 있게 하며, 더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민원을 해결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시민들의 장소를 시청이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센터"라는 컨셉을 만들어 의회와 집회시설 그리고 시민편의시설을 묶어서 수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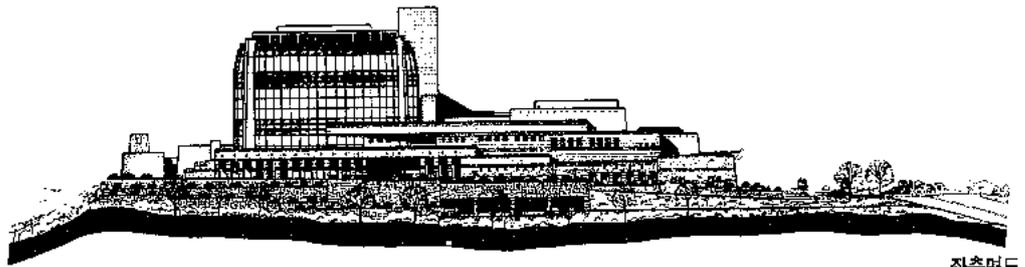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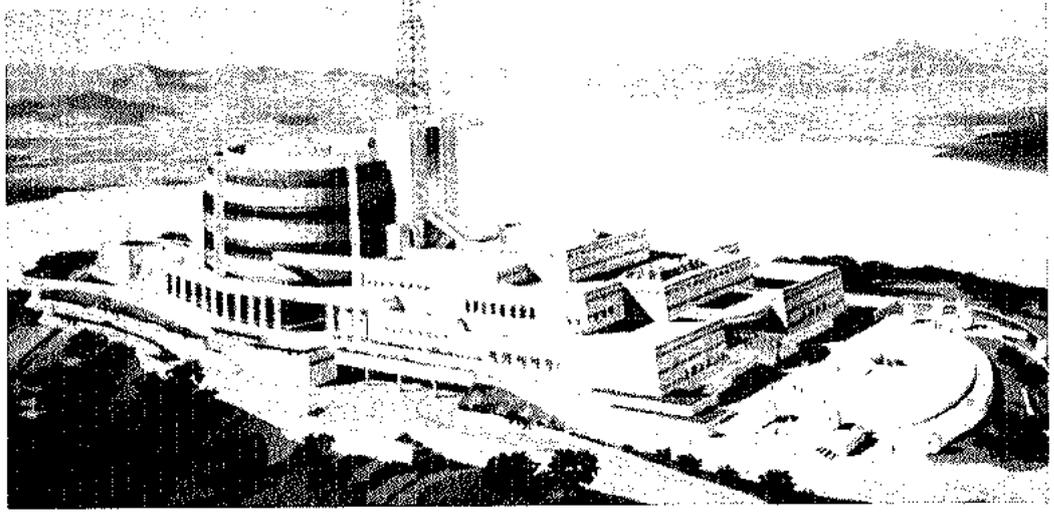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통일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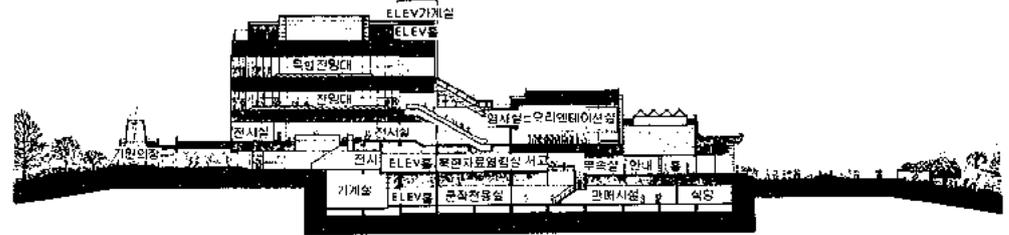
진원건축(김영웅)안

위 치 : 경기도 탄현면 성동리 산 88번지
 대지면적 : 약 21,488㎡
 연 면 적 : 6,750㎡
 용 적 륜 : 약 31%
 건 폐 율 : 약 10%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외장재료 : 기단부분/화강석·현무암
 옥외기 및 버너마감
 전망대부분/투게 24mm
 반사 및 컬러복층 유리

주차대수 : 192대
 녹지면적 : 9,290㎡



외측면도



형단면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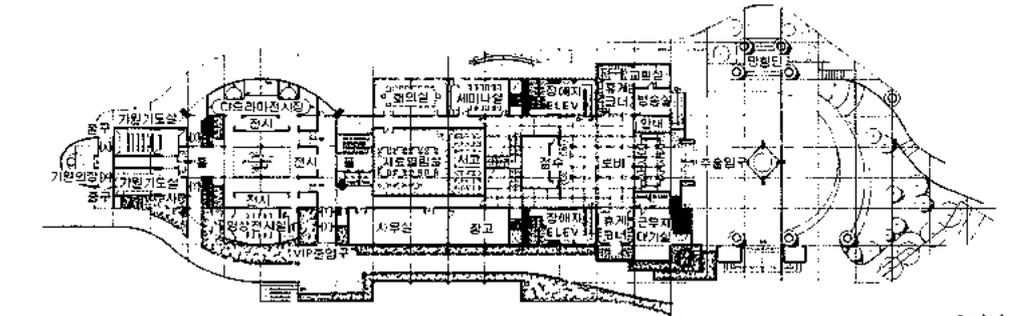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의 대지는 임진강과 접한 오두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북으로는 북측 선전마을과 김일성기념관이 보이고, 남으로는 여의도까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진 대지이다.

본 안의 계획에 있어 주안점은, 우선 경사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시키고 조형상에 있어 기단부 개념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성곽의 이미지를 살렸다.

배치개념에 있어 기존시형에 순응하는 중심축과 통일을 향한 개념적 선형축을 설정함으로써 축선에 따라 점진적 상승감을 주고 단부에 통일기원의 장을 배치하였다.

외부 동선계획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관람자, V.I.P, 관리자, 규관계자 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밀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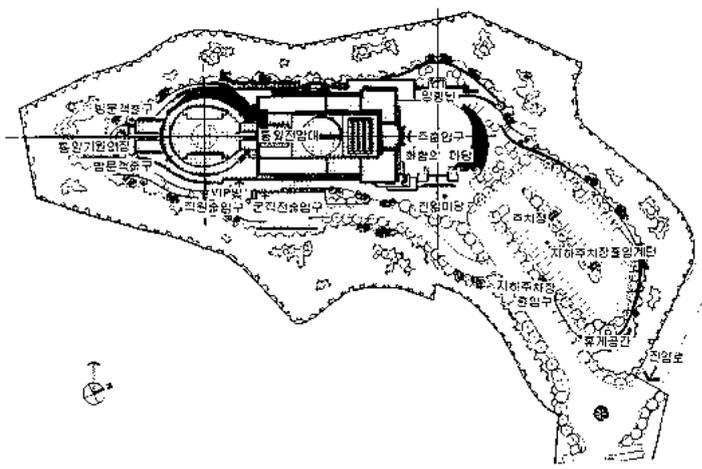
평면계획은 관람내용의 전개에 따라 각 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고 북측 주전방 방향의



1층평면도

시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배려하였다.

입면에 있어서는, 통일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하여 진입에 따라 상승감을 부여하였고, 타원형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통일외지의 점진적 상승을 시각화하였다. 아울러 노단식 정원에 봉화대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살리면서 전통적 느낌과 통일염원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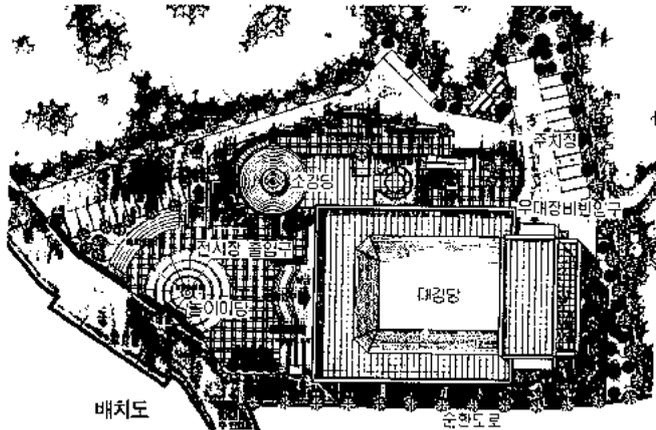
춘향문화예술회관

청건축(김중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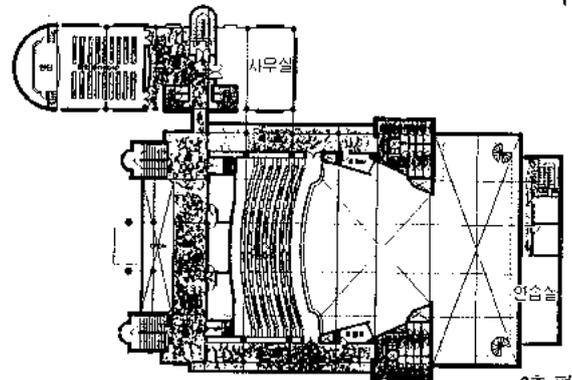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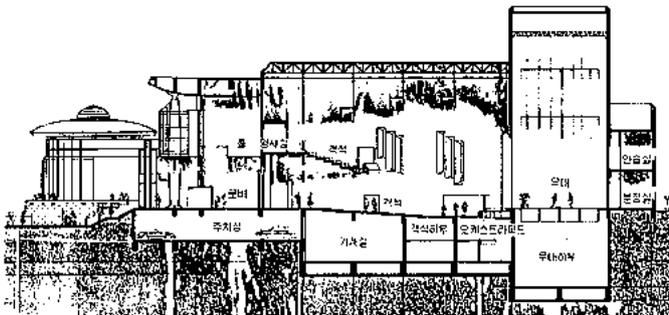
위 치 : 선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37-143
 대지면적 : 6,281㎡
 건축면적 : 1,746.25㎡
 연 면 적 : 3,433.11㎡
 건 폐 율 : 27.8%
 용 적 륜 : 42.7%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차대수 : 38대(법정 27대)
 조경면적 : 25.40%
 외부마감 : 화강석비너구이, 빈색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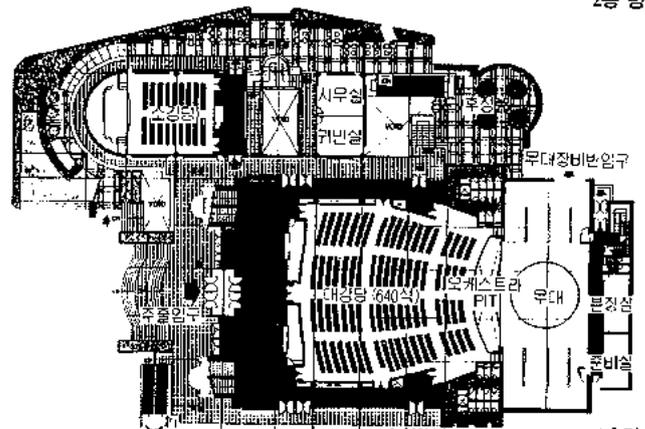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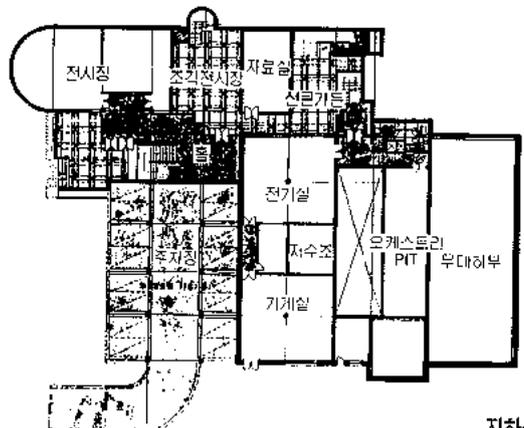
배치계획

기능의 전용성과 서비스 관계 기능을 통합하여 유지기능 군집을 상호연계시키고 원활한 기능체계를 구축했다. 진입공간과 놀이마당에서 건물군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진입감 고조와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놀이마당은 화합의 장으로 시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장소로 계획했다. 놀이마당에서

후정으로 연결되는 도중에 야전 전시장을 두어 두 공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평면계획

지하층은 전시관-선관가든-후정으로 연결되는 문화·휴식공간과 로비 및 소강당으로의 연결로가 된다. 대강당과 소강당은 동선의 분리와 대지레벨을 이용하여 차이를 두었으며, 일반인 동선과 출연자 동선을 분리, 무대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 평면도

동해시 종합문예회관

(주)대건사건축(곽은영)안

위 치 : 동해시 천곡동 신시가지
내 809-12 일대
 대지면적 : 13,905㎡
 건축면적 : 3,211.43㎡
 연 면 적 : 5,247.44㎡
 건 폐 율 : 23.09%
 용 적 륜 : 34.34%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트리스
 외 장 재 : 화장석비너규이, 석재타일, 16mm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 5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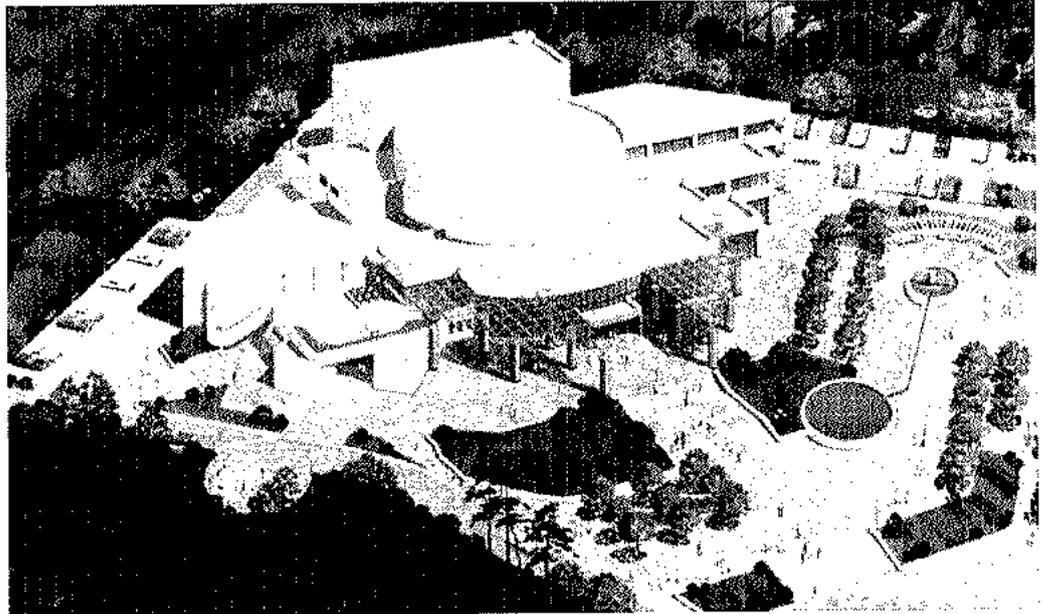
■ 설계요요

배치계획

— 기본구상

대지의 분석에 따른 동선체계, 주위환경여건, 시각적요소, 매개공간의 확보 등 배치의 기본요소에 따라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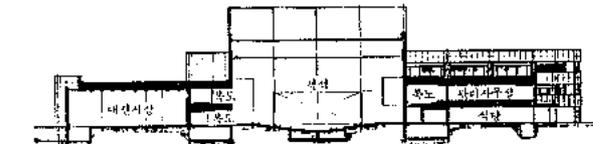
- 효율적인 진입처리
- 환경 및 주변시설과의 적응성을 고려
- 동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리
- 휴식 및 활동을 위한 충분한 Open Space 제공
- 인지도 및 정면성을 고려
- 각 건물 내·외부 공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한 원활한 Activity
- 토지이용 및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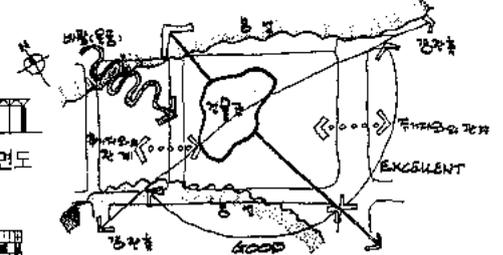
투시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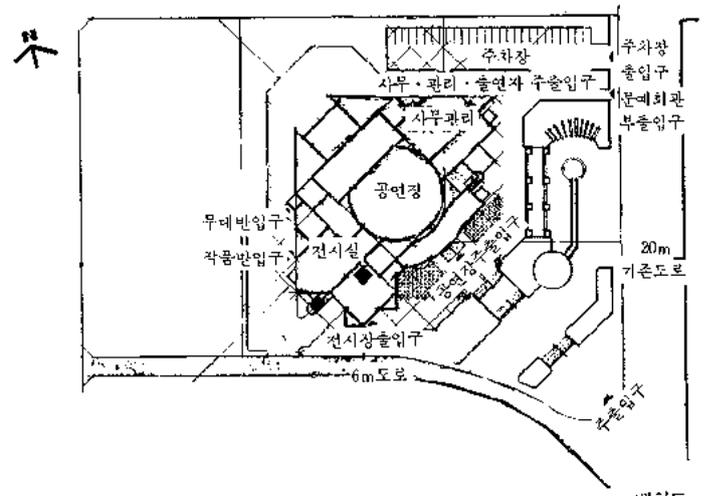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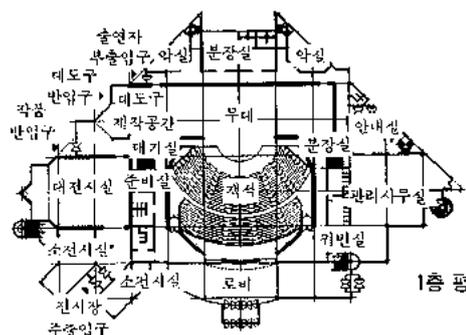


대지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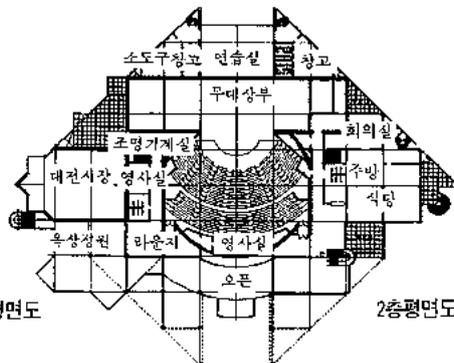
— 축의 설정과 건물배치계획
 지형 및 경관축으로 형성된 강한 45°의 진입축을 중심으로 진입광장을 두었으며, 정면의 공연시설과 좌우측에 각각 진시시설, 사무관리시설군을 배치하였다. 20m 도로에 연하여 관람객용 주차장과 직원·출연자 전용주차장과 6m 계획도로 쪽으로 작품 및 도구 서비스차량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뒷산과 연계된 뒷산과 연계된 뒷마당은 직원 및 출연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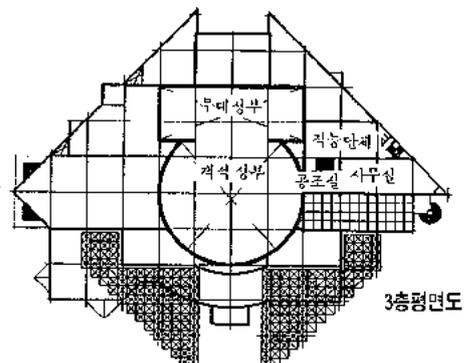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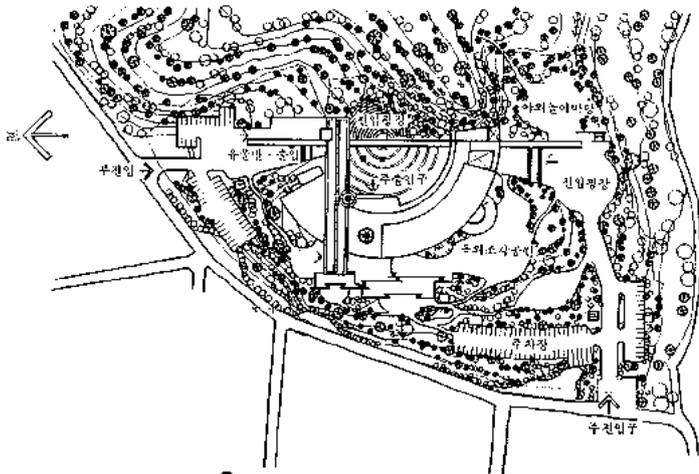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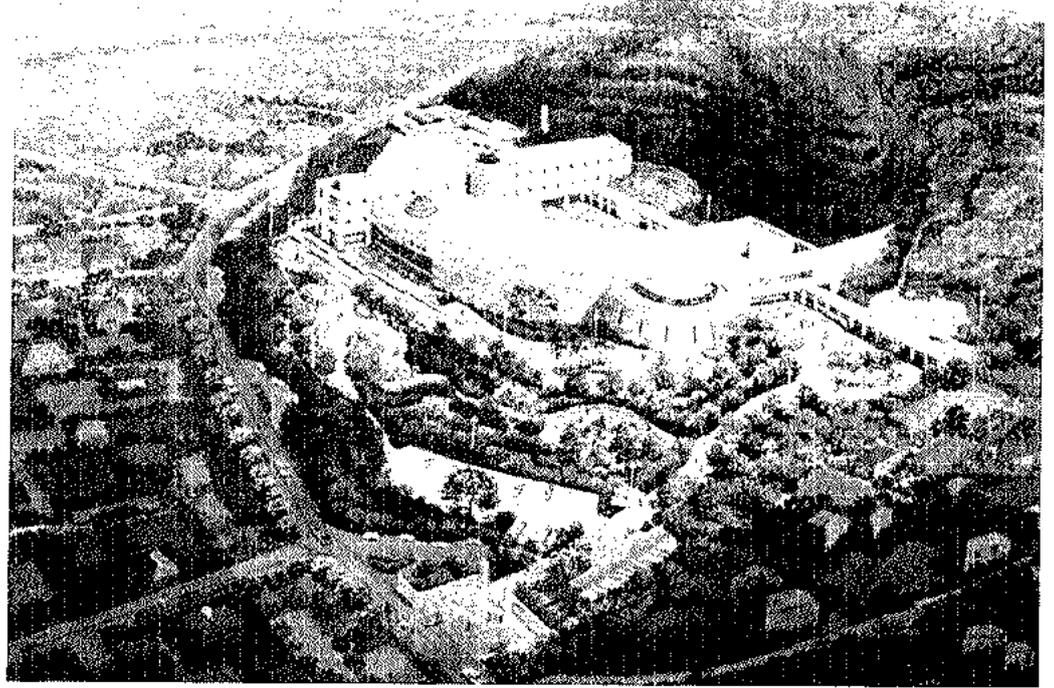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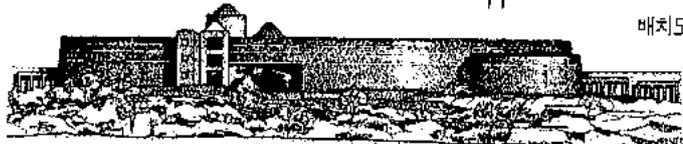
경기도립박물관

공간건축 (장세양) 안

위 치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대지면적 : 33,145m²
 건축연면적 : 9,100.8m²
 건축면적 : 4,138.8m²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 117대 (소형109, 대형8)
 주요마감재 : 외부 / 화강석, 막양기
 내부 / 인코브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시설 : 전시실 · 강당 · 수장고 ·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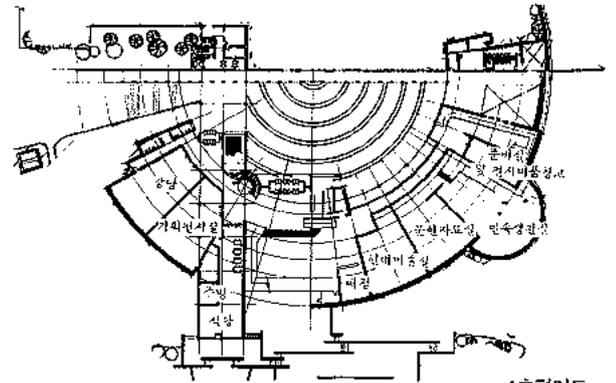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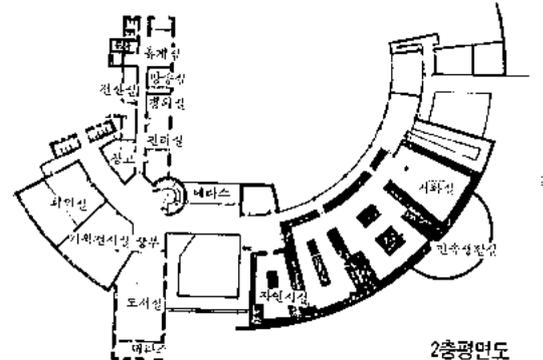
사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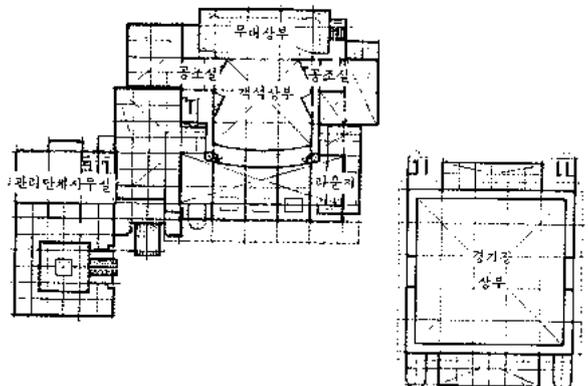
북측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 설계소묘

입면계획개념

- 정부 · 경제 · 사회 · 문화의 중심지로서 강한 상징성 부여
- 기전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 왕도문화의 이미지 추상화
- 도민의 애항심 고취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

평면계획개념

- 연속된 전시실이 한쪽 복도

에 의해서 각 실을 배치

- 필요시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폐쇄가능
- 전시공간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연속적인 흐름에서 방향 · 거리 · 시간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단면계획개념

- 지형의 언장과 순응하는 단면
- 공간의 리듬감 강조
- 자연광의 적극도입

서울시설관리공단

범한건축(최광수)안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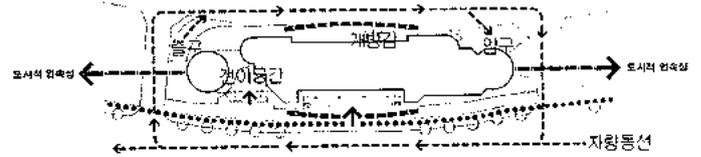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계획부지의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중점적인 선결과제였다. 청계천에 접해있는 계획부지는 지반이 약한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확보가 무작설했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지하에 2개 층의 자주식 주차만을 두고, 램프를 이용한 원통형 주차공간의 Highparking(기계식 주차)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해결하였다.

관리공단의 사업취체에 부합되는 공간 사옥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로면의 랜드마크로서의 형태감과 정면성 및 조형성에 중점을 두었고, 평면구성은 경제적인 구조공법의 범위내에서 무주공간을 이용한 모놀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융통성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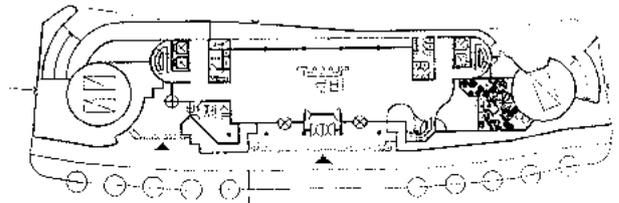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내부동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임대 및 공용부분 코어와 관리공단 전용코어를 구분하여 배치함으로 임대층 동선과 관리공단층의 동선을 분리,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형성하였다. 11층에는 임대 거주자들의 안락한 휴식을 위한 하늘공원(휴게공간)을 두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였고, 지상 20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구성하여 휴식 및 모임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들의 공간활용에 부응하였다. 저층부에는 아트리움을 두어 인위적인 공간을 구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자 및 내방객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위 치: 서울 성동구 마장동 327
-6
지역·지구: 노선상업지역, 2종비
관지구
대지면적: 2,077.20㎡
건축면적: 1,038㎡
건 폐 율: 49.97%

용 적 륜: 730.12%
규 모: 지하 4층, 지상 20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화강석바니구이, 질리
알루미늄 복층유리
주차대수: 기계식/110대,
자주식/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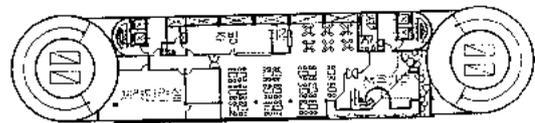
배치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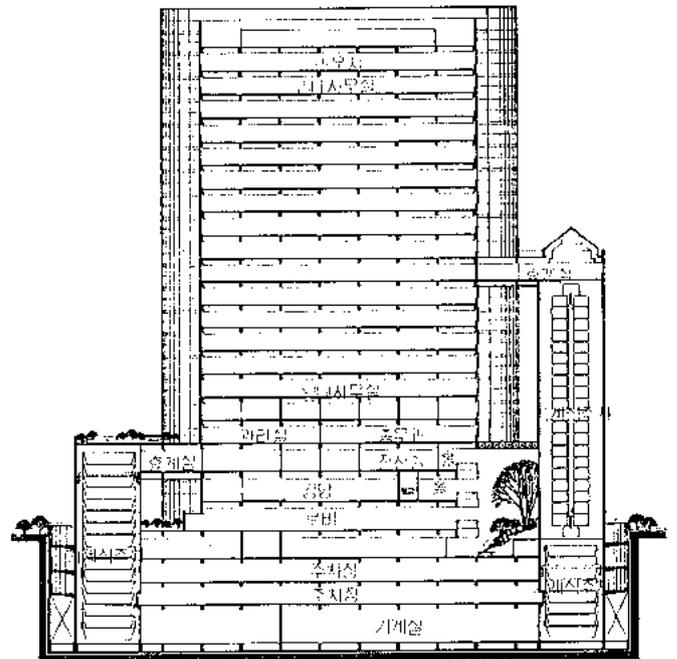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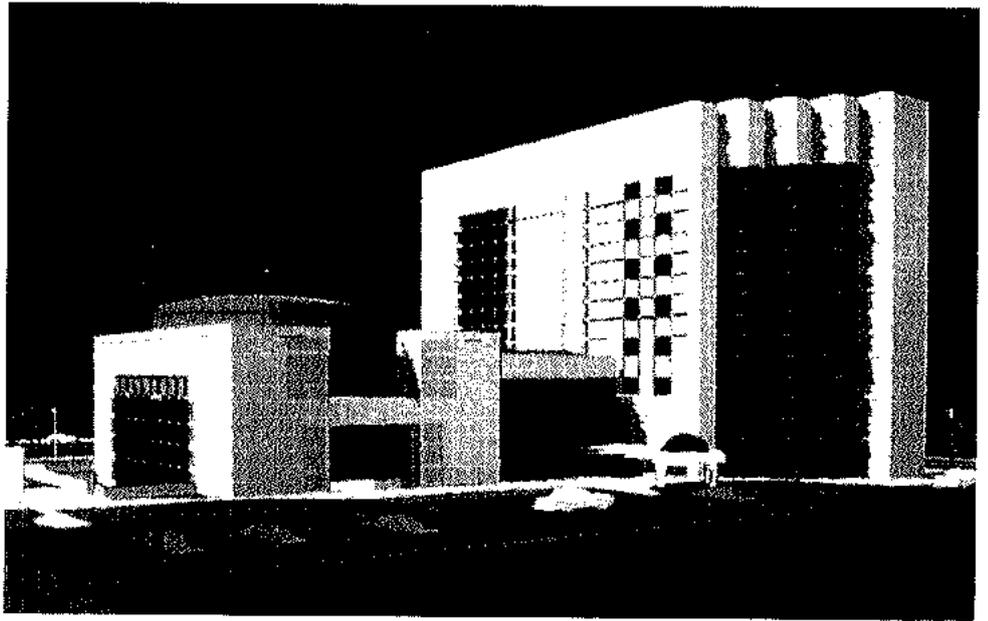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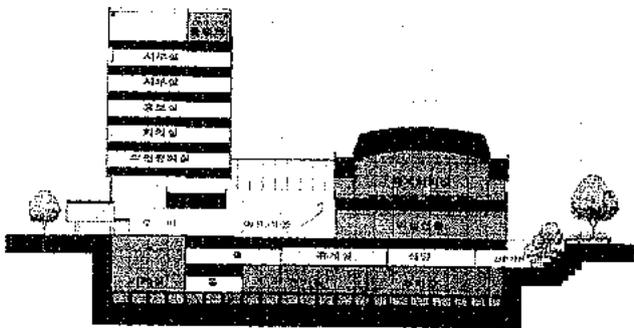
횡단면도

대전상공회의소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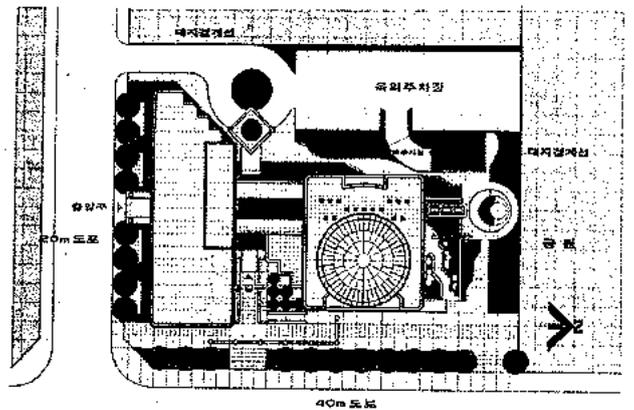
정림건축(김정철)안



지역·지구 : 업무·상업용지
 대지면적 : 6,611.57㎡
 건축면적 : 2,160.32㎡
 연면적 : 15,047.11㎡
 건폐율 : 32.67%
 용적률 : 134.47%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조
 주차대수 : 옥외 39대, 옥내 32대,
 계 121대



횡단면도



40m 도면

배치도

■ 설계소묘

신도시의 건축을 선도할 수 있는 상징적 배치와 더불어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공간을 체계적으로 설정했다. 주진입 방향에 중점, 아트리움을 두어 강한 흡입력을 부여하고 탄력성있는 주차장 확보마련에 주력하였다.

토지이용률이 적은 북서측부분에 주차공간을 두어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체계적 분리를 유도했다.

행사동과 사무동 사이에는 아트리움을 두어 중정과 연계하는 완충공간, 매개공간 그리고 다용도적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대전상의회관만이 가지는 장소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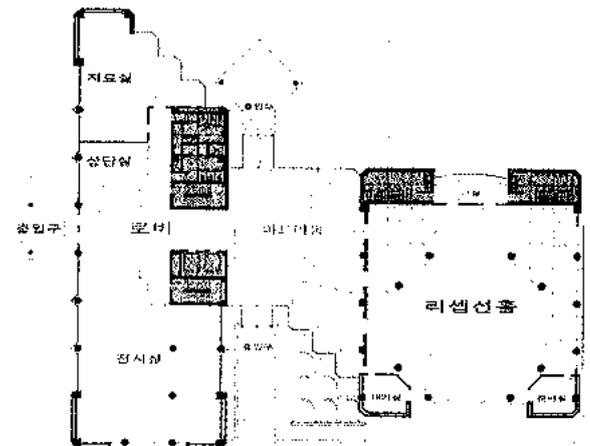
평면상의 기본개념은 크게 사무기능과 행사기능으로 분리하고, 대양열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사무기능은 남쪽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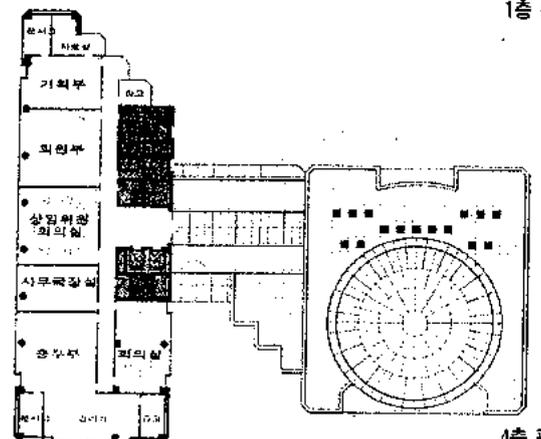
난면계획은 기본개념은 설비체계와 입면계획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와, 내외부의 공간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아트리움은 사무동과 행사동을 연결하는 곳이고 Major Space 천창으로 실내조경을 가능케 했으며 오픈계단과 연결 브리지를 두었다. 선근기둥은 자연환경의 유입과 통풍, 채광, 조망을 가능케 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사무동의 입면은 대칭적 구성으로 정면성을 확보하게 계획했으며, 모듈에 의한 그리드라인에는 면의 분할과 재통합,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행사동의 입면은 독립된 Massive한 조형으로 저층부를 강조했다. 그리고 대전 상공인의 당당함을 표현하는 아이덴티티가 부각되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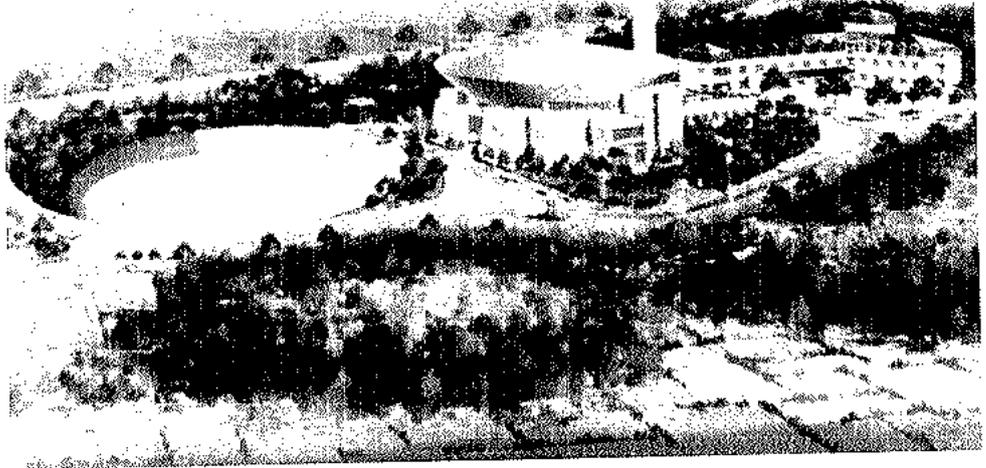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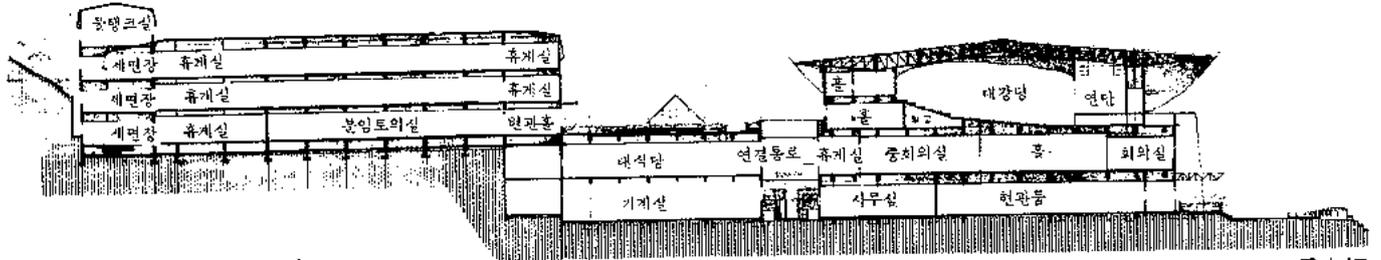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한국 청년회의소 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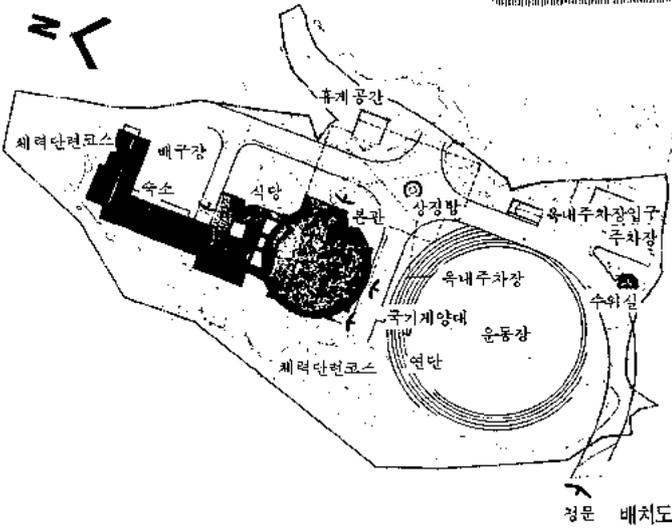
간건축(황건)+제이건축
(강희달)+해원건축(홍창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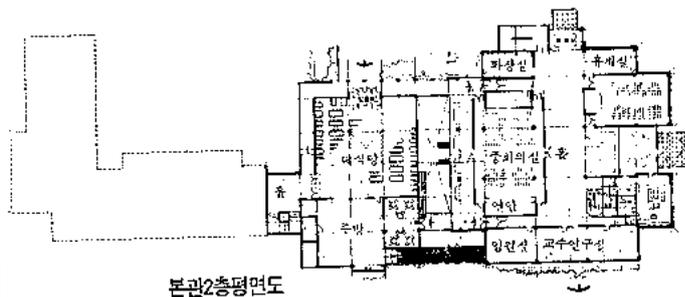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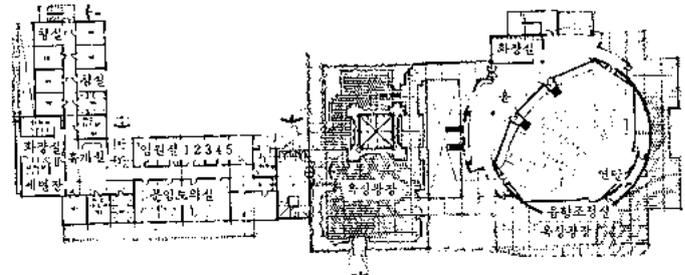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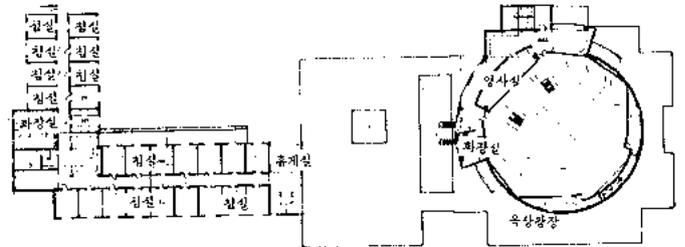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최신리 산19-1의 7필지
대지면적 : 26,678㎡
건 폐 율 : 8.44%
용 적 율 : 24.36%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 장 재 : 화강석 비너구이, 화강
석 불갈기
주차대수 : 옥외 38대, 옥내 77대



주단면도



정문 배치도



설계소묘

계획목적

차세대를 선도할 한국 청년회의소 청년들의 자기발전과 자아 성장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보다 좋은 조건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 청년회의소의 특성과 소명감을 부각시키며 효율적인 기능과 상징적인 건축미를 지닌 연수원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

- 기본방향은 집회·사무·숙식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처리되면 장래 증축이 유리한 평면을 구상하였다.
- 본관동 계획은 1층에 원관 및 사무실을 두어 사무직원의 출입구와 집회참여자의 출입을 분리하여 동선의 교차를 피했고 두 출입구 사이에는 로비를 두어 완충 공간으로 배려하였다.

부산은행 전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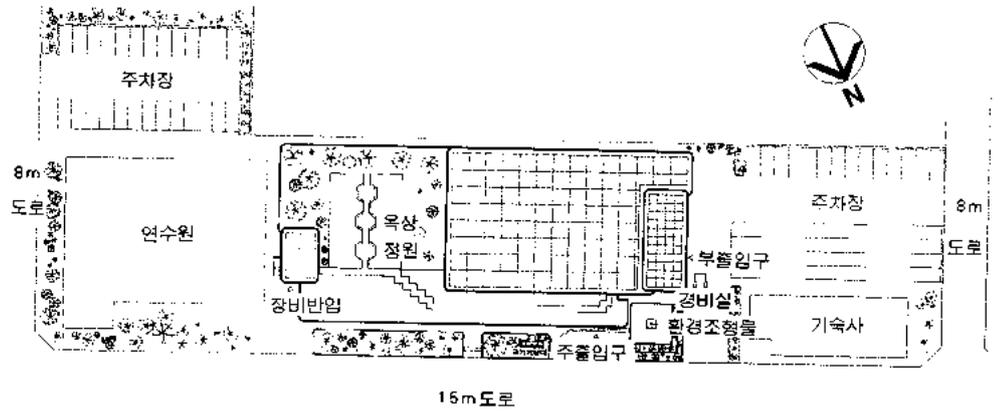
목전건축(이인수)안

위 치 : 부산직할시 동래구 안락동 234-1, 243-5
 지 역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4,095.6㎡
 건축면적 : 2,080.0㎡
 건 폐 율 : 50.79%
 용 적 륜 : 371.90%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미감 : 알루미늄 복층페널, 일선반사 복층유리
 규 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옥탑
 주차대수 : 옥외 55대, 옥내 8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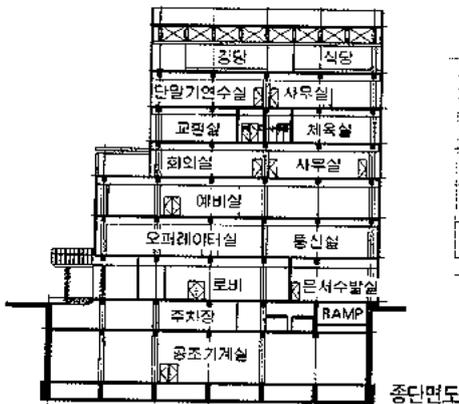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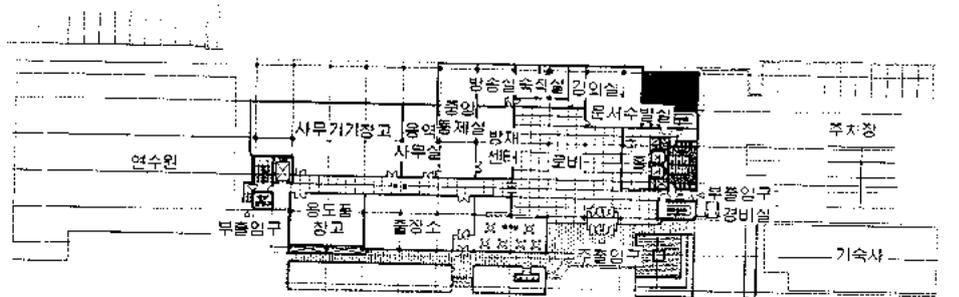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전산센터라는 특수성을 부여한 이미지를 부합시키면서 전산업무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쾌적한 근무환경, 내부구조의 편의성 및 경제성을 방계설계로 재해예방, 보안대책에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매스의 조화와 기능적인 배치로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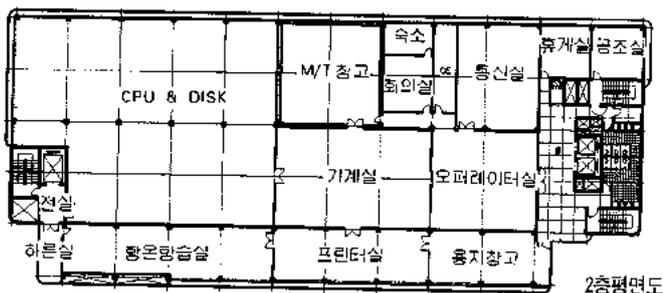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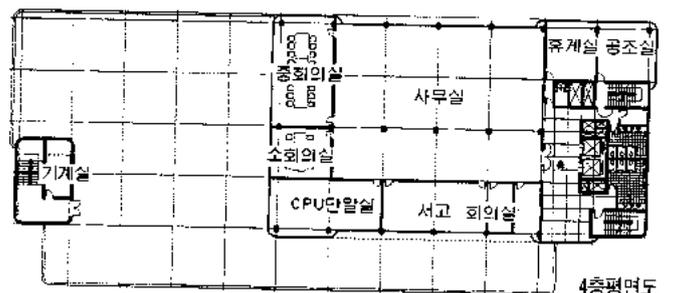
종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4층평면도

3대 동거형 공동주택

토문건축(최두호)안

설계소요

배치계획

1단지는 2단지와의 연계되는 배치로 대지형상에 순응하여 스카이라인이 변화로 리듬, 변화, 속도감을 주었다.

3단지는 외부공간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 피로티화하였으며 중심의 광장과 연결된 보행주공간으로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했다. 또한 마을개념의 배치로 주거동별 휴게공간, 녹지공간,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평면계획

I형, L, 부분절곡형으로 단지 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동 계획이 가능토록 했으며 연속된 공간흐름과 내부공간의 위요감 형성을 위한 주거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수납공간 확보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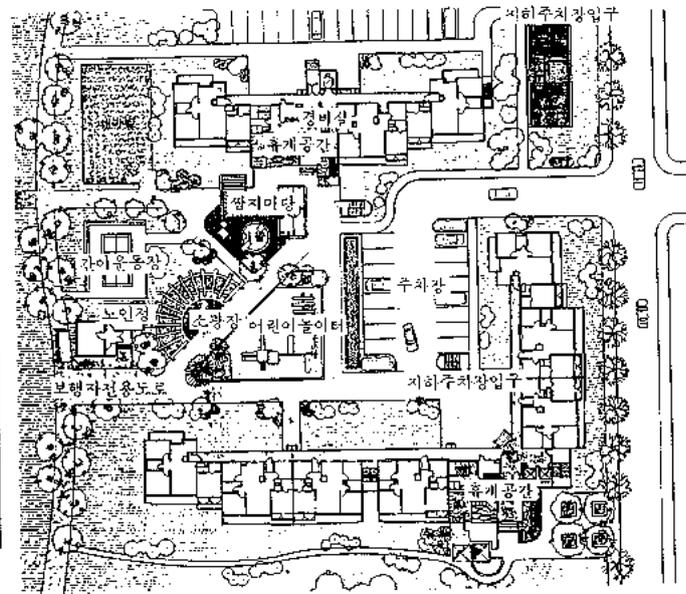


변성있는 내부구조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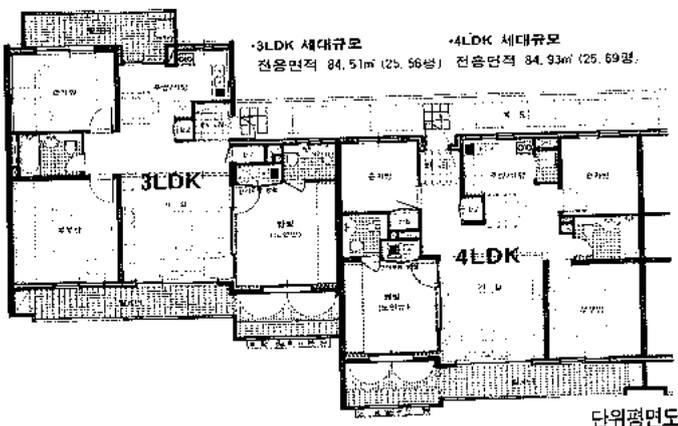
동선 및 부대시설계획

보차분리로 보행자 전용공간의 확장과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 외부공간의 흐름을 활성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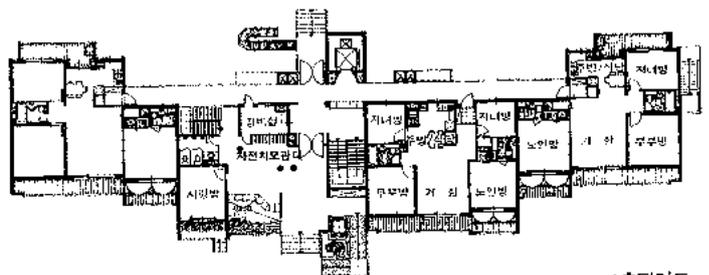
옥상층을 적극 활용하여 통나무로 된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를 인접배치함으로써 친화감을 유도했다. 또한 세탁장과 작업장, 독서실을 계획하여 동네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곳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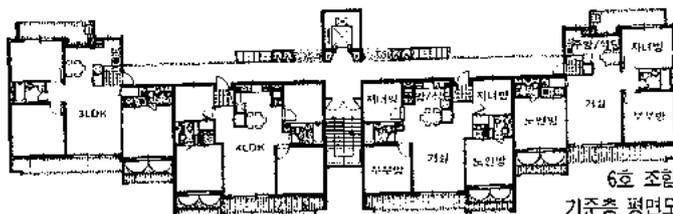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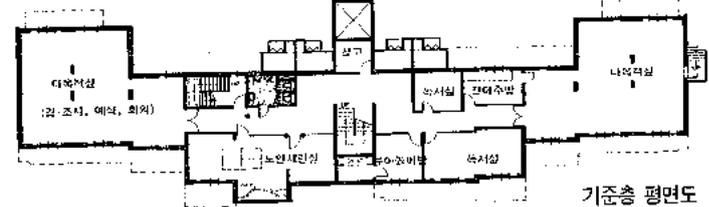
단위평면도



1층평면도



6호 조합
기준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건물의 바닥구조 설계

Beam and Slab Structural Design of A Building

REPORT

金容孚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Yong-Boo

건축가는 건물의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에 책임을 진다. 즉 그는 건물의 모양,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든 시설의 계획, 계단이나 승강기의 계획과 위치, 필요한 설비, 시설 등을 결정하며 내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그는 또한 후에 구조기술자의 자문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보와 기둥의 간격 및 위치를 결정한다. 건축가는, 아주 간단한 건물외는 구조설계에 책임이 있는 구조기술자에게, 그의 예비설계 도면을 넘겨서 건축의 구조를 처리하게 한다. 그런데 이 초기의 단계에서 구조의 강도를 검토하는 구조해석은 구조기술자에게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구조설계는 건축가와 구조기술자가 나같이 초기의 건축설계에 맞는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 구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조설계란 경험과 기술과 예술적 직관의 결과로 얻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는 그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붕괴에 대하여 안전(safe)해야 하며 사용(serviceable)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경제적이여야 한다. 안전은 구조의 강도(strength)가 구조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에 대해서 충분해야 함을 요구한다. 사용성(serviceability)은 부재의 처짐이 알맞게 작고, 만약 균열이 생기더라도 균열폭이 허용치 이내가 되며, 진동이 최소화되는 것을 요구한다.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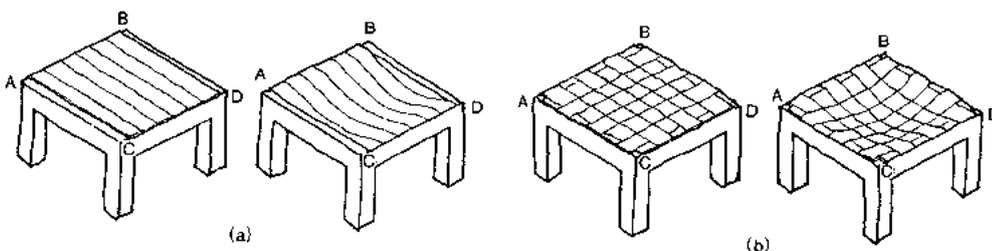
구조의 경제(economy)는 단순히 사용된 재료값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

시공경제(construction economy)는 복잡한 것인데 원자재, 구성(fabrication), 건립(erection),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시공 인건비와 에너지 소비비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시공속도와 금융비용 또한 인자가 된다. 설계는 사용재료 선택과 구조계획에 있어 여러가지 案이 있을 수 있는데 건설한 것같은 목적에 부응하며 건축적 고려(architectural or functional consideration), 설비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최상의 해결(best solution)로 설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구조설계의 예로 다음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문제에 대한 구조 설계안을 참고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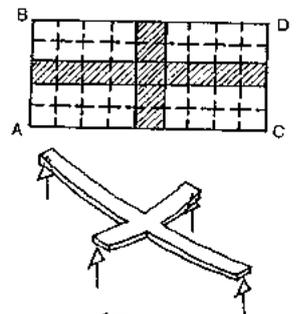
바닥구조(Beam and Slab construction)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은,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방향으로 전달하거나 2방향으로 전달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2변 AB와 CD에만 천따를 고정된 의자 (a)에 앉으면 사람의 무게는 띠를 따라 가장자리에 전달된다. 이러한 것이 -방향 슬래브에 비교될 수 있다. 다음에 (b)의 그림에서와 같이 천따를 변 AC와 BD에도 고정한다.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하중은 2방향의 띠(하나는 AB에서 CD에, 다른 하나는 AC에서 BD에 걸친 것)에 의해 반씩 분담되어 전달된다. 이것은 2방향 슬래브에 비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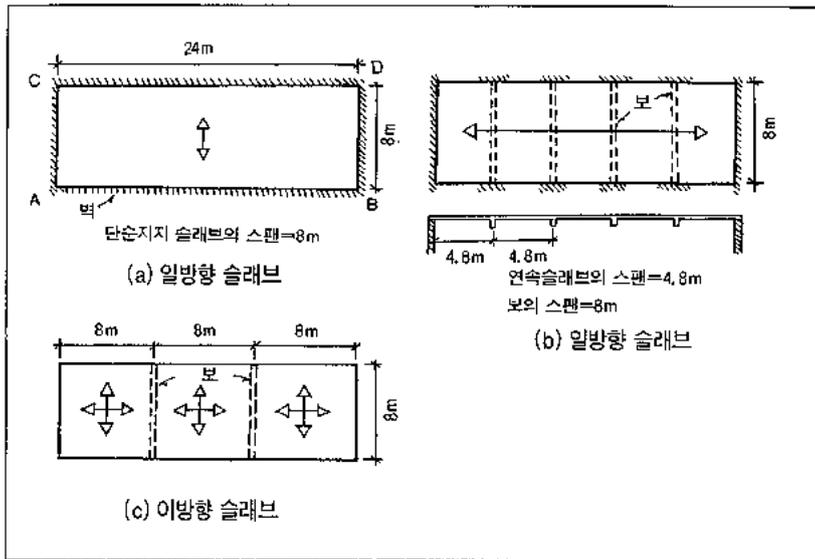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있어 2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은 이 2방향의 천따와 같은 일을 한다. 2방향 슬래브는 전체하중의 일부로 응력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값이 -방향 슬래브때보다 작다. 등분포하중의 경우 응력은 하중에 비례한다. 슬래브가 정방형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形狀인 경우에는 2방향 슬래브가 된다. 슬래브가 장방형 形狀인 경우에는 전체하중이 2등분되어 전달되지 않고 짧은 스펠 쪽에 많은 하중이 전달된다. 예를 들면 (그림 2)에서 변 BD의 길이가 변 AB의 길이의 두배라면 단위 면적당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은 단변에 약 16/17(94%), 장변에 약 1/17(6%)씩 전달된다. 그 이유는 양 방향에서 다같이 가운데 띠를 꼬집어 내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는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방향의 처짐은 중앙에서 같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구조 평면도(8"×24")

짧은 부재는 긴 부재에 비해 같은 크기의 처짐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딱딱하기 때문에 더 큰 하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변 부재는 전체하중의 대부분을 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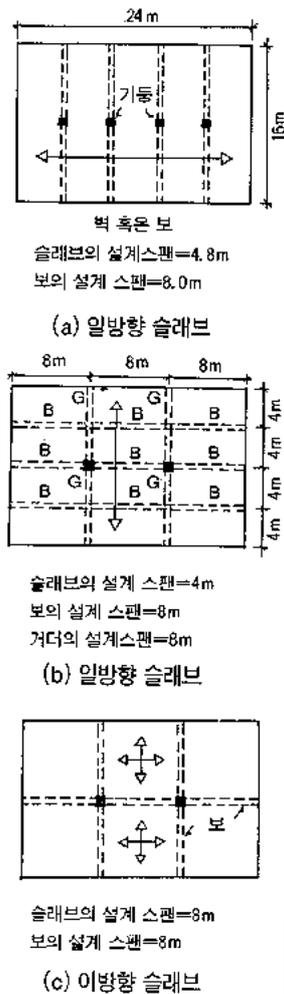
휨재(슬래브, 보 등)에는 처짐이 생긴다. 처짐은 스패んに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등분포하중의 경우, 하중에는 비례하고 스패ん 길이의 4제곱에 비례한다. 하중의 분할은 슬래브의 변장비가 2:1인 경우 처짐의 비는 2:1, 즉 16:1이 된다. 전체하중(17)중 짧은쪽은 16/17, 긴쪽은 1/17씩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표 1)은 여러가지 변장비에 대한 하중의 분할(%)를 참고로 계산한 것이다. 변장비가 1.5만 되어도 짧은쪽 방향으로 전체하중의 84%가 전달되므로 거의 일방향 슬래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의 처짐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은 구조설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어떤 하중하에서 보의 설계란 응력도의 크기와 보의 처짐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것은 안전해야 하고 허용치 이내가 되어야 한다. 보의 처짐으로 일반적인 허용치는 전체하중(고정하중+적재하중)에 대해서는 $L/240$ 이고 적재하중에 대해서는 $L/360$ 정도이다. 스패ん(L)이 8m인 경우 $L/240$ 은 약 3.3cm이고 $L/360$ 은 약 2.2cm이다. 과도한 처짐은 보에 부착된 비구조재료에 균열을 생기게 하고 바닥 구조처짐에 의해 개구부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게 되며, 바닥이 만곡이 되어 건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더 중요한

(표 1) 두방향 슬래브에서의 하중의 분할(%)

변장비	분할*	변장비	분할
1.0	50 : 50	1.6	87 : 13
1.1	59 : 41	1.7	89 : 11
1.2	67 : 33	1.8	91 : 9
1.3	74 : 26	1.9	93 : 7
1.4	79 : 21	2.0	94 : 6
1.5	84 : 16	2.1	95 : 5

* 단변방향 전달하중 : 장변방향 전달하중



(그림 4) 구조 평면도(16"×24")

것은 평지붕의 경우 물이 괴어서(ponding) 결과적으로 바닥의 파괴(dishlike collapse)가 생길 수도 있다. 처짐은 전체하중 중 고정하중의 비중이 클 때에 특히 위험하다. 예로 철근 콘크리트 보는 크리프 때문에 장기간 후에 보르 사이에 처짐이 커져서 충분히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거운 벽체나 지붕을 지탱해야 할 보에서는 처짐조정 설계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어떠한 구조이든 경제성은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일 수 있다. 경제성은 적절한 구조부재의 배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주 간단한 예로서 24m×8m크기의 평지붕 구조설계를 생각한다.(그림 3 참조) 우선 지붕을 벽 AB와 CD사이에 스패ん 8m의 단순지지 일방향 슬래브로 설계한다면 스패ん이 커서 슬래브의 두께는 아주 두꺼워진다.(약 24~26cm 정도)(그림a). 대안 설계로 (b)그림과 같이 철골보 혹은 철근콘크리트보를 넣으면 슬래브의 스패ん은 4.8m가 되고 (a)와는 다른 방향의 하중전달 연속 일방향 슬래브가 되어 응력이 (a)의 경우에 비해 많이 작아지므로 경제적이다. 그것은 등분포하중의 경우 휨모멘트는 스패ん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8^2 : 4.8^2 = 2.8 : 1$ 에 관련되고 연속보의 경우 모멘트 계수는 단순지지보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다. (b)와 같은 설계의 경우 (a)의 경우보다 슬래브 두께가 얇아지며(약 13cm 정도) 보의 수는 증가되고 있지만 재료(철근과 콘크리트)의 양은 (a)의 경우보다 작아질 것이다. 또다른 설계방법으로 (c)와 같이 하면 좀 큰 스패ん의 두방향 슬래브가 된다. 이때 슬래브는 정방형이므로 각 방향에 작용하는 하중은 전체의 반이고 연속슬래브가 되기 때문에 이 구조도 큰 문제가 없다. 하중의 전달 방법은 설계 여하에 따라 자유자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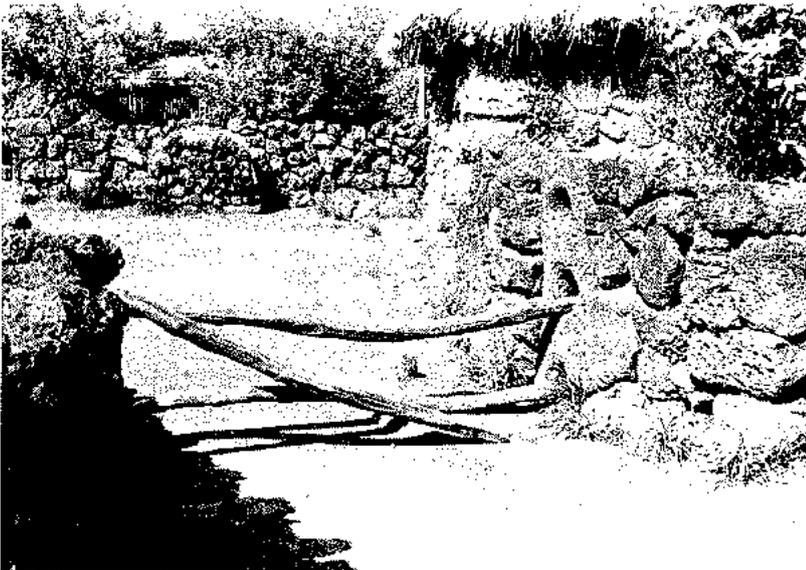
다른 설계 예로서 앞의 경우보다 크기가 두배가 되는 24m×16m크기의 건물 평지붕의 설계를 생각해 본다.(그림 4 참조) 이때도 여러가지 설계가 가능하고 그들은 여러가지 면(외장, 구조, 설비, 시공, 경제,...)에서 검토되어 최적의 것으로 구조설계를 결정해야 할 것은 앞 예의 것과 마찬가지다. 기둥이 다소 근접해 있어도 지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계획(a)과 같이 기둥을 4개 설치하면 보의 스패ん은 8m가 되고 적당한 보 단면으로 설계된다. 이 계획에서 횡방향으로 기둥을 연결하는 보는 없어도 무방하다. 횡방향의 스패ん 4.8m의 연속 슬래브와 종방향의 골조로도 구조의 전체성(integrity)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방향으로 슬래브 밑이 전체적으로 평활하여 여러가지 면(외장, 설비, 시공, 경제 등)에서 유리하다. (b)와 같이 작은 보를 넣은 설계는 (a)와 비교하면 기둥수는 적고 보의 수는 많고 하중 전달 방향이 달라지며 슬래브의 응력이 다소 작아진다(스패ん 자승비 참고 ; $4.8^2 : 4^2 = 1 : 0.7$). 작은 보(B)는 큰 보(G)에 지지된다. (c)와 같은 작은 보 없는 설계는 두방향 슬래브가 된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예의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건축관계 종전인이 아직 서투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로 써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濟州民家の 住居環境과 變容

The Commoner's Housing of Cheju—Do; their
Residency Environment and Transfiguration

梁澤訓 / 建築士,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by Yang, Teak-Hoon



濟州道の 7, 8月
民家の 아침은 이르다.

아직 동녘이 밝기에는 이른 새벽 4시, 발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내려갈린 중산간 마을에는 발길을 나가기 전에 밀린 빨래, 집안일, 그리고 아침밥을 준비하는 아낙네의 손끝이奔走하다.

아침 6시경이 다 되어서 동네 근처에 있는 일터(밭)로 나가고, 점심은 집에서 準備하고 온 飮食으로 간단히 解決하면서 休息時間도 없는 濟州人의 부지런함은 繼續된다. 그리고 저녁 8시쯤이나 되어서야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집안일 등을 整理하고 잠들려면 자정이 넘는다. 보리 播種이 끝나는 음력 9월까지 이처럼 바쁘게 보내야만 하는 住民들의 하루하루와는 달리, 온 종일 매미소리와 그리고 불벌같은 무더위와 함께 時間의 흐름이 멈추어 버린듯 한 부락은 깊고 짙은 정적속으로 빠져든다.

바닷가 마을 저 수평선에는 동이 틀때까지 근해의 저녁 바다를 밝히고 있는 고깃배의 눈부신 수은등은 이 한여름밤에 漁村을, 그리고 내일을 밝히는 것

같다. 이러한 環境속의 濟州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三多』와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三無』의 섬으로서 모든 도민의 勤勉과 節約, 協同精神등은 이 섬이 自然的 條件의 어려움과 生活儀式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濟州人의 先祖들은 文化와 生活樣式이 島嶼性이라는 地理的 條件과 氣候風土的 제약속에서도 지혜로움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繼承된 이 지방 傳統民家の 構成原理를 보면, 外部空間은 1~4個의 棟으로 構成되고, 基本的으로 4種類의 配置에 따라 서로 그 特徵을 달리하고 있다.

『마당』을 中心으로 구식적인 對稱配置를 하고 있는 각 棟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濟州의 巫俗信仰이나 風水地理, 氣候, 그리고 독특한 家族制度등의 要因을 背景으로 지금도 여전히 대지의 선택이나 방위가 巫俗에 의하여 決定되곤



하면서 生活像의 傳統的인 價例로서 지켜지고 있다. 棟의 配置와 外部空間의 構成은 空間의 功能性 要求에 대하여 독특한 空間의 秩序—「올래」에서는 꾸준한 暗示에 의한 지루함, 「올래목」에서는 希望과 밝음을, 「마당」에서는 회멸과 환희를, 종결부인 住宅의 내부 및 「안뒤」에서는 安定과 休息으로 變化 發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空間은 지루함—變轉—기쁨—安定—休息등의 分節로 리듬과 연속성으로 對應하면서 體系的인 外部空間의 特徵을 形成하고 있다.

『올래』에서 『상방』, 혹은 『정지』를 지나서 『안뒤』에 이르기까지 空間의 리듬은 우리들의 儀式을 강요하는 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空間의 連續性은 民家の 素朴하고 솔직한 生活의 단면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다.

『물팡돌』로 시작하며 民家의 入口를 암시하는 I, L, S형의 여러가지 形態를 하고 있는 『올래』, 즉 住居內部로 誘導하는 이 空間은 폭과 길이가 대략 2.1~3.0m, 9.0~15.0m 정도로서 『올래』의 형상은 進入時 視線에 의하여 住居空間이 外部에 露出되는 것을 막고 生活空間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독특한 디자인상의 特徵과 함께 住居內部로 우리들의 儀式을 가장 자연스럽게 誘導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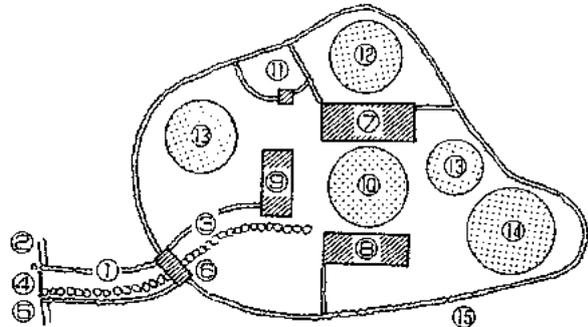
그것이 끝나는 부근에서 『정낭』은 마치 傳統空間의 대문처럼 空間과 空間과의 사이를 명확히 分節하고

『안뒤』는 바람과 사람들의 視線으로부터의 방해없이 孤獨해 질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어떤 意味로서는 民家의 内外部 空間 중에서 가장 “숨겨진 空間”인 것 같다.

한 그루의 나무이래 놓인 큰돌은 의자처럼 여기가 가장 시원하고 조용한 곳, 8月 한여름의 가장 시원하고 조용한 곳, 8月 한여름의 시끄러운 매미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듯, 스쳐가는 이들에겐 차라리 음산한 기운, 긴장감마저 드는 곳이다.

또한 傳統의인 住居의 平面形態는 기본적으로

- ① 정낭
- ② 상방에서 쳐다본 안뒤
- ③ 안뒤에서 바라본 상방과 밖거리
- ④ 제주민가의 움어해설
- ⑤ 제주민가의 배치 및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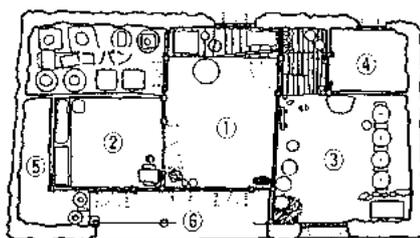
- ① 올래 : 길에서 주호까지의 진입로. 길이는 10~15m, 폭은 2.6m정도.
- ② 물팡돌 : 올래의 입구에 있는 집주인이 말을 타기 위한 디딤돌.
- ③ 다리팡돌 : 올래에서 마당까지 이르는 진입로에 깔어놓는 평평한 디딤돌.
- ④ 정낭 : 올래의 입구부분 집주인이 있고, 앉음을 나타내거나, 소와 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통나무.
- ⑤ 주먹돌, 정지목 : 올래 입구 양쪽에 설치하여 정낭을 끼울 수 있도록 구멍낸 돌 또는 나무말뚝.
- ⑥ 아문거리 : 집에 들어가는 문으로 거실과 축사가 병설된 건물. 규모가 큰 건물에만 있고, 이문거리가 있는 경우 올래가 없는 것이 많고 있는 경우에는 길이가 짧다.
- ⑦ 안거리 : 민가의 중심부에 해당되고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棟(主棟).
- ⑧ 밖거리 : 대부분 입구 근처에 위치한 동으로, 규모는 안거리보다 작다.(副棟)
- ⑨ 목거리 : 안거리와 밖거리의 귀퉁이에 위치한 棟.
- ⑩ 마당 :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등에 의해서 둘러싸인 작업공간.
- ⑪ 통시 : 변소와 그 밑에 설치된 돼지우리의 총칭.
- ⑫ 안뒤 : 안거리의 뒷쪽에 위치한 정원, 장독대가 위치한 정적인 영역.
- ⑬ 놀 : 탈곡전후에 농작물이나 짚을 쌓아 놓아둔 것. 탈곡후 연료, 사료, 퇴비로 사용.
- ⑭ 우영 : 울터리안의 빈땅에 채소 등을 심은 밭.
- ⑮ 뜰담 : 주택과 밭 등의 경계에 설치하는 담.

연결시킴으로써 空間構成상의 連續性을 분명히 하는 것 같다. 『정낭』이라고 불리어지는 둥근 통나무가 한개 걸쳐 있을 때는 옆집에, 두개이면 근처에, 세개이면 멀리 가 있다는 것을 暗示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棟에 둘러 싸인 넓은 『마당』이 나타나며 『마당』의 흠빛은 주위의 현부암의 검은 돌담과는 반대로 환하고 눈부시다.

『마당』은 民家의 作業空間으로서 한여름이면 『명석』을 깔고 보리, 녹두 등의 穀食을 말리고 있는 풍경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것은 건조와 함께 태양열이 住居의 內部로 反射되는 것을 막는 役割도 한다.

『상방』에 오르면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좁은문이 열려있고 『마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리 넓지 않은 밝은 空間에 동백나무, 감나무, 유자나무, 대나무 등이 뿔그루 심어져 있는 『안뒤』로 나갈 수가 있다. 『마당』을 지나는 동안의 눈부시던 視覺이 『상방』에 체 익숙해지기도 전에 펼쳐지는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을 보는 듯한 『안뒤』로의 좁은 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

三間型



- ① 상방
- ② 구들
- ③ 정지
- ④ 작은구들
- ⑤ 굴묵
- ⑥ 난간



6

이러한 形態의 空間構成은 『三間집』이 가장 많다.
 平面構成上의 각 空間에 대한 치수는 그 基準이나 개념상 具體的으로 정해져 있는 단위는 없다. 오히려 기둥과 기둥사이의 폭을 『間』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사용하는 목재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現實的인 概念에 의해서 決定되어 온 것 같다.

‘70年代 以後, 全國的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여파는 濟州民家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住宅改良事業의 명분 아래 급속도로 推進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초가지붕이 스텔트로, 현무암의 검은 외벽은 시멘트 벽들이나 블록으로, 그리고 창이나 문은 유리장문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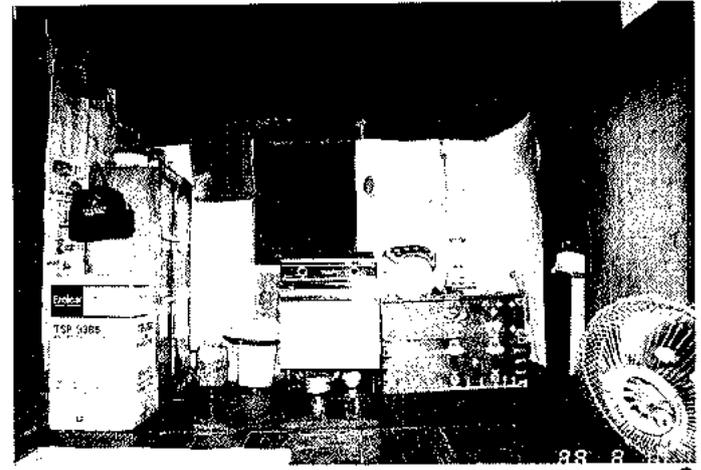
또한 마을에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면서 公共施設이 整備되고 각 民家에 家電製品의 供給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난방 및 취사용 燃料가 전기나 석유, 연탄 등으로 바뀌고, 종래 가족간의 共同生活 리듬이 달라지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7



8



9

『정지』, 『상방』, 『구들』, 『고팡』을 單位空間으로 構成되며 平面型은 『一字型』으로서 建物の 棟數에 따라 크게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및 『네거리집』으로 나누어진다. 『외거리집』은 다시 『一間막살이집』, 『三間집』, 『四間집』으로 나누고, 『두거리집』과 『세거리집』은 家屋의 配置形態에 따라 『모로 앉은형』과 『마주 앉은형』으로 區分되며 그것이 構成方法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를 낳게 한다. 이중 가장 많은 形態는 『두거리집』과 『세거리집』이며

- 6 올레
- 7 정낭
- 8 작은구들
- 9 상방
- 10 정지
- 11 제주민가의 동매치
- 12 제주민가의 변용 I
- 13 변용 II
- 14 변용 III

住民의 住居觀은 점차 變化하게 된다.

이와같은 生活의 變化에 대한 要求는 住空間과의 사이에서 갭(gap)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그 폭이나 깊이를 더해가면서 物的 環境의 先行으로 종래의 傳統의 生活樣式과는 멀어져 가면서 傳統的인 住空間도 서서히 우리들의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몇가지의 實例를 들어보면, 『큰구들』에 대한 儀式은 점차 消滅되고, 『작은구들』로 生活의 中心이

옮겨감에 따라 『작은구들』을 증·改築한 民家가 적지 않으며, 종래의 『고팡』에 대한 役割이 점차 달라지면서 불필요한 空間으로 인식되어 『고팡』은 다른 用途의 室로 改造되어 자녀의 寢室, 공부방으로 使用되고 있는 반면, 『창고(고팡)』는 外部 空間化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래의 炊事와 暖房을 별도로 區分하였던 것이 겸용 가능하도록 改築하는 民家도 적지 않다. 이것은 대부분 『작은구들』의 증·改築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食事を 위한 조리, 준비 등의 生活상의 行爲가 『정지』에서 일어났던 것에 반해, 이제는 콘로, 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전반 등을 놓아둔 『찻방』을 利用하고 있다. 이는 『정지』가 흠바닥이며, 바닥의 단차로 인하여 通行이 불편하지만 『찻방』은 『상방』과 같은 높이의 마루바닥이므로 使用이 便利하기 때문에 보인다.

이러한 住居環境은 近代化로 향한 社會의



10

全般的인 흐름은 傳統的 住居空間의 生活樣式이나 住居觀에 대하여 새로운 價値觀을 要求하였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家族關係의 構造의 變化는 相對的으로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켜 지금까지의 주인의 상징적 영역에 대한 의식의 變化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住生活에 대한 要求의 내용도 實用的이거나 機能的인 면이 중요시 되어진 결과, 『큰구들』에서 온돌 暖房이 容易한 『작은구들』로 生活中心이 옮겨 가게 된 것은 住宅改良事業의 흐름과 맞물려 증·改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富의 尺度였던 穀物의 機能的 役割이 화폐로 바뀌면서 『고팡』의 意味를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새 개실확보의 對象이 된다. 물론 個室確保의 要求는 『밖거리』의 新築하는 등의 行爲 보다 積極的인 方向으로 안거리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生活手段이 農·漁業의 이의 分野에까지 多樣하게 되면서 結婚, 出産에 의한 家族數의 變化에 따른 『안거리』와 『밖거리』의 移動에 대한 習慣은 점점 사라져 가는 한편, 자식들은 오히려 도시로의 移住를 동경하여 점차 民家를 떠나게 된다.

가혹한 自然과 歷史의 시련을 겪으면서 쌓아온 傳統民家의 모습은 濟州다운 形態로 繼承되기를 바라지만 점차 우리들의, 특히 都市人들의 鄉愁로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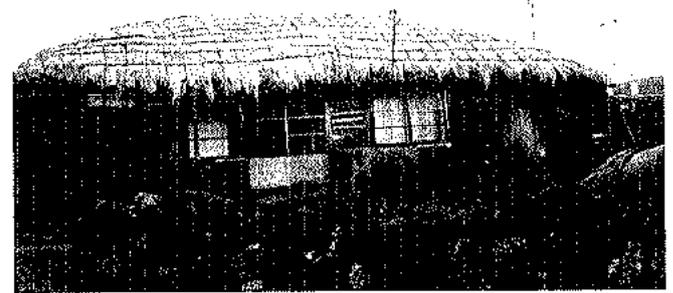
호칭	동 배치 형태	비고
외거리	1	동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두거리	2 또는 2	-
세거리	2 3 또는 3 2	동3은, 창고동에 사용된다. 민간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네거리	2 3 4 1	동1,2는 주기이지만, 동3,4는 통상적으로 우사, 창고로서 사용된다.

1. 안거리(=主棟) 2. 밖거리(=別棟) 3. 목거리 4. 네거리(=네번재棟)

11



12



13



14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Scheme of Construction Works Supervision System

FOCUS



한국건축감리전문회사협의회는 지난달 1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외국과 국내의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와 그 운영에 따른 사례분석",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감리자의 역할분담과 특히 시공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의 3개 과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감리업무의 개념 및 영역정립 및 적정보수율직성이 주요정점으로 떠올랐으며, 기존 건축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간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혼선등의 정립이 시급함이 지적되었다.

本誌에서는 특히 건축사 고유업무로서의 감리업무 영역의 침해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선부분 "건기법"의 개정이나 감리제도의 변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 문제가 신중히 논의된 제3과제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과 "종합토론"을誌上 中斷하며, 올바른 감리제도 정착과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 보수 및 책임있게 명시등의 제정령을 위한 관계당국과 건축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 編輯者 註 □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좌 장 : 건설부의 기술감리담당관인 박수남과장께서 '건설공사 시공 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남 : 먼저 본 발표는 건설공사 시공감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한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공감리제도의 도입은 당초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품질관리를 도급계약 내용의 적정 이행을 위한 지도 감독하여 왔으나 '86년 8월, 시공중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의 일환으로,

- 감독관의 구조적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 민간기술 수준 향상으로 건설시장 개방화에 대처하고자 "민간전문감리제도"를 도입, 민간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관련제도를 정비, '90년부터 시행중인 것입니다.

당초 입법 초기부터 계획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두 전면책임감리제도로의 시행을 계획 모색중입니다.

'91년 10월 현재 등록회사 수는 시공감리회사가 95개사(토목 33개, 건축 62개), 전면책임감리회사가 12개사(토목 10개, 건축 2개), 합계 107개 회사로서 '90년도의 경우 전체 대상공사 478건에 감리실시공사는 275건이며, '91년도에는 대상공사가 784건에 534건이 시행중으로 앞으로도 실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감리대가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보수기준이 없어 토목공사의 경우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장상주 감리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건축부분의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준용하며 적용방법은 소모 기술인력 위주의 실비보상가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감리들의 제재방법으로서 규정을 본다면 부실감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동시에 당해 감리자의 기술자격 면허 및 기타 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수뢰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공무원에 준함) 감리계약 미이행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시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받게 됩니다.

감리제도 및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발주자측의 감리시행 기피가 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감리기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고급관리자의 인식부족과 예산담당부서의 인식부족에 기인하여 감리소요예산 요구 및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 재도에 대한 타성 등으로 감리제도 활용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리비 예산 반영기준 미흡·정부예산편성 기준상의

과목에서 감리비는 시설부대비 등의 일부로 되어 있어 품질관리비나 안전관리비등과 같이 공사원가 즉 예산편성 기준상의 시설비목이 아니므로 감리비의 요구나 편성시 공사비와 연계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 예산은 있지만 감리비 예산이 없거나, 감리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입니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공적인 지도·통제의 제약으로 감리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대행이지만 감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감사원의 감사수감 근거가 미비하고 감리자의 부실감리로 국고손실 발생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변상조치가 불가합니다. 한편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한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감리제도 실시 여건이 미조성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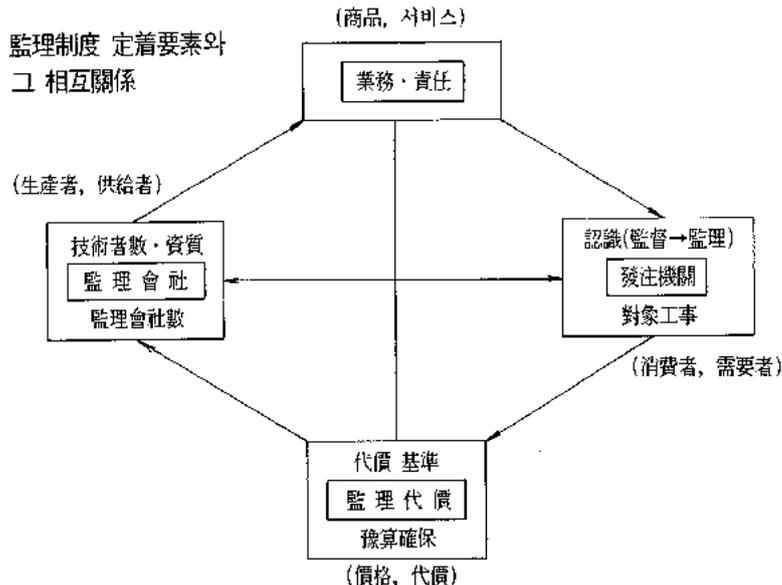
감리전문인력 및 전문회사의 부족; 현행 규정상 현상상주 감리 책임자인 기술사가 부족하고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 등록기준의 강화로 등록 업체 및 등록회망 업체가 적어 전면책임감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감리대가 기준의 불합리로 적정감리비 지불 곤란;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대가 기준의 감리부문을 준용하므로써 과거의 자문감리 때의 대가를 시공감리에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점, 시공감리나 전면책임감리의 구분에 따른 대가, 공정 또는 공사규모등 건설기술관리법 체계에 맞는 적정 감리비의 지불이 곤란한 점은 공사감리 정책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감리, 품질관리, 기술심의, 안전관리등 관련제도 운영조치가 미비합니다.

다음은 감리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리제도 발전의 기본요소와 상호관계로서 감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라는 수요자에 감리회



제3과제

- 죄장 오창희 한양대학교수
- 발표자 박수남 건설부 기술관리 담당관
- 토론자 이문보 동국대학교수 정남식 주공 공사부장관 김우현 (주)진아종합건축 이성희 (주)한국종합건축 강철구 (주)동우건축

사라는 공급자가 감리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의 4가지 요소와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리요소중 발주기관은 대상공사에 대한 감리실시의 인식과 대상공사 감리대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온당한 구매자의 입장이 되고, 감리회사는 그 회사수, 보유기술자의 수, 그 자질을 갖추므로써 생산자의 위치에 서게됩니다.

업무, 책임이라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생산자는 제공하고, 그 가격에 해당되는 감리대가를 발주자는 지불하되 이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적정하고 활발한 감리라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곧 감리제도의 정착이라 할 것입니다.

4가지 요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발주기관은 적정 감리 대가를 지불하고 감리회사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철저히 감리를 수행하겠다는 서비스 정신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적정비용을 지불하여 우수인력이 책임성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감리를 신뢰하고 품질확보등 감리목적에 달성될 것이며 그 결과는 발주기관에 돌아가는 합리적인 순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의 고찰을 통하여 발주기관과 감리회사는 전체적으로 대상공사 및 감리능력이 균형되게 하고, 또한 감리대가는 업무 및 책임과 균형이 이루어지게 유도하는 것이 감리제도 개선방향의 큰 줄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본 요소들은 모두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므로 1차적으로 그 각각을 발전시키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을 포괄 촉진하는 교육, 관련기구 등에 대해서도 상기시스템의 순환을 촉진토록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앞서제기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리자의 회계상 책임한계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가. 공공공사 감리자를 감사수감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문서작성-공문서로 간주
-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 근거 부여
- 나. 부실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보상 수단 확보를 위한 변상책임 확보 방안 강구
- 감리자의 입찰 보증 및 계약

하자보증제도 도입 및 변상책임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회사 역할을 담당할 감리용역 공제조합 설립방안 검토

둘째, 감리전문인력 업체의 확보 육성입니다.

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기준등의 완화로 감리업체 확보유도

-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
- 기술인력 및 자본금등

○품질시험 장비의 보유기준 중에서 현장 휴대용 간이 시험기구를 보유토록 완화하여 등록업체의 부담 경감

○감리전문회사 등록주기를 현행 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정하여 등록기회 확대

나. 감리전문인력 확충

○풍부한 현장경험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경력 기술자를 책임 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안 강구

예 : 1급 기술 자격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는 감리 책임자로 인정

○건설안전관리 기술자를 감리요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건설안전 시공관리분야 감리강화

○품질시험 기술사 및 건축재료 시험사 제도를 신설하고(노동부에 요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추진중) 이를 감리요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분야 감리강화

셋째, 감리보수 현실화, 감리에산 확보로 감리 내실화 유도입니다.

○감리보수 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리보수를 현실화하고

○감리소요 비용을 공사비와 연계하여 예산 확보방안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발주기관 감리시행 촉구 및 여건조성 강화입니다.

- 감리시행 기피 일부 발주기관에 감리시행 촉구
- 감리대상 공사의 감리예산확보 철저 이행 유도
- 감리대가 산정은 효율방식을 지양하고 실비정액 산방식 적용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주기관 감리시행 적정 예산확보 촉구등을 위한 감리관계관 회의 개최 예정('91.12)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감리자의 교육강화로 자질 향상입니다.

○감리자의 보수교육을 건설기술교육원에 일원화하여 감리전문교육 실시방안 강구

- 교육주기의 단축조정으로 교육의 실효성 제고
 - 감리협회등을 통한 감리회사의 자체 교육강화
- 여섯째, 감리관련 중앙·지방조직 확충입니다.

○감리·품질관리·설계심의 안전관리등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부 본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청 시험실들의 조직확충 추진

○시·도등에 감리·설계심의등 전담기구 신설 및 건축종합 민원실 설치

마지막으로, 감리협회등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업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협회 설립으로 감리의 활성화 및 자율성 제고하고

○감리자의 입찰보증, 계약 및 하자보증등의 재산상 책임확보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감리용역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함과 동시에 등록기준 관련등 시급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91.12) 제2단계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92)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의견을 각급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수렴중에 있고 오늘 이 세미나도 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사감리제도는 건설공사 시행 관리제도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3년이상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비록 현재 미비한 점이 많지만 이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나라에 새로운 감리문화를 이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기관, 발주기관, 감리자, 시공회사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 요청됩니다.

특히 건설분야의 국가경제에서 역할중대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경쟁력에 대비하는 길은 고품질 건설공사의 시행에 있으며, 이를 위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3자가 대등한 위상으로 건강한 3각관계의 정립이 우리건설 분야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감리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발주기관 및 시공업체 관련자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감리제도 정착에 대한 많은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가 필수불가결합니다.

'91년도에 저희 기술감리담당관실에서는 감리 조기정착 방안수립을 과제로 하여 설문조사, 실태조사, 기술관리법 개선의견 수렴, 감리에산 확보유도, 감리이행촉구, 감리제도 개선작업등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지금까지 감리제도의 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였지만 이곳에서의 토론과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기탄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건기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중에서 공사감리부분을 떼어서 공공공사의 감리부분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따라서 건기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와 건축사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가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현행 건기법 제40조에 의하면 건기법에서 시공감리를 한 경우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공사에 있어 미관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의무가 없다든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좌 장 :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문보 : 발표자께서는 시공감리의 충실화를 위하여 여러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몇가지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리의 정의에 대한 설문문제인데 감리라는 것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먼저 시작되었고, 20여년이상 시행되면서 그가운데 불만스러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건기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중에서 공사감리부분을 떼어서 공공공사의 감리부분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따라서 건

기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와 건축사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가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현행 건기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로 보고 있어서 그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법에서는 건축물의 미관과 기능, 구조 이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미관이라는 중요요소를 관리시험으로서는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중요 특성인 예술적인 요소를 건기법에서는 확보할 도리가 없다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기법 제40조에 의하면 건기법에서 시공감리를 한 경우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공사에 있어 미관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의무가 없다든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다음 건기법에서 정하는 감리는 시공감리와 전면책입감리 두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건축사법에서는 일반·상주·종합공사감리 세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건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부문에 한해서 시행되므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에 대한 것은 다섯가지가 얽혀서 혼동이 일어나므로 법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명백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건기법은 시공감리에 대한 업무규정과 자격규정이 있습니다만 업무규정 가운데는 좀더 상세한 책임한계등을 명문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책임의 귀책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됩니다만 건기법의 감리전문회사는 법인이므로 책임도 그 회사가 지게되어 실제로 감리업무를 하는 행위자하고 그 법인으로서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므로 연구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시험 기술자 제도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시공기술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공감리자인 시공기술사가 품질시험도 함께 관여하도록 운용되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품질시험 기술사가 생기면 기존의 시공기술사와의 한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품질시험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중 어디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등을 매우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 주공의 정남식부장님의 토론을 들겠습니다.

정남식 : 주공의 감리담당 정남식입니다.

발표해 주신 박과장님의 시공감리제도의 향후 개선방

안과 연계해서 시공감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발주처의 실무자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사무소로서의 설계업무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감리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감리용역을 수주한 후에야 필요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현실입니다. 또 기술자는 감리회사의 영세성 또는 장래 보장성 미흡등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감리회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규모를 대형화하거나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자 확보와 그 운용이 용이하고 감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감리적용 대상 공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내용에 따라서 감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 발주기관의 자체기술자 보유나 기술수준등에 따라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감리의 종류 및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법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에도 저희 주공에서 감리자 배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처 측에서 감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먼저 정립이 되고난 후 그에 따라서 감리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등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이종합건축의 김무현 사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무현 : 진이종합건축의 김무현입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은 앞서 발표와 토론 많이 있었으므로 저는 현장감리 실무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QC매니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현장조직 사이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소장이 있고 QC매니저가 있어서 리포트 보고할 때에는 QC매니저는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장소장 보다 차상위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C매니저가 보고할 때에는 항상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공내용에 대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관리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QC매니저 밑에 구조물 콘크리트 시험, 자재, 샘플, 토질시험등 기타에 대한 시험실이 조직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델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설현장의 현황은 대개의 경우 공사부장이 있고 공정담당자가 있지만 품질시험 관계자는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주공의 현장을 보더라도 5~8개의 회사가 함께하여 시험실을 겨우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자측에서 시공사항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되는 QC리포트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리포트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제도의 개선 차원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이러한 QC매니저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현장에서 발

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좌 장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우건축(주)의 강철구 사장님 토론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철구 : 강철구입니다. 박과장님께서 시공감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두가지 간추리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볼 때에 설계를 의뢰하여 허가만 득하던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드시 감리를 통하여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정부공사를 발주하는 실무자조차도 감리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제도 발전이 더디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공감리에 임할 때 지급받는 감리비의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이 감리비의 개념도 아까 말씀중에서 잠깐 비치었습니다만 감리비는 전체공사비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보수액 산출기초는 기술자의 등급별 인원에 따라서 계상지급 받고 있는데 더욱더 복잡다변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감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발전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적정보수액의 지급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공감리의 보수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정산해 보면 그 이윤이 불과 몇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에서 얼마만큼은 감리비의 명목이라 하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겠습니다.

일예로 100억원 공사에서 시공감리비가 5억이라 가정한다면 감리요원이 한명이든지 두명이든지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한 업체 조직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기술 인원을 떠나서 어떻게 좋은 장비와 방법으로 제대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거기에 몇사람이 들어가고 등급은 어떻게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아닙니다.

현행과 같이 단순히 기술등급에 대한 인원수로서 매달 월급을 계상지급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수기술자의 상시보유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리에 임하는 자세와 수준이 발전을 커녕 그저 평범한 수준정도에 머무는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좋은 방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감리 보수의 현실화로서 기본적으로 감리비의 개념이 전체공사비 속에 일정비율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의 정립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몇년간에 걸쳐 나타난 것이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 기술자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여러 등록 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을 해야 할 경우 실제적으로 기술자의 확보가 거의 불가

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어느기간 동안만은 한시적으로 경력을 인정한 기술자의 제도운용이 되어야 원만한 업무수행이 되지 현행과 같이 법규정상의 운용으로는 형식을 위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인원에 현실적으로 감리요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응찰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거나 시공감리 계약을 해놓고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좌 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질문사항은 종합토론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과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

사 회 : 끝으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

현행과 같이 단순히 기술등급에 대한 인원수로서 매달 월급을 계상지급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수기술자의 상시보유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리에 임하는 자세와 수준이 발전을 커녕 그저 평범한 수준정도에 머무는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좋은 방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감리 보수의 현실화로서 기본적으로 감리비의 개념이 전체공사비 속에 일정비율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의 정립입니다.

습니다만 오늘 세미나에 약 600여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등에서 130이라는 많은 수가 참석하신 걸 보니 그동안 소외되었던 감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치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 장 : 금성종합건축의 한종언입니다.

이렇게 많은 참석자 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동안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를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도출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세미나에서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건설관계인들이 앞으로의 이정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큰 동기가 될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먼저 (주)건축국 종합건축의 대표이며 본협회의회 김 영수이사의 토론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수 : (주)건축국 종합건축의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같이 3가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저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한가지는 건 기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리 회사가 사실상의 조직이 전 면책감리와 시공감리 전문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그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까 주공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감독 권한을 갖지 아니한 감리는 그 효과와 운용면에서, 또한 기능과 역할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감리자에게 감독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겠고, 둘째 이유로서 2종류의 전문회사의 등록기준상의 차이점은, 물론 사무실 면적과 기술인력 자본금도 있지만 크게 보아서 시공기술사 1명과 3명을 보유하는데 있다고 보아 지는데 실제로 이것은 제도운용상 실제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시공감리대상 건축물의 대상에 관해서인데 현재는 정부투자기관이상의 국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한 민간 공동주택의 감리도 포함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외 기타의 건축물은 설계의 연장선상의 설계감리개념으로 보아 전기법에 의한 시공감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좌 장 : 다음은 본 협의회 강기세 부회장님께서 상주감리의 강제성 규제완화와 기술인력의 적절한 활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기세 : (주)범 건축의 강기세입니다.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듯이 그동안 시공감리의 원만한 수행에 큰 제약요소의 하나가 인력난이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보수액의 문제에도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주감리 인원수에 기초하여 감리비의 산정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사람이 고정화되고 그에 대한 Quality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요율에 의한 시공감리비의 보수기준을 급급히 마련함으로써 감리회사에서 보편을 들고 감리를 수행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면서 노하우를 자기나름대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의 시공감리요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체에 대한 콘트롤할 수 있고 현재의 책임감리자는 2~3개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책임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맨과워에 의한 감리보수액 산정방식은 감리요원인 건설기술자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감리가 없는 Blank동안에는 감리요원을 경영상 방출해야할 경우도 생기는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기술자의 보유조정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여 다시 감리를 수주한 경우 전반적으로 감리요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술인원의 확보가 곤란한 문

종합토론

- 좌장 한중언 (주)종합건축공성
- 토론자 이영희 (주)희림종합건축 김영수 (주)건축국종합건축 강기세 (주)종합법건축 황상모 렉키개발(주) 이성주 (주)유신설계공단 이명호 중앙대학교수 장중규 주공건설본부장 장래섭 (주)남원건설 박수남 건설부 기술관리담당관

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감리보수비는 요율에 의한 산정 방식이어야만 감리전문회사가 안정적인 기술자 보유로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리자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해서인데 이것은 아무리 법적사항으로 규정을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방수관계인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가 A라는 방수공법을 제시했을 때 시공자가 그 공법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시공자가 다른 Alternative한 안을 제시합니다.

그럴때 감리자가 문서로 설계의 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공자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방법에 감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 시공자의 방법으로 시공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경우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되므로 시공자와 감리자간에 있어 감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적인 뒷받침과 적절한 보수의 지급으로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질때 우리나라 시공감리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본협의회 감사께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와의 구분과 건축에서의 설계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종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희 : (주)희림건축의 이영희입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중에서 저는 특히 이명호, 이문보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하여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로써 전기법 제정당시인 '87년도에 찬반양론이 격론을 벌였습니다만 반대의 논리는 건축사법을 중심으로한 건축사협회에서 설계와 공사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건축사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논리의 핵심은 건축물이란 발생과정에서부터의 속성이 토목분야와는 달리 작가의 창의적 의도와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문화적 표출비중을 중심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위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설계의 연장선 의미에서 그 정의를 두어야 하고 건축물의 착공에서 준공때까지 설계자의 참여와 관여가 배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관관 화재사건을 기점으로 전기법의 수용범위를 건축과 토목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하게 제기되어 전기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전기법에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함을 원칙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정당시 긍정적인 논리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기술자 보유면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술인력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품질관리 측면을 주도하게 하므로써 기술축적과 함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서 이러한 점은 저희도 긍정히는 측면이 있

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건기법이 2년여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여지를 남겨 주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 시공감리발주권에 대해 유찰 사례가 빈번하고 또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발주처 자체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발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사법에는 공사감리, 건기법에는 시공감리로 용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에 용어의 정의, 업무의 성격과 법률적 책임사항등을 재정립하여 시장경제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공사나 공공공사의 구분없이 적용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공사 감리는 설계감리라고 정의하던지, 일반감리라고 정의해서 반드시 설계자가 참여해서 설계의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공감리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Design콘트롤과 Quality콘트롤을 이원화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공사규모가 크든 작든 발주처가 기관이든 민간이든 Design콘트롤할 수 있는 설계감리는 설계시작서부터 준공때까지 유지되어야겠고 그 이상의 상주공사 감리나 종합공사 감리 내지 품질관리를 위주로 하는 시공감리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신설계공단의 이석주 전무이사께서 지금까지 건축분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목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해 주시지요.

이석주 :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귀한 것을 제자신도 배웠습니다만 법적인 용어상의 문제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역시 전면책임시공감리제도로의 운용을 강조했습니다라는 관에서의 어려운 입장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저도 한가지 부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집장사 집이라면 시공질이 형편없는 엉터리집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 공사보다 민간공사 부문이 배이상 크다는 것과 그 중요성을 느껴습니다.

관공사등은 발주자가 시공자를 감독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도 양질의 건축물을 추구하는 반면 민간집장사라는 것은 싸게 지어 빨리 파는 식의 장사속 수단이지 건축물의 품질제고는 상당히 외면되어 있고 또 자주 주인이 바뀌므로 일정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소규모의 건축물에서부터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고, 어떠한 감시감독체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들여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칠겠습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이 진행중입니다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이외에 토론자로 내정되신 분은 주제 발표시 이미 의견을 피력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바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종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그전에 오늘 세미나의 전체적인 결산을 중앙대의 이명호교수님께 부탁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 사실 오늘의 이 세미나가 이렇게 많은 건설관계인이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될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업무의 현실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만치 우리의 건설분야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일을 잘했는데 국내에 오면 왜이리 일이 거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건설에 대하여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저도 가끔 나가보았습니다만 그쪽에는 감리기법이 철저하고 제도적으로 완벽하여 우리 시공업자가 끔찍을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창달을 하는데 감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를 해야되겠고, 그와 동시에 국내의 감리기법을 철저히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충 제기된 의견을 보면 국내외에서의 사례들을 많이 열거해 주셨고 또 발표자분들의 의견으로서 법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기법의 규정이 건축의 감리업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건축사법이 오래전에 제정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새로이 품질시험기술사의 제도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이 기술사제도가 또 무엇이나하는 의구심이 있고 토목은 그러한 시험제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건축분야는 감리의 참여분야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것을 줄여본다면 과연 감리의 필요성과 전문성의 기본정신이 무엇이나를 생각해야 할 텐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첫째, 건축문화 창달 측면의 절실한 취지에서 정착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둘째,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기업성도 살려야 된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기업성만을 강조한다면 설득력이 반감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역할분담 측면, 다시말해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감독기관측과 더 나아가서 자재메이커와 시험검사방법마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시공현장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콘트롤하고 핸들링하는 책임은 건축물을 직접 축조하는 시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 시공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도하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하는 최종적 측면에서 드라이브해 나가는 액티브한 것은 역시 감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감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현장에서만큼은 감리자 중심의 상당한 권위가 있는 협의기구가 발족되어 권위도 주어지고, 그 책임도 부과하면서 기업성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의 큰 수확이 있다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감리의 개념이 많이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건기법과 건축사법을 어떻게 건축관계에 부응시켜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정할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다.

건축은 토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은 저작권에 관계가 있는 것이나 토목은 설계자의 전문성과 감리기술의 전문성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현장에 나갈때 감리단에 위임하게 되면 설계자는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학에서의 교과과정베이스를 보아도 엔지니어링 베이스인 토목은 설계작업시에도 구조계산 작업등이 주가 되고 건축은 대부분의 교과과정 목표가 디자인에 있으므로 그 뿌리가 상당히 다르며 다만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만 통일성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사법에서의 감리의 개념과 전기법에서의 시공감리 개념에 있어 근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므로 이것을 앞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감리의 전문성이 정착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좌 장 : 이런 기회가 좀처럼 마련하기 힘이 들므로 사실은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으므로 플로어의 한두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 : 이점만입니다. 건설부의 박과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공감리를 함에 있어 기술 인원이 부족하므로 기사1급 자격자로서 10년의 경력이 있으면 책임감리자인 기술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행료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산하의 기술사는 건설업법, 전기법에 있습니다만 국가기술자격법상에는 주무부장관은 해당 기술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도 일정기간의 경력자로서 1급기사로 대체했는데 전기법에서도 1급기사로 대체한다면 기술사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기술사제도를 폐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기술사가 부족하여 그렇게 밖에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 잠정적인 시한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1급기사자격자로서가 아니고 다른데도 모두 1급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급기사 자격취득후로 할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제도적장치 미흡에 대한 보완으로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를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본금도 미약한 개인에게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제정시부터 문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은 공사감독하다가 부실한 시공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리책임사항을 대두시켜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수남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기술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기술사를 기술사로 대체하면 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인데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저희들도 국가에

서 부여해준 기술사자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사만으로 해서 수급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등록된 기술사가 절대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기술사가 현재 용역업체에 있는데 그 기술사들이 감리전문회사로 전입된다면 용역업체는 그만큼 손실이 있을 것이므로 기술사의 인원이 절대부족하여 이런 의견이 제기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또한 기사1급 취득후 5년이든 10년이든 기술실무에 종사한 자가 실제로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한자보다 실용면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방침을 확고하게 정하여 놓는 것이 아니고 실감이 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예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제도의 인정유무에 대해서는 기술사들도 이해를 주실 것으로 기대되나 그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공무원인 공사감독이 벌을 받느냐고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감독이 되었을 때 설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필요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리자도 설계변경을 하지만 실지 감리에 대한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하여 큰 손상을 주었다면 그 업무를 주무했던 입장에서 의당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 떳떳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등으로 한다든지 그 범위는 계약보수총액의 범위내에서 예를들어 계약보수 없는 것이므로 상식이

오늘 세미나에서의 큰 수확이 있다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감리의 개념이 많이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전기법과 건축사법을 어떻게 건축관계에 부응시켜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토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은 저작권에 관계가 있는 것이나 토목은 설계자의 전문성과 감리기술의 전문성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현장에 나갈때 감리단에 위임하게 되면 설계자는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선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 : 무영건축의 박영근이라 합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건설부 박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감리업무의 한계가 어느정도 지어져 있지만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업무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당신도시의 아파트의 공사감리 현장에 나가 있는데 사법에 의한 종합공사 감리업무내용 중에는 시공자도, 공정관리자

도, 자체선정등이 있고 품질관리는 감리업무내용에도 없는데 얼마전 건설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품질관리를 감리가 해야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많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규정을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공사감리의 경우 어느 정도 업무내용을 구분해 주시는게 저희들이 감리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좀더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남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비중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감리의 개념이나 범위의 설정이 어렵고 현실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에서도 시공감리업무의 내용이 13가지로 나와 있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애매할 때도 있고 실무적인 책임을 감리자에게 물을 때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나중에 다루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자가 숙선해서 성실히 업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을 시공자가 잘못된 것까지 감리자가 덮어 쓰는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법이나 규정은 운용상의 큰 울타리를 정해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건축물이나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리자와 발주자간에 감리계약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감리계약시 감리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기술지식이 부족한 발주자에게 어느선까지 하고 발주자측인 시공자는 어디어디까지를 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세하여 수행하여 나갈 때에 그러한 경험적 사례가 축적되어 점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면 그것을 기점으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 장 : 한규봉입니다.

주최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좀전에 이정만선생님께서 질의하시고 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저는 조금 절충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술사들을 일정자격자로서 일정경력이상인 자를 대신할 것을 검토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기술사나 건축사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을 책임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일정경력자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을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100억원 현장은 일정자격을 지닌 경력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그러한 현장 2~3개를 그 상위급인 기술사나 건축사가 책임지고 콘트를 할 수 있는 식의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기술사들의 부족도 개선이 될 것이고 건축사나 기술사들도 우리의 설 땅이 없지 않느냐는 식의 불만 의견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감리하는 사람을 공무원에 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데요, 그 문제는 건설부에서도 다른 법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매번 세월이 좀 경과한 후에 전부 법에서 삭제되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을 기술감리담당관실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좌 장 :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 정착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 법이 우리나라의 건설관계제도에 발전적 기여를 크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법이 통과될 적에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특히 건축사들의 실세에 대한 감리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극력 반대투쟁 했습니다.

그러나 등법을 입법화할 적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위주의 시공감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행정부에서 명분을 강조하였고 저희 건축사들도 그러한 중요한 국가기관 건축물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감리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국적 견지에서는 필요할 것이라 해서 입법화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시공감리회사의 영역으로 침범당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때 건설부 당국자들은 여러 자리를 통한 협의에서 절대 그러할 리 없다고 하는 답변을 그당시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미나장에 와보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민간공사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민간공사 부분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걱정이 예견되던 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현실로 닥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습니다.

특히 방금 얼마전까지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절대 그러할 수 없다고 하던 본협회 이사가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법으로서 그대상 범위를 공공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공사로 못박혀 있는 이법을 앞으로 개정하여 민간공사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신지의 의견을 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좌 장 : 이 답변은 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해주시지요.

박수남 : 저희가 말고 있는 분야는 공공공사부문이기 때문에 민간공사 부문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체면위를 벗어납니다만 단지 이것을 합칠 것인가, 앞으로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공사 부문과 공공공사부문을 합치느냐 분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기법은 시행연한이 짧지만 나름대로 시행되어 온 두 분야이므로 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 현재 법에는 관공공사 밖에는 건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간공사까지 하려면 법개정 전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서 그렇게 확대시행할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런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수남 :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자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하여 행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건기법상에는 시공감리가 공공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감리전문회사의 조직을 일원화하자는 것과 시공감리대상 건축물의 분류를 공공부분과 공동주택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바로 감리전문회사의 조직을 일원화하자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시공감리 전문회사의 감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감리와 기타 건축물의 모든 감리는 어느 토론자의 말씀도 있었듯이 건축사 즉 설계자가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도나 법이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감리가 감독의 권한이 없이는 수준있는 감리의 수행이 곤란하니까 현행 건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는 전면책임감리쪽으로 운용되어야 발전이 된다는 것과 또 그렇게 하면서 건축사법과 건기법이 같

이 조화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행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 장 : 감사합니다. 너무도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종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있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도 많은 건설관계인이 상황을 이루어 주셔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감리의 정의 업무의 성격, 책임 한계와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어온 시공감리제도에 있어 보수기준의 제정시급이라든가 시공자, 발주자, 감독자, 감리자들의 서로간 입장이라든가 이에 부수하여 나타난 서로의 의견과 그 발전 방향을 기탄없이 나누었다는 데에 저희 주최자측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사감리제도 특히 시공감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서로간에 숙의하면서 정책입안자인 행정부나 관련단체, 시공자가 여러가지 나타난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에 알맞는 좋은 재도를 내안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서 보다 좋은 감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격무에 바쁘신 중에서 장시간 진행된 이 세미나에 끝까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한번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發刊案内

(社) 大韓建設振興會 刊
1992 建設 工事 표준품셈



土木・建築・機械設備 및 電氣・通信工事費 算出의 基準書

工事費 算出을 이 한권으로 해결하기 위해 土木, 建築, 機械設備篇을 全文 수록하였고 電氣・通信篇은 屋內工事は 全文, 屋外工事は 共同住宅園地 및 大型빌딩에 必要한 품을 拔萃수룩하는 것으로 大幅 補充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도와는 달리 土木 51, 建築 19, 機械設備 16 등 모두 86개의 많은 項目에서 新工法, 新資材, 新裝備 등 새로운 技術 導入으로 因한 "품"이 大幅 反映, 增補됩니다.

본 標準품셈은 利用하는 實務技術者의 理解를 돕기 위해 註解, 例題를 添記하였고 建設工事が 앞으로 大型化, 機械化, 專門化, 複雜化되어 多樣한 工法이 要求됨에 따라 92年版에는 政府품셈에서 未解決된 품을 參考提案(參考資料)으로 수록, 新工法을 適用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였습니다.

體裁를 刷新했습니다.

• 政府 公布原文의 順序에 充實하게 配列하였으며 分野別 共通事項은 共通部門으로 한데 묶어서 整理하였습니다.

• 質疑應答은 政府의 有權解釋을 土台로 한 內容을 수록함으로써 結果에 대하여 公信力을 附與하였으며 當會 解說 編纂分은 註釋, 例題, 參考資材, 計測例, 質疑應答, 參考 등의 기호를 使用하여 原文과의 區分을 明確히 하였습니다.

體裁를 다해 編纂했습니다.

• 當會는 工事費 積算基準 施策의 主務官署인 建設部의 支援를 받아 바로 正確한 內容의 品셈을 發行, 普及하는데 使命을 다하고 있습니다.

• 當會의 品셈編纂委員會는 多年間 政府 品셈을 直接 다루거나 設計 및 施工監理에 豊富한 經驗을 쌓은 技術陣(前・現職 公務員과 公共機關의 實務責任者)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精誠을 다하여 責任執掌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組版으로 活字가 미려하고 印刷가 鮮明하며 視覺的인 여유를 주는 일러스트와 添附用 건축지 등 實務擔當 技術者의 便宜을 勘案한 品셈의 決定版임을 자부합니다.



申請 및 問議連絡

(社) 大韓建設振興會 月刊 国土建設 管理部
TEL: 555-0816, 557-7370, 562-2842,
567-6255
FAX: 557-7370
· 4×6 / 양장 값20,000원

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 참가기

Looking Back Upon 12th ARCASIA Council Meeting and Forum

김지덕 / 유신건축,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 우리계획,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FEATURE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 12차 이사회는 9월 24~25 양일간 그리고 26일은 견학 및 관광으로 이어지고 27~28 양일간에는 제6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회의 장소는 북경 서북쪽 교외지역 향산공원에 위치한 아이엠페이가 설계였다는 향산호텔이었다. 비행기편 관계로 주석인 22일 아침 비행기로 홍콩경유 북경에 도착하였다. 오운동회장과 이의구이사는 주로 대외 협의를 주재하면서 행사 전반의 협회측 결정사항에 대해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국제위원회 김지덕위원장과 이정근부위원장 및 김종복위원은 이사회와 진행에 참석하고 교육위원회에는 전봉수위원 및 조인숙위원이 참석하였다. 포럼행사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사회와 진행 및 결정사항을 회의순서대로 요약하여 포럼의 발표내용과 이번 행사의 성과와 전망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제12차 이사회(1991. 9. 24~25)

1. 개막식

1. 회의소집

아카시아 자문단의 한사람인 로날드 푼의 사회로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회장 빌그라미씨의 개막인사와 중국측 건설부장관의 인사 및 세계 건축가협회 전회장 로드 헤르니씨의 축사가 있었다. 중국 건축사 협회장 다이 니안차씨가 병중에 있어서 대신 부회장과 우양웅 교수가 개최국의 입장에서 인사말을 건넸다. 급변 제6회 아카시아 포럼의 의장인 로날드 푼의 개막선언이 있었다.

2. 본회의

1. 회의의제

회의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총무간사 자이갠 제프리는 의제번호 12.0 회원가입 항목에 명기된 북한대표가 참석치 않았고 북한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북한의 가입 문제를 토의안건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되고 모든 부문에서의 상호교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축분야에서 대북한 교류를 주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북한을 가입시킴으로써 양측간에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회의 약 한달전에 아시아 건축사협의회회장 빌그라미씨, 주중국인 중국 건축사협회장 다이니안씨 및 아카시아 자문위원이자 이번 제6회 아카시아 포럼 의장인 로날드 푼씨에게 북한에 공문을 보내 이번 아카시아 이사회에 북한이 참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2. 11차 이사회기록

빌그라미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총무 자이갠 제프리의 사회로 회의 의제에 대한 소개와 작년 인도 아그라에서 열렸던 제11차 이사회기록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진행되었고 수정 확인된 회의록이 통과되었다.

틀린 글자의 수정, 잘못된 분장의 교체등이 있었고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결의안이 회의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수록하도록 하였다.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신입회원 가입의 공식적인 절차와 신입 심사위원회등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음이 지적되었고 1989년 제10차 이사회에서 회람되고 작년 11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시행규칙'에 포함된 회원가입에 관한 조항으로 가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기한 아카시아 행사에 있어 손님(guest)에 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모든 인사를 손님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3. 재무간사의 보고

아카시아 시행규칙상에는 전회기 회장단에서 2년 임기의 마지막해 12월 까지의 결산처리를 하여 익년 3월까지 차기 회장단에서 인계도록 되어있으나 전회장국인 인도에서는 자국사정에 의해 익년 3월까지 결산처리를 하고 6월까지 새 회장국인 파키스탄에 인계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을 앞으로도 적용시키자는 인도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행규칙을 고칠 수 없다하여 시행 규칙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및 인도가 회장국이었을 때 각각 장부상에 잔액계정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현 회장국으로 이월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고 스리랑카에서는 회비를 여러번 미납하여 이들 문제에 대해 각 해당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회장국 파키스탄 협회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에는 1991년 1월부터 9월22일 까지의 결산에서 수입 \$3400, 지출 \$1870 잔액 \$1,230로 보고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KASI가 매 이사회마다 예산 집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통과되었다.

4. 각 회원국의 연례보고

각 회원국 협회는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지난 11차 이사회이후 1년간 각국 협회에서 실행한 주요한 업무와 각국에서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 관심사들을 차례대로 간단히 요약 설명하였다. 싱가포르의 대표 데이 켈슨은 싱가포르 건축사 협회의 기본 실행 목표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에 여기에 요약해 본다. 첫째는 건축사의 영역을 온통 시장경제의 원리에 내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건축전문직의 지속적인 개혁만이 더욱 각박해지는 경쟁사회에서 건축인이 살아남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교육기관에서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세번째는 사회주택의 정착에 있어 관료화

및 경직화 되기 쉬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많은 역할을 민간부분이 떠맡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네번째는 신진 건축사에게 더 많은 역할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건축사 역할분담의 주기가 쇠퇴되어야 하고 공개 설계경기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다섯번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간에 사람과 정보 및 재능들의 교환과 흐름이 보다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와 역할의 적절한 상호공유 및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필리핀과 태국이 자국내 건축용역에 대한 선진 외국의 침투에 대해 강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를 가능한 개방정책을 환영하는 편이어서 각국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견해가 엇갈림을 알 수 있었다. 의견의 대세는 개방을 통해서 보다 건축전문직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건설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에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마카오, 몽골리아 및 일본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관단을 보냈는데 옵저버 참가국 대표들의 자국 건축사협회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마카오의 경우 전체 인구 60만명에 70명의 건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건축사 대부분이 포르투갈에서 교육받았다고 한다. 몽골리아는 200만의 인구에 280명의 건축사가 있으며 이중 150명 정도가 1955년에 창립된 몽고 건축사협회 회원이다. 젊은 세대 건축사를 빼고는 기성건축사들 대부분이 소련과 동구에서 교육받았다고 한다. 일본에는 건축관계로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옵저버로 참여한 단체는 신일본 건축가협회(JIA)였다. 이 협회의 상황은 1914년에 창립되어 1987년에 제조적 되었으며 회원수는 8000명으로 유럽 및 미국의 협회들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 대한건축사협회 보고내용

한국의 대한건축사협회의 보고내용은 지난 일년간의 여러 행사 및 업무중에서 비중을 가지는 7개 항목을 요약하였다.

대의원총회, 한국건축전, 전국건축사대회, 컴퓨터의 이용 및 전국대회에 대한 여론과 건축행정의 효율화 등에 대해 행한 여론 통계조사, 건축법개정노력, 회원현황 및 각 위원회 활동현황, 남, 북 건축사 교류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경향, UR 등 용역산업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한 간의 UN가입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교환교섭이 증가하는 사회환경에서 건축전문직이 처한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숙제를 앞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의 건축사들이 아시아건축사협의회라는 국제적인 모임의 마당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모두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5. 활동그룹의 보고

1. 실무제도 활동그룹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었지만 별 진척사항이 없었고 앞으로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전망이 흐리므로 그룹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각국별로 활동사항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대 건축과 분야 홍보구름

인도 건축사협회(IIA)주관하에 활동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이 지침서를 참고로 각국 협회에서 활동내용을 연례보고서에 수록하도록 결정하였다. 전 아카시아 회장인 푸시 캄바타는 해마다 각국에서 최소 일년에 한번 아카시아의 이름으로 하나의 행사를 마련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아카시아의 세 부회장중의 한 사람인 차국령(싱가폴)은 이사회에 결정사항을 폐회직전에 요약해서 회람도록 긴급제의 하였다.

3. 건축사 선발제도 연구구름

태국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였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어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

4. Arcasia City Project

이 프로젝트는 1987년 제8차 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별 진전이 없으므로 말레이시아에서 포기하고 1990년 제11차 이사회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담당하도록 위임되었었다. 파키스탄에서는 별로 준비한게 없었고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책자의 제목을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n Cities : ARCASIA Guide"로 하고 각국마다 주요도시에 1980년 이후에 지어진 주요 건축작품 20점씩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책으로 편집하여서 팽창하는 건축활동의 보고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시작한 아시아국가중 특히 ARCASIA 회원국을 중심으로 최근 십년간의 건축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책자의 내용을 어떻게 가치있는 것으로 잡아가느냐 하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게 관건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어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었다. 이 책자의 성격이 ARCASIA 회원국 주요도시의 건축가이드 정도의 자료모음집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십년간의 아시아 건축의 발전상과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진자의 경우는 재원의 출처가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는 한 실현성이 희박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능력있는 편집자와 지명도 있는 출판사를 선택하면 상업성이 있으므로 재원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국의 수상작품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홍콩에서는 각국마다 예정 매입권수를 확정하여 출판비를 각출하자고 주장했다. 현 회장 빌그라미씨는 자료수집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한 1991년 12월보다 더 길게 잡아야 할 것이며, 각국마다 각각 스폰서를 하나씩 제공하는 견해였다. 결국은 대한 건축사협회의 주관하에 싱가포르의 테이켄순씨 및 아카시아 고문인 로날드푼 씨와 협의하여 편집자를 구해보고 출판사도 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정을 보았다.

5. Arcasia Information Center

스리랑카에서 운영하기로 한 아카시아 정보센터가 지지부진하자 기왕에 말레이시아에서 담당하고 있는 ARCASIA ARCHIVE와 이 정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제안되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카이브도 제대로 활성화하기 힘들므로 떠맡기를 반대하였다.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는 많은 ARCASIA 사업계획이 실현성을 결하고 있기때문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두 사업을 합쳐 하나라도 충실히 실천해나가자고 의견 제시하여 합의 통과 되었다. 싱가포르의 출판한 도서 및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6. 아카시아 정관 개정

정관내용중 2.0 SECRETARIAT 조항에 영구 사무국을 두는 문구에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수정하였다. 또한 4.0 Membership, 6.0. The Council, 조항에 대해 회장단에서 지난 9월 7일 각회원국 협회에 서신으로 제시한 바 있는 개정안에 대해 토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7. 아카시아 시행규칙(ByeLaws)의 채택.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아카시아 시행규칙 문안에 대한 재확인 심사 및 토의가 있었고 대한 건축사협회 발의와 인도네시아 협회의 제청 형식으로 통과되었다.

8. 아카시아 포럼

아카시아 포럼을 창시하여 1회에서부터 금번 6회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조직해온 홍몽의 로날드 푼으로부터 포럼 조직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회장 빌그라미씨의 제청으로 그의 공로에 대한 치하가 있었다. 작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포럼 조직 책임자를 투표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열리게 될 제7회 포럼의 조직담당에는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이 선출되었다.

9. 아카시아 건축상

작년 인도의 제11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이 처음으로 내년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첫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 건축상 요강 및 제 규칙을 성안한 바 있는 파키스탄의 자이감 제프리가 아카시아 건축상 위원회 제1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를 주관하게 되었으며,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는 한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협회는 자국의 우수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료를 1992년 1월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었다.

10.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ACAE)보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P. Kasi가 이번 교육위원회 회의의 진행결과를 요약 보고하였으며, 내년 10월 파키스탄에서 열릴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병행하여 열리는 학생 잼버리의 주제는 "21세기의 풍토건축(The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21st Century)"로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11. 아카시아 신입회원 가입

마카오와 일본은 각각 회원국 12개국중 11표로 몽골리아는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대한 건축사협회가 제안한 바 있는 가입 절차상 가입투표전에 각 가입신청국 협회현황 자료를 인쇄물로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시하도록 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므로 말레이시아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회장단 쪽에서 작년 일년간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신청국과의 사이에 절충하여 왔다는 보고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였다.

신입 세 회원국으로부터 인사말이 전해졌고 모두 박수로 환영하였다.

12.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제5회 아시아 건축대회 주최국인 파키스탄은 대회의 기본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세한 일정표는 내년 1월중으로 각국 협회로 발송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1992년 10월24일, 25일 양일간 제13차 이사회가 열리고 27, 28 양일간 "건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13. 제 14차 이사회 및 제7회 아카시아 포럼

1993년에 열리게 될 제14차 아카시아 이사회 및 제7회 아카시아 포럼의 개최신청을 받았는데 홍콩에서는 이 대회의 유치를 위해 슬라이드 및 비디오테잎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안내와 선전책자를 배포하였다. 그외에 다른 신청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홍콩이 다음의 포럼과 제14차 이사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14. ARCASIA와 UIA 및 다른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관계

인도 건축사협회에서는 ARCASIA 및 UIA의 후원하에 건축유산에 대한 학술대회를 인도 건축사협회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1992년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전번 회장단에서는 UIA 제4지역과 ARCAISA의 통합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심각히 취급한 반면 이번 회장단의 태도는 두기구를 섞는다는 것은 ARCASIA가 대표하는 지역의 지역특성을 잃게하는 것이며 의미가 없다는 견해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5. 기타안건

태국협회에서는 자국정부가 GATT협정을 통해서 용역업의 국제간 자유통상을 꾀하는데 대해 전문직과 용역업은 엄연히 구분되어야하므로 건축설계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해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회원국가 정부들에 이를 알리자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 안건에 대한 이사회에 대체적인 의견은 1984년 마닐라 ACA-1에서 채택된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가 1987년 UIA에서 다시 공식건해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족하며 중복해서 다시 논의나 결의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은 말레이시아 협회는 ARCASIA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ARCASIA에 관한 사항들을 실어 전하는 정기발행 잡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3. 소결

이번 제12차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회의는 아카시아의 새로운 변모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의 허술했던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규정 및 실행방법을 보완정비해가는 방향전환의 계기였다.

1988년 제3회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서울 개최를 정점으로 초기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조직 활동가들의 역할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감을 가지게 된다. 초기 활동가들의 퇴조와 더불어 1989년 중국의 가입 및 올해의 몽고, 마카오, 일본 등 새 회원국들의 등장으로 회원국수가 15개국으로 늘어나 조직이 팽창되었다. 자연적으로 조직, 운영, 제도 및 관세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띄우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아카시아 시행규칙의 통과 및 이에 대한 이번 이사회에서의 재확인인 시기 적절한 대응이었다. 아카시아 포럼의 제창자였고 이제까지 6회에 걸쳐 포럼행사를 조직해왔던 로날드 푼이 물러나고 선거에 의한 담당자 선출이 시작되었으니 포럼행사에도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며 발전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사회의 구성은 각 회원국 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며 각국의 협회장은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아카시아 운영의 연속성과 발전적인 상상을 위해서는 운영 및 조직제도의 효율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특히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장을 맡은 당사국 회장단의 일처리 능력과 활동에 따라서 아카시아 활동의 기초가 좌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회장국 실무진의 능력과 헌신적 노력이 중요하다.

어차피 회장국도 정기적으로 바뀌어야하므로 개별적인 능력과 활동범위의 차이와 경향의 장, 단점에 따라 아카시아라는 전체 조직의 운명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위험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직, 운영, 제도의 객관적 틀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조직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각 참가회원국 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아이디어 및 실천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며 각 개별회원국 협회 회원들에게까지 아카시아 행사의 뜻과 의의가 피부로 전달 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회장인 인도의 루시 캄바타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해마다 최소한 1회이상 각국 협회가 아카시아 이름아래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은 공감에 가는 바가 크다.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해마다 한국 건축전 학생부분 최우수상 입상자를 아카시아 학생 잼버리 및 건축여행에 참가시키는 관례는 매우 뜻이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어 내년의 제5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카시아 건축상도 각국 회원들에게 직접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든 점에서 뜻이 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의 아카시아 운영 경향을 보면 회원국들 나름대로 의욕만 가지고 제도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현실적인 아카시아 조직의 현황이나 예산의 뒷받침, 실행가능성 등을 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하곤 하였다. 결과는 아이디어만 내고 결의하여 책임이 할당되지만 몇 해를 두고도 성과가 거의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전도상에 있는 국제 조직체의 미숙련과 성장과정의 착오라고 보아야겠지만 이제는 각국협회가 이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는 모든 제도와 활동 프로그램도 실천과 성과가 예측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히 성안하여 진행해가야 될 것이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와 프로그램은 통합 조정하여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향때문에 대한 건축사협회에 맡겨진 바있는 ARCASIA City Project에 대해 본협회에서는 계획초안을 잡아 이번 이사회에 토의를 부쳤던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정적인 답변을 못하므로 이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본 협회는 좀더 진행하여 보기로 하였다.

4. 제6회 아카시아 포럼(1991. 9. 27-28)

이번 포럼은 27, 28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에는 이사회가 열렸던 회의실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발표자 5명의 발표가 있었으며, 두번째날에는 장소를 옮겨 호텔의 정원에 자리를 마련하여 하루종일 첫째날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첫째날의 좌장은 로날드 푼이 맡았고 두번째 날에는 캔양이 수고해 주었다.

포럼주제는 "아시아에 있어 대단위 사회주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며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각각 연사가 초청되었다. 본 글에서는 발표

및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 Lin Zhiquan, 중국의 사회주택-전통과 쇠신

Lin 교수는 칭화대학교 교수이며 중국 건설부 정책 연구위원회 부소장이며, 이외에도 중국의 도시, 주택, 농촌, 건설분야 등의 정책 연구기관에 깊이 관여해 온 사람이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주거형식을 중정식과 기타 일반 자유양식으로 분류하며, 이 중정식은 상류층이나 일반을 막론하고 널리 보편화된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이 양식은 중국의 가족구조와 사회규범을 철저히 양식화된 것으로 본 반면 농촌지역과 소수민족들에 의해 많이 나타나는 기타 자유형식은 보다 기후, 토양, 경제적 능력 등의 실제적인 조건에 많이 좌우되었다고 보았다.

Lin교수는 중국의 사회주택의 발전과정을 1949년 공산정권 수립이후 1978년까지 30년동안과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10년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1990년 이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1949년이전의 중국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고 공산혁명이후 봉건제도와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가 타파되고 사유재산제도가 철폐 되었고 자제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빈부차이의 극소화, 사회복지제도, 및 경제와 정치에 있어 평등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주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도시의 사유가 철폐되고 주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소유로 되었다. 여러 정치적인 원칙과 운동에 치중되어 사회주택이 소홀하게 취급되었었고 중국 전통주거 관례에는 대량 사회주택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없었으며 서구의 경험은 무비판적으로 배척되는 실정에서 소련과 동구로 부터 모형을 선택했다. 절제를 최상으로 하였으므로 저질을 양산하는 격이 되었으며, 이성적인 설계를 강조한 반면에 입지와 배치에서는 비이성적이며 생활관습과 동떨어진 이중적 유형을 형성하여 나중에 다시 고쳐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건설공법의 낙후와 값싼 임대료, 사유가옥의 몰수 등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었고 우량의 기존 전통주거들마저 모두 피실되었으며 옛것은 죄악시되고 저질의 새것으로 대량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9년 이후 십년간에는 사회주택이 국가정책의 주요소가 되어서 투자가 집중되었고 상품으로서의 사회주택 개념이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걸부된 복잡한 어려움들을 깨닫게 되었다.

집단 생산단위에서 직원들을 위한 집을 짓게하고 토지 및 주거의 생산단위 별

소유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낳았다. 이것은 동시에 단점과 장점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동안 단순하고 편원일률적이었던 설계를 다양하게 하는 노력이 가미되고 전국적인 주택통계조사도 실시되었다. 80년대 들어서 사회주택분야에 있어서의 주요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의 승계 발전과 가치평가 및 실험적 프로젝트 시행

2) 사회주택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예측 활동의 강화

3) Garden Housing이나 Support-Infill과 같은 대담한 쇠신책의 도입

4) 사회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예측활동강화

5) 사회환경으로서의 총합적인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

Lin교수가 앞으로 중국의 사회주택문제에 있어서의 과제로 보는 점은 전통적 환경과 현대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문화적 축적을 새 주거유형에 반영하는 것이며, 농촌주거의 개선책 수립, 도시 주거지역 재개발의 효율적 수행이다. 이를 위해 주요 방향설정의 지침은 첫째, 중심이 양에서 질로 옮겨져야 하며, 둘째, 여러 종류의 조사통계 분석을 통한 정확한 정보체계의 확보, 셋째, 건축기술이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사회경제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조직자로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Akira Ozawa, 도시형 집합주거의 새 모델

오자와씨는 동경공업대학 교수이며, 자신의 건축 아틀리에를 자영하고 있다.

그의 발표내용은 서울의 일부지역의 문제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동경에서는 유통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가 사업자들의 도시내업무시설 수요가 급증하여 땅값이 너무 빨리 상승하여 땅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도시내 모든 지역이 업무 상업용도로 바뀔 지경에 이르렀다.

대지가격의 상승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우선 대지가격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자신이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자가소유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지 소유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유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자와씨는 대지가 작게 쪼개져서 연결하는 도시내 지역에서의 이상적인 주거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19세기중반

전까지 서구도시에서 전형을 이루었던 도로에 연접하여 인쪽으로 내장을 가지는 가로변 블록형 주거를 상가시켰다. 이 유형의 주거는 19세기중반 이후 자유방임주의적인 사회주택 정책에 따라 가로변 블록형 주거의 나머지 공간에 다층의 건물들이 뻗뻗히 들어서는 바람에 이 유형주택에 부정적인 비판이 가해졌고 급기야 1930년대에는 동일한 길이의 개방된 열이 반복배치되는 형식을 낳았다. 후에 엘리베이터의 공급으로 밀도를 높이고 건물간의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대지 가운데 우뚝 솟는 다층건물이 선호되었다. 이 건물 유형은 도시의 표피조직과 매우 이질적인 도시구역을 만들어갔다. 기존의 도시조직과 일체를 이루며 도시인의 사회관계망에 밀접히 대응하여 온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주거건축 형식으로 일찍이 로마의 아트리움이 있는 도무스와 중국의 사합원 주거형식을 들 수 있다. 대지 가운데 건물이 들어서 거리와 건물사이에 빈 공간을 남기는 "파빌리온"형식에 해당하는 free standing slabs, towers, open parallel row 등에 비해 전통적인 중정형식은 가로변블록형과 더불어 대지내 빈공간과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 및 인접가로를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공간덩어리로 만든다. 19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런던의 조지안 테라스 하우스와 파리의 Maison a Loyer 등의 새로운 중정형식은 중정형식의 새로운 발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자와씨는 동경의 소규모 필지가 밀집한 지역에 다수의 지주들이 대지를 합필하여 공동의 중정을 둘러싸고 거리와 중정을 연결하는 다층의 가로 연결 블록형 중정식 집합주택 설계를 소개하였다.

이 주거형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Enfronting Rule-1, 인접도로 전길이에 걸쳐 건물이 접한다.
- 2) Enfronting Rule-2, 인접대지 경계선에 건물이 접하게 하며 이면에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
- 3) Front, Rear Aspect Rule, 건물은 거리와 중정 두면을 앞뒤로 접한다.
- 4) Rule of Self-Sufficiency, 건폐율 60%를 뺀 빈공간을 모두 중정이 차지하여 일조와 통풍 그늘 등을 제공한다.
- 5) Passage Court Rule, 인접가로와 중정을 연결하는 통로가 놓인다.

3. Raj Rewal, 현대생활의 수용을 위한 전통주거형식의 재 해석

Raj Rewal은 인도 델리대학에서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건축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인도의 전통적인 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집합주거 및 건축분야에서 개성있고 독창적인 작업을 해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Sheik Sarai의 집합주거, 아시아 올림픽촌 및 국립 면역학 연구소 건물 등의 예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도입한 설계 지침을 보여주었다. 그는 먼저 인도에 번지고 있는 서구의 영향하에 건축된 많은 고립적이고 반복적인 건물 덩어리들이 결하고 있는 공동체적 속성과 개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에게 설계원리를 제공해 주는 원천은 인도의 Jaisalmer와 Udaipur 등의 역사적 도시에서 발견되는 좁고 그늘진 생가 왕성한 길들이다. 여기에서는 공간들에 간간이 놓이는 출입문으로 결절점이 생기며 휴식, 오락공간이 상업지역과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자스탄 지방의 도시들과 하벨리스라는 내 저택의 건축양식에서 내장을 이용하여 뜨거운 열을 식히는 방법들이 다시 원용된다. 그는 서로 연결된 작고 큰 광장들과 중정 및 옥상공간을 도입하여 집과 길이 뒤엉키고 광장들과 어울리는 여러 덩어리의 집합체를 만들어낸다. 야외공간들은 좁은 보도로 연결되며 그늘을 만들고 오락기능과 상업기능이 배합되어 생기찬 길거리를 만든다. 길들은 지루하지않게 분절되어 편의 장소와 변화있는 비스타를 제공한다. 그는 동양의 아치와 돔 또는 부조 등의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방하려하지 않고 과거로부터의 영감을 이성적인 구조와 현대기술 및 새로운 재료를 구사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합하게 재해석한다. 그리하여 그는 연속성과 자기동일성 및 다양성간에 잘 조절된 균형을 찾아내려고 한다.

4. Lee Kwong Yan, 고밀도 대단위 사회주택

Lee Kwong Yan은 말레이시아의 젊은 건축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사회주택을 크던 작던 하나의 생활동동체에 숨터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원주민, 중국계, 인도계 등의 인종이 공존하는 다인종 국가여서 각각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과 전통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후의 특성상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들은 광선이 거실부분으로 깊이 침투하지 않는 남-북향을 선호하며 고온다습하므로 자연통풍이 원활한 평면을 원한다. 설계밀도자체가 모든 요소에 앞서 어느정도 건물의 유형과 형상을 결정하게

됨을 전제로 통상적인 두면의 벽에 의한 평면형상은 고밀도 주거에서 다양한 주거를 생성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3면의 벽(3-side wall)을 이용한 평면유형의 생성은 보다 유연성있게 일조와 통풍에 유리한 변화있는 형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3면 벽 구성의 원리를 적용한 프로젝트들을 예시해 보았다.

5. Tay Kheng Soon, 싱가포르의 대단위 사회주택에 대한 고찰

Tay Kheng Soon은 현재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회장이며 건축가로서 사회주택 뿐만 아니라 건축환경의 여러분야에 걸쳐 놓은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애초부터 필요에 따라 주거가 주어지기보다는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된 차에게 주거가 주어지는 사회주택 정책을 펴서 그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였다. 토지수용 정책을 강화해서 대지비용을 줄이고 퇴직금 의무적립제에 의한 자금을 주택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했다.

애초부터 사회주택이 평등의 개념에 근거한 정치적 산물이었기 때문에 유형과 가격에 따른 디자인의 표준화가 보편화 되었다. 1986년부터 사유화가 권장되었을 때 싱가포르 정부와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주거를 사서 사유화한 사람들의 투자를 평가하락시키지 않기 위하여 전보다 한층 다르고 개선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점증하는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기 위하여 민간회사로 하여금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Tay는 사회주택 기구가 하나가 아닌 복수로 있어야 사회주택 문제가 비정치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의 경제가 국제경제와 국가 공공부분 지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율성과 주도권의 전망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 경제부분이 더 성해야하고 분권화된 정치체도가 도입되어야 새로운 사회주택 도시환경 및 생활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싱가포르에서 고밀도는 용적율 1.8에서 2.8사이를 말하며 이는 고층으로만 해결된다고 믿고있지만 Martin Center, Cambridge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밀도의 집을 4층에서 10층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12~15%의 건폐율을 더 높여서 건물 층수를 더욱 낮출 수 있으며 건물간 거리도 좁혀서 옥외공간을 더욱 긴밀히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Tay는 현재의 용적률만도 2.8을 더 높혀서 더욱 충만한 도시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고 이들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면 문제없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상업시설들이 지층에 놓이고 사회공동시설이 이 상업시설의 지붕층에 오며 그 위에 주거부분이 올라가는 삼단형 원형을 제시한다.

Tay는 John Habraken이 제시한 도시공간조직 (Tissue), 지지구조체(Support Structure) 및 충전(Infill)의 영역의 적절한 절충을 통해 훌륭한 도시의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Habraken이 1988년 서울의 제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사회적 동의로서의 유형"이란 제하에 발표한 바와 같이 한 문화 속에서 동의의 객관적 기초는 생활공동체의 가치있는 디자인 범주의 적절한 기초가 된다는 명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와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아집스런 건축의 풍토와 생활환경 창조에 있어 경직되고 형식적인 접근에 경도되어 있는 계획가, 기술자, 시공자 등에게도 좋은 경종이 된다고 보았다.

6. 제2일 포럼 토론광장

이번 아카시아 행사가 진행된 향산호텔은 3층 정도의 저층 분산형으로 펼쳐진 건물사이마다 옥외공간에 자연자세를 이용한 정원을 가꾸어 놓았다. 포럼의 두번째날 토론광장은 야외로 옮겨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켄양의 사회로 각 발표자의 전날 발표내용에 대한 요약이었고 참가자들에 의한 질문과 답변 및 의견제시로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국의 Lin교수는 중국의 사회주택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점은 전통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검증하는 주거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표준화를 탈피하는 것이라 보았다.

말레이시아의 Lee는 발표내용에 요약된 바와 같이 평면유형의 조합에 의한 다양성 획득과 유연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일본의 오자와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주거형식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고 이 제안이 용적률 1.8~1.5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인도의 Rweal은 전통적인 인도의 건축에서 취한 설계원리를 요약하고 자신의 제안이 용적률 2.0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싱가포르의 Tay는 주거의 형상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택의 내부공간에서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용적률의 상한선을

그리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여하에 따라 용적률만도는 많이 올릴 수 있으며 단지 매가스트라퀴의 인간화 및 자연의 도입등이 관건이라 보았다. 과감한 방향전환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주거공간의 양적인 접근에 의한 사고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5. 소결

이사회가 끝나고 26일에는 오전에 북경 시내에 위치한 집합주거 단지 두곳을 견학하였다. 물량적인 면이나 재료 등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아파트단지에 견줄만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현대적 삶의 욕구를 동시에 접합시키려는 진지한 실험적 태도는 우리의 가슴을 찡찡하게 하였다.

우리는 최근의 우리나라 대단위 사회주택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깊은 심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아카시아 포럼에서 있었던 5명의 발표자의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5명의 발표내용을 일관하는 공통의 관심영역은 사회주택 문제에 있어 양과 질에 관한 것이었다. 양과 질의 범주는 서로 떼어놓고 견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기하고 섬세한 인간의 주거욕구를 규격화된 틀 속에서 숫자로 채워주려 한다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좋은 질을 창출할 수 없으며 질에 대한 가치판단은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회의 여러계층,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주거형식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해야하는 주거의 설계 건설 입주선택의 과정이 단순화되고 경직된 몇개의 경로를 따라 틀지어져 있다. 아무리 비싸고, 크고 많이 빨리 지어가지게 되어도 우리사회 생활공동체 주거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을 판에 박은 생활공간에 가두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사회주택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천천히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실험이 가능하도록 여러 법적인 제도의 신속적인 재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과 합리적인 추구 다양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성과와 전망

이번 중국에서 유치한 제12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와 제6차 아카시아 포럼은 대과없이 무난하게 치루어졌다. 크게 돈 안들이고 김소하게 조용히 매듭지었다. 포럼의 경우는 연사선정에 있어서 테마의 줄거리를 잡을 수 있는 일관되고 수준이 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준비기간이나 비용 등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사회의 부수행사들은 좀 더 활기차고 흥미가 끌리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하는 느낌을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의에서 맡겨진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있게 매듭을 짓는다는 인상을 주게끔 최대한 노력하였다. 단지 아직은 우리의 아이디어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관철시키는데까지는 역할의 비중을 두고 있지 못하다.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여 가고 있다고 본다.

국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임하기전에 계획한 바 앞으로의 아카시아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 건축사협회는 중국 건축사 협회와 인적 및 기술적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건축관계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이번 참가기간 동안 앞으로의 대 아카시아 업무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허심 탄화한 대화를 가질수 있었던 것은 큰소득이었다. 회원중에서 누가 아카시아 관계 업무에 관여하든 아카시아의 기구, 조직, 일의 진행방법, 인적구성 등에 대한 감을 잡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왕에 일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일을 인계 받을 사람들에게 계획성있게 인계 하지 않는다면 국제관계에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재 몫을 다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가서는 이러한 좋은 국제적인 활동이 국내회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다. 아직도 대한건축사협회가 대 국제관계 역할에서 능숙한 편은 아니더라도 협회의 국제관계 활동이 회원들의 건축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찰이 요구된다.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Looking Back Upon 5th ACAE

전봉수 · 조인숙 / 국제위원회 위원

by Cheon, Bong-Soo & Cho, In-Sook

FEATURE



1. 처음에

금번 제5차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연례회의는 1991년 9월24일~25일 중국 북경시의 서북쪽 교외의 풍광이 좋은 향산(香山)마루터에 위치한 향산관티엔(香山飯店, Fragrant Hill Hotel)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호텔은 건축가 아이엠펜이가 설계하여 AIA상을 수상한 바 있어 참석한 건축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24일 첫날 ACAE의장인 말레이시아(PAM)의 카시(P. Kasi)의 환영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간단한 자기소개로 금번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PAM), 중국(ASC), 방글라데시(IAB), 싱가포르(SIA), 스리랑카(SLIA), 대한민국(KIRA), 필리핀(UAP), 홍콩(HKIA) 및 파키스탄(IAP)의 9개 회원국과 처음으로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일본(JIA)까지 모두 10개국에서 참석하여 정족회원수 6개국보다는 조금 넘는 9개국이 되어 정식으로 개회가 선포되었다. 25일 들쭉날에는 인도네시아(IAI)가 합류하여 11개국에 참석하였다.

금번 우리협회는 국제위원으로 ACAE를 담당하고 있는 전봉수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국제위원 조인숙위원도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2. 본회의에서

1990년 인도 아그라에서의 회의록을 약간의 오자수정 및 문구조정 후 승인체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건축학도잼버리대회로 1990년도 뉴델리대회를 비롯하여 1986년 쿠알라룸푸르대회 및 1988년 서울대회의

- 문제집 토의 및 향후의 대회운영 지침
- 2) 차기 건축교육위원회(ACAE) 및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계획
- 3)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
- 4) 정기기술연구보고서(Research Journal)
- 5) 아시아지역 건축도서 정보센터의 운영
- 6) 아카시아 3개 지역의 활동상황(Sub-regional activities)
- 7) 회원국의 교육위원회의 활동상황, 구성 및 역할
- 8)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향후 운영 방향

각 의제별 토의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도 아시아건축학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인도건축사협회에서 참석자가 없었으므로 회원국 각국의 평가를 종합하여 보면, 대회운영에 문제가 많았고 대회내용이 빈약했으나 학생간의 교류관계는 괜찮았었다는 증언이었다.

향후 잼버리대회의 목적, 책임사항, 주제와 세부사항, 대표자 선정, 기금조성, 프로그램, 숙식, 주최국의 안내 및 수송, 입국허가 및 여행안내, 학생작품전시회 등의 항목에 걸쳐 장시간에 걸친 토의 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으로 채택하였다.

2) 1992년도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에서 개최될 6차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 및 4차 건축학도잼버리에 대한 계획을 주최국인 파키스탄(IAP)의 대표 칼림 시다퀴(Kalim A. Siddiqui)씨의 안내설명이 있었다.

21세기의 지역별 토속건축이란 무엇인가(What is the 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에서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주제가 되며, 학생작품전시회도 있을 예정이고 채택된 대회운영지침을 따를 것을 부연하였다.

3) "아시아지역대학교 건축과 현황 자료집"에 수록한 내용은 이미 작년도에 인도네시아(IAI), 필리핀(UAP), 싱가포르(SIA), 대한민국(KIRA) 및 홍콩(HKIA) 등 5개국의 자료가 정리되었고, 나머지 회원국은 금년말까지 제출하도록 독려하였다. 출판경비 및 기타 제작비 등의 조달도 문제이거니와 과연 팔림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일단 자료를 수합하여 보관본정도로 만들어 복사본을 회원국들에 배포하여 자료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4) ACAE회원국간에 정보 및 지식교류의 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회지(Research Journal)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발행횟수는 파키스탄(IAP)에서는 2년에 한번 내지고 제안했고 홍콩(HKIA)에서는 주최측이 매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연 1회정도의 의견이 많았다. 잡지의 내용은 홍콩(HKIA)은 매년 가장 우수한 건물을 소개하자고 했으나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ACAE모임 및 특별한 사항들의 내용을 싣고, 회원국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출판물 하고 주최측이 비용부담을 하는 등의 얘기들이 오갔다.

결국은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발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잡지의 내용은 그 다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육, 실무 및 새로운 정보 등에 관한 고정란을 둔 특별호 또는 별책부록형식으로 하여 매년 주최국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참고적으로 각 회원국의 회지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인도네시아(IAI)는 인도네시아어로 1년에 두세번 내고, 한국(KIRA)은 제목만 영문 포함한 한국어로 매월 출판, 홍콩(HKIA) 및 방글라데시(IAB)는 뉴스레터 정도로 연 1회, 말레이시아(PAM), 싱가포르(SIA)는 영어로 격월간으로 출간하며, 스리랑카(SLIA)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필리핀(UAP)과 파키스탄(IAP)은 내는 것이 없었다. 매월 회지를 발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KIRA)과 일본(JIA)뿐이었다.

5) 아시아건축도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의 사항은 그 효율성도 의심스럽고 코디네이터인 스리랑카(SLIA)의 자금 및 여타 사정으로 1992년 이후 회의중 고정토의 사항에서 삭제키로 하였다.

6) 3개지역 활동상황(Sub-regional activities)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간사국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남아시아 지역(간사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는 지역활동이라기 보다는 자체활동인 디자인컴페에 대해 보고했는데, 이는 도시슬럼프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부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중이라 했다.

동아시아지역(간사국 : 한국, 중국 및 홍콩)에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이 지역 간사국인 KIRA는 이에 관해 3개국간에 정치적 관계로 직업적인 내용의 교류가 원만치 않음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몽골리아, 일본, 마카오 등 세 나라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므로 앞으로

동아시아간사국으로서 KIRA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7) 각 회원국의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개시 1개월전에 배포된 조사양식(참고자료 Agenda P. 4)에 따라 각국의 구두로 보고 하였다.

KIAR는 연차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한국의 건축 3단체(건축사협회, 학회, 가협회)의 현재상황 및 역할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KIRA내에는 교육위원회의 조직이 없고 국제위원회내에 ACAE를 위한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내용을 보고할 때 매우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각국 보고내용중 교육위원회의 명칭이나 실무관련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IAP)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을 위한 유일한 조직이며, 대학교는 5년제이고 면허는 졸업 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방글라데시(IAB)의 IAP의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며, 홍콩(HKIA)은 2개의 위원회에서 분할하여 관장한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IAI)는 회원자격을 대학졸업 2년 후 부여하고 시험은 설계과목만 보고 면허는 IAI에서 추천받아 정부에서 관장한다고 한다. 싱가포르(SIA)는 면허시험이 따로 없다.

중국(ASC)에는 건축가(Architect+Engineer)가 10만명이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건축가"의 정의가 우리의 인식과 같지는 않지만 인구비례로 보아 우리보다 다소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8) 건축교육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가. 각 회원국들의 건축교육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나. 각국의 건축교육체제를 우선적으로 인정

다.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장치 역할을 둘 일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3. 마무리에

회의종결 후 의장인 피.카씨(P. Kasi)씨는 아카시아사회의에서 ACAE회의의 결과 보고서 KIRA의 연차보고서 및 서울아시아 건축학도캠프비리 대회보고서가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된 사실과 활동상황에 대해 상세히 언급을 하여 기간 몇 개월간 지고 있었던 짐의 일부를 더는 듯하여 홀가분한 느낌이 되었다.

작년 4차 ACAE회의의 참석 후 참관기 형식으로 협회지에 보고서를 싣었다. 끝마무리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 우리 협회가 교육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보이는 것은 매우 이상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은 본 협회가 전문직업인의 집단으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역할에 무감각하지 않은가 한다. 분명 대학교육은 대학당사자와 문교당국의 소관인긴 하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타건축관련단체는 조직내에의 교육위원회 등을 두어 대학교육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인 점도 있다.

우리 협회가 대학교육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같은 국제적인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미봉책에서가 아닌 보다 우수한 건축가 건축사의 모태가 결국은 대학교육이라는 원론적인 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그후 1년. 대학교육에 관련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회내 24개 위원회가 있어도 대학교육의 창구가 되는 기구는 없다.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 학생작품선정을 위한 접촉과 관심이 전부가 아닌가 싶다.

학교 선생님은 평소에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범위에서 평가를 한다. 평소 아무런 교육투자 없이 갖춰입한 건축가 지망생의 실력을 운위할 수 있을까? 대학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협회가 시행하는 매년 한 차례의 우수학생작품선정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한 작품선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타 건축관련 단체의 대학교육에 대한 위원회의 유무를 알아 보았던 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장구조학회, 한국전산공학회 등의 경우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협회나 학회의 구색갖추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전문직업인의 단체로서 후생(後生)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건축사헌장」에 「건축사는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다.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중에 후생에 대한 배려나 가르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협회의 위원회조직에 「교육위원회」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6회 아카시아토론회에 참가하고 나서

Looking Back Upon the ARCASIA Forum 6

황길순, 김윤정 / 경원대 건축과 4학년
by Whang, Kil-Soon & Kim, Yoon-Jeong

FEATURE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면서 본 풍경은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듯한 고층 건축물들의 외관상 세련미가 돋보였으며, 고대와 현대의 미가 잘 조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다는 이화원은 규모면이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대륙적 기질의 소산으로 생각되었다. 거대한 스케일, 거대하면서 다양한 문양의 장식품들과 기이한 모양의 돌로 된 정원,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난 3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한 '91한국건축전에 'Art Plaza'라는 작품으로 학생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해외연수 특전으로 '91. 9. 26~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회 아카시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해외여행 경험도 없고 영어에도 미숙한 우리는 국제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고 두려움마저 느꼈다. 하지만 금년에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학생 쟁버리 대회가 없어 특별히 부여된 임무가 없고, 또한 국제위원회 위원들께서 모든 것을 도와 줄 것이라는 협회 담당 직원의 설명에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 금번 목적이 아카시아 토론회 참가였지만 실제 우리로서는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만큼 영어 구사능력이나 국제행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 건축물을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해외견문을 다소나마 넓힐 수 있었다는 데에 금번 방문의 실제적인 의의를 두고 싶다. 따라서 견학내용 및 소감과 함께 Forum 6 참가시 들은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고서에 대하고자 한다.

〈9월 23일—맑음, 이화원〉

난생 처음으로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 기대감도 잠시 뿐이고 너무도 오랜시간 비행기를 탑승한 탓에 지루함과 피곤함으로 인해 북경의 향산반점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휴식을 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대회이고 보니 얼떨떨한 상태이어서

국제위원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몰라 안타까웠다.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면서 본 풍경은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듯한 고층 건축물들의 외관상 세련미가 돋보였으며, 고대와 현대의 미가 잘 조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다는 이화원은 규모면이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대륙적 기질의 소산으로 생각되었다. 거대한 스케일, 거대하면서 다양한 문양의 장식품들과 기이한 모양의 돌로 된 정원,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9월 24일—맑음, 만리장성, 정능〉

오늘은 늦잠을 자다 김지덕 선생님의 진화를 받고 눈을 떴다. 국제위원님들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시는 동안 우리는 대회 주최측에서 준비한 별도 관광 일정을 선택하였다. 오늘의 일과는 북경의 만리장성과 명13능의 하나인 정능을 견학하는 것이었다. 아침 8시 30분에 왕선생의 안내로 인도네시아 그룹과 인터내셔널그룹으로 각각 나뉘어 버스를 타고 북경의 서북쪽 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가니 만리장성에 다다르게 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 전의 시황제가 천하통일의 대위업을 이룩한 후 구축하였다는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축조물을 보며 약간은 허전함과 함께 우리 조상님들의 숨결이 깃든 정감있는 우리의 건축공간이 웬지 모르게 그리워졌다. 다음 코스인 정능은 1584~1590년까지 건축된 명왕조 시대의 주위준이라는 황제의 묘지로서, 서로 통하는 5개의 대진(大殿)으로 대돌보와 기둥이 없는 둥근 천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여기에서 출토된 문물은 정능진열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9월 25일—맑음, 이화원, 천단궁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문은 피곤해도 오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오늘 역시 인터내셔널 그룹과 함께 왕선생의 안내로 23일 견학한 이화원과 그 내부에 있는 불향각을 견학하였다. 이 곳은 중국 정원예술을 집대성한 듯이 웅장하고도 섬세한 중국문화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볼 수 있는 길작이었다. 우선 4층 건물의 불향각을 올라가는 계단과 20개의 손을 가진 불상을 보면서 중국 공예기술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었다. 흥분된 감정을 채 식히기도 전에 이화원 소주가(蘇州街)를 견학하였다. 이데리의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소주는 'Palace Bazaars'라 불리는 이화원과 더불어 고대 중국의 유일한 '궁시(宮市)'였다. 장난감을 보는 듯한 아기자기함과 주위를 돌 수 있는 거리외에 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인상깊은 거리였다.

오후의 관광코스는 천단공원이었다. 축의 개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천단공원은 원형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중국 고대 건축물의 내부장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란함, 섬세함과 거대함에는 우리의 '정다움'이나 '부드러움'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을 내려다보고 지배하려는 건물 이미지로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보니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온 대표단일행들께서 도착해 계셨다. 백두산의 경이로운 풍경에 모두들 감탄해 하시며 백두산 천지의 물맛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9월 26일-맑음, 북경 시내 집단주거, 천안문, 자금성〉

오늘은 중국건축사협회가 참가자 전원을 위하여 공식으로 준비한 관광 견학일정이다. 북경 시내의 집합주거와 천안문 앞 광장, 그리고 자금성을 견학 하였다. 이제까지의 일정 가운데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날이었다. 오전의 집합주거 견학은 참으로 유익한 코스였다. 우선 중국 현대건축의 현주소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첫번째 주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중정 Type의 주거로서 특색이 있다면 큰 중정 옆에 작은 중정을 배치했다는 점과 적지 않은 공간을 자전거 창고로 할애했다는 점이였다.

내부는 방 3개와 주방, 화장실 그리고 식당 겸 거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아기자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크기는 18평 정도의 규모였다.

두번째 주거는 평범한 연립주거로서 단지 특색이라면 이화원의 지붕 형상을 인용한 듯한 지붕곡선이였다. 오전의 주거견학시 느낀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도 전통이라는 개념의 현대적 해석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절대왕권시대의 거칠 것 없는 공간표현이 아니라 어느정도 제약된 조건하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시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문 광장과 화려하고 웅대한 자금성을

견학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김환성 선생님과 우리는 천안문의 반대쪽에 위치한 신문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여러 선생님께서 천안문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천안문 앞으로 약속시간에 맞추어 갔으나 우리 일행만 있을뿐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와 왕선생은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일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자 그제서야 우리는 왕선생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음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지던 방문일정이 벌써 마지막 7일째를 맞았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재삼 정리해 보았다. 중국 건축의 거대함과 섬세함, 좋은 점과 이해하지 못할 점 등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국제미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신문문 앞으로 가 보았으나 역시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을 기다리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였다. 김환성 선생님과 우리는 낙심하여 천안문 광장으로 다시 가보니 김지덕 국제위원장님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계셨다. 문화갤러리 앞에 차가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인력거를 타고 문화갤러리 앞에 도착하니 버스가 있어 향산반점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먼 미국땅에까지 와서 일행을 잃고 우왕좌왕 해내었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9월 27일-맑음, Forum 6 참가〉

Forum 6의 주제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New Thoughts on Mass Housing in the Asian Context'라는 주제로 각국에서 다섯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오전에 중국의 Lin Zhiqun, 일본의 Akira Ozawa, 그리고 인도의 Raj Rewal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오후 2시부터는 말레이시아의 Lew Kwong Yan과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국 Tsinghua 대학교 건축과 Lin Zhiqun 교수는 '중국의 주택-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전통 주거양식을 설명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3가지 전망을 보면, 첫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난 40년간의 주거양식의

변화와 개발단계를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둘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건축사들이 자기 표출 보다는 자신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심분 발휘하여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과감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 동경대학교 Akira Ozawa교수는 집단 공동주택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마리에, 동경이 국제적인 도시의 하나로 급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 이로 인한 주택공급의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경의 경우와 같이 중국도 이제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내의 집단주택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활양식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인도의 Raj Rewal, 말레이시아의 Lew Kwong Yan,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저녁에 Dancing Party에서는 각 나라마다 장기자랑도 하고, 음악에 맞추어 서로 춤을 추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황길순이 '88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Hand in Hand'를 불러 지난 88년 잠실경기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리던 올림픽 폐회식 장면이 순간 떠오르기도 했고,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을 보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기억속에 이 곡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했다.

〈9월 28일-맑음, Forum 6 참가〉

오늘은 Forum 6 공식행사의 마지막 날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전날의 발표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과 참가자들의 질의 및 제안,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Forum 6가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지던 방문일정이 벌써 마지막 7일째를 맞았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재삼 정리해 보았다. 중국 건축의 거대함과 섬세함, 좋은 점과 이해하지 못할 점 등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이처럼 좋은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이번 방문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으신 국제위원들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1년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0월분 7백65만8천4백7㎡보다 31.01%(2백37만4천5백20㎡) 증가한 1천3만2천9백27㎡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0월분 합계 1억1천6백91만5천74㎡보다 1.79%(2백9만1천7백49㎡) 감소한 1억1천4백82만3천3백25㎡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9월분 8백76만7천8백39㎡보다 14.43%(1천2백65만5천88㎡) 증가한 1천3만2천9백2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419,978	544,146	124,168	29.57%
	인천	268,685	419,546	150,861	56.15%
	광주	118,278	305,434	187,156	158.23%
	대전	343,725	494,314	150,589	43.81%
	경기	1,661,554	2,292,295	630,741	37.96%
	강원	215,248	443,457	228,209	106.02%
	충남	205,348	562,008	356,660	173.69%
	전북	294,921	364,051	69,130	23.44%
	전남	202,111	247,307	45,196	22.36%
	경북	436,128	472,302	36,174	8.29%
	경남	732,867	1,337,951	605,064	82.56%
	제주	72,455	160,849	88,394	122.00%
감소지역	서울	1,796,948	1,710,600	(86,348)	-4.81%
	대구	432,815	389,135	(43,680)	-10.09%
	충북	457,326	289,532	(167,794)	-36.69%
합계	7,658,407	10,032,927	2,374,520	31.01%	

10월분 도서신고 용도별 전월비

(연면적 기준)

(단위/㎡)

종별	9월분	10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705,441	631,839	(73,602)	-10.43%
다세대주택	468,697	292,077	(176,620)	-37.68%
연립주택	206,652	262,001	55,349	26.78%
아파트	3,652,634	4,424,513	771,879	21.13%
근린생활시설	1,001,003	1,273,340	272,337	27.21%
종교시설	64,013	77,701	13,688	21.38%
의료시설	42,471	17,845	(24,626)	-57.98%
교육연구시설	368,783	328,405	(40,378)	-10.95%
업무시설	396,790	477,748	80,958	20.40%
숙박시설	31,612	64,066	32,454	102.66%
공장	1,161,900	1,112,665	(49,235)	-4.24%
기타	667,843	1,070,727	402,884	60.33%
계	8,767,839	10,032,927	1,265,088	14.43%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0月分)

구분	산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등수	연면적	건수	등수	연면적	건수	등수	연면적	건수	등수	연면적
서울건축사회	1,180	1,332	1,655,771	104	109	54,829	0	0	0	1,284	1,441	1,710,600
부산건축사회	1,291	1,459	450,411	216	260	60,535	55	64	33,200	1,562	1,783	544,146
대구건축사회	367	428	352,310	478	494	17,823	42	42	19,002	887	964	389,135
인천건축사회	283	359	380,918	31	33	28,619	25	25	10,009	339	417	419,546
광주건축사회	286	361	269,182	102	115	30,417	13	13	5,835	401	489	305,434
대전건축사회	214	275	446,109	44	44	23,318	116	119	24,887	374	438	494,314
경기건축사회	1,342	1,994	2,077,356	210	248	133,235	102	102	81,704	1,654	2,344	2,292,295
강원건축사회	478	575	408,926	119	134	31,290	19	20	3,241	616	729	443,457
충북건축사회	614	712	263,872	97	110	23,121	53	53	2,539	764	875	289,532
충남건축사회	455	552	470,980	134	139	63,330	20	20	27,698	609	711	562,008
전북건축사회	355	434	305,695	86	94	53,201	18	18	5,155	459	546	364,051
전남건축사회	562	709	176,726	132	168	63,100	37	44	7,481	731	921	247,307
경북건축사회	752	898	377,283	179	204	75,490	25	25	19,529	956	1,127	472,302
경남건축사회	1,131	1,478	1,240,228	234	284	54,703	41	57	43,020	1,406	1,819	1,337,951
제주건축사회	210	244	152,425	126	128	8,424	0	0	0	336	372	160,849
합계	9,520	11,810	9,028,192	2,292	2,564	721,435	566	602	283,300	12,378	14,976	10,032,927

1991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구분	신 축·개 축·제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건축사회	34,161	35,565	20,891,902	866	918	536,228	0	0	0	35,027	36,483	21,428,130
부산건축사회	14,399	17,710	7,624,681	1,981	2,513	483,152	396	447	218,776	16,776	20,670	8,326,609
대구건축사회	6,728	7,511	4,484,108	4,212	4,425	388,296	338	342	169,760	11,278	12,278	5,042,164
인천건축사회	3,940	4,947	5,549,094	257	299	179,877	198	203	93,899	4,395	5,449	5,822,870
광주건축사회	4,060	4,458	2,393,833	811	864	263,746	98	98	26,042	4,969	5,420	2,683,621
대전건축사회	3,422	4,300	5,296,759	401	430	202,658	909	968	150,603	4,732	5,698	5,650,020
경기건축사회	21,088	25,964	24,372,446	1,770	2,034	1,004,305	754	754	651,764	23,612	28,752	26,028,515
강원건축사회	4,809	5,542	2,232,632	1,153	1,373	343,596	177	179	50,997	6,139	7,094	2,627,225
충북건축사회	6,003	7,187	3,821,498	1,006	1,241	490,971	511	511	78,499	7,520	8,939	4,390,968
충남건축사회	5,126	5,576	3,679,967	1,209	1,220	443,563	314	318	129,299	6,649	7,114	4,252,829
전북건축사회	3,450	4,178	3,065,316	787	891	571,944	187	189	48,429	4,424	5,258	3,685,689
전남건축사회	5,521	6,549	2,787,601	1,247	1,677	504,822	269	304	67,371	7,037	8,530	3,359,794
경북건축사회	7,855	9,339	5,187,693	1,711	2,103	1,213,939	208	215	145,915	9,774	11,657	6,547,547
경남건축사회	12,727	15,570	12,752,225	2,126	2,518	779,177	360	394	175,333	15,213	18,482	13,706,735
제주건축사회	2,369	2,735	1,177,251	1,030	1,044	93,358	0	0	0	3,399	3,779	1,270,609
합 계	135,658	157,131	105,317,006	20,567	23,550	7,499,632	4,719	4,922	2,006,687	160,944	185,603	114,823,325

1991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구분	신 축·개 축·제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661	3,785	577,120	881	927	50,857	66	66	3,862	4,608	4,778	631,839
다세대주택	446	599	289,351	38	40	975	18	21	1,751	502	660	292,077
연립주택	102	141	261,756	1	1	245	2	2	0	105	144	262,001
아파트	186	1,167	4,423,794	5	8	719	0	0	0	191	1,175	4,424,513
근린생활시설	3,198	3,327	1,101,032	536	551	76,622	278	281	95,686	4,012	4,159	1,273,340
종교시설	108	130	60,637	54	60	15,721	7	7	1,343	169	197	77,701
의료시설	3	3	527	12	14	11,666	1	1	5,652	16	18	17,845
교육연구시설	59	84	198,937	67	76	107,282	33	33	22,186	159	193	328,405
업무시설	111	130	441,347	46	51	23,399	23	23	13,002	180	204	477,748
숙박시설	20	22	48,235	5	5	776	5	5	15,056	30	32	64,066
공장	537	985	740,748	279	396	307,832	60	78	64,085	876	1,459	1,112,665
기타	1,089	1,437	884,709	368	435	125,341	73	85	60,677	1,530	1,957	1,070,727
합 계	9,520	11,810	9,028,192	2,292	2,564	721,435	566	602	283,300	12,378	14,976	10,032,927

1991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구분	신 축·개 축·제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4,658	66,490	10,832,129	8,854	9,288	577,759	582	586	41,845	74,094	76,364	11,451,733
다세대주택	13,477	15,292	7,043,662	313	334	29,818	175	211	15,655	13,966	15,837	7,089,135
연립주택	1,189	1,638	2,264,457	32	35	12,584	8	8	1,116	1,229	1,681	2,278,157
아파트	2,301	11,134	46,877,547	114	192	298,781	44	63	65,452	2,459	11,389	47,241,780
근린생활시설	37,831	39,749	16,833,842	4,573	4,762	927,440	2,483	2,521	746,330	44,887	47,032	18,507,612
종교시설	894	1,062	565,155	439	502	175,326	61	64	20,135	1,394	1,628	760,616
의료시설	74	95	426,430	82	96	120,466	23	26	15,741	179	217	562,637
교육연구시설	477	682	1,741,084	595	750	779,875	228	239	115,364	1,300	1,671	2,636,323
업무시설	1,312	1,438	5,122,063	469	499	307,430	119	120	134,021	1,900	2,057	5,563,514
숙박시설	206	272	589,690	76	105	61,925	82	85	92,224	364	462	743,839
공장	4,933	8,585	7,686,839	2,303	3,705	2,956,379	457	507	342,928	7,633	12,797	10,966,146
기타	8,306	10,694	5,334,108	2,717	3,282	1,251,849	457	492	415,876	11,480	14,468	7,001,833
합 계	135,658	157,131	105,317,006	20,567	23,550	7,499,632	4,719	4,922	2,006,687	160,944	185,603	114,823,325

開 會 辭

오늘 본 협회의 제26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먼저 존경하는 이진설 건설부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이상룡 건설부차관님을 비롯하여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님, 윤도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차가운 날씨와 공사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각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건축사회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과 대의원이 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축하와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협회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본 협회는 26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여러 선배회원과 동료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3천7백여 회원을 포용한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단체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듯 축적되어진 역량을 바탕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면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건축사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화합하는 가운데 협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속해있는 각 지역에서 건축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가면서 회원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의 사무소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변조치는 비단 건축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할 어려운 문제로, 정부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부득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열양상이 진정되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를 조속히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 또한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대다수 회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경제 난국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조금은 참고, 협조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다수의원의 요망사항으로서 수년전부터 본협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건축사사무소의 단독·종합등 구분등록제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시일내 개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건축사법 시행령상의 단독 사무소 업무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정부당국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머지않아 개정되어질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단독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다수 회원 여러분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각종 건축관련법령의 효율적인 개정 추진과 지방자치체에 대비한 협회운영체제의 개선방안 강구,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건축사연금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대책방안 강구, 협회업무의 전산화 추진 및 회원업무전산화 지원방안 강구,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업무침해 방지대책추진 등 많은 현안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남은 임기동안 협회의 발전과 회원을 위하여 더욱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위한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11.29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致 辭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오운동 회장님을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과 내외귀빈을 모신 가운데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3천7백여 회원을 지닌 건축계의 대표적 직능단체로 성장해서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구어 온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우리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 시대의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의 하나로서 후손에게 길이 전승되어 가는 조형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관한 투자가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서 90년의 경우 GNP의 약 14%에 해당하는 20조원이 투자된 점을 감안할 때 건축사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 시대의 건축문화를 창조함과 아울러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 불투명 건설분야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건축설계분야의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여러분이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 건축사 여러분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관계 법령 등 관련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추세에 따른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의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본인은 전국의 건축사 대외원이 함께 한 이 자리를 빌어 건설경기의 이상과열로 인한 정부의 건축제한이 우리 경제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시고 대승적 견지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곧 가시화되면 머지 않아서 제한조치가 해제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위법건축물과 불법 부조리추방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제2단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활기찬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봉토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이 총회가 건축사 여러분의 시대적 소명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또 건축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11.29
建設部長官 李鎮高



第26回 定期總會 개최



정기총회 전경



개회사를 하는 오순동 회장



건설부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이상룡차관

본 협회 제26회 정기총회가 지난 29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제적대의원 398명중 332명이 참석한 가운데 吳雲東회장의 成員報告로 개최되어 국민의례와 건축사현장 낭독이 있은 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개회사에서 吳雲東회장은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조속한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해 당국과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경제 난국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인내하며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했다.

그리고 단독사무소 업무범위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판계법령의 효율적개정추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협회 운영체제개선 등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잔여임기동안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룡건설부차관이 대독한 장관치사에서 이진설장관은 「UR에 따른 건축설계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기술개발연구 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만

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최이호 국회건설위원회 위원, 신현식 대한건축학회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회의록 승인과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92년도 시·도건축사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보고를 듣고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 유경철대 의원의 동의와 대의원 만장일치로 부의안건 상정에 있어 심의 순서를 집행부 원안에서 제6호의(안)인 건축사연금규정개정(안)승인의 건을 제2호의 안으로 하고 나머지의 안은 차례로 순연해서 일괄하여 의장이 상정한 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2시5분에 의장이 속개를 선포하고 부의안건처리에 들어가 제1호의안: '91년도 제1차 특별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제3호의안: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제4호의안: '92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92년도 건축법령 연구소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건축사연금 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順으로 일괄 상정하여 개별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91년도 제1차 특별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2호의안: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승인의 건은 강기세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을 폐기하자는 동의를 있어 거수표결 146인의 찬성으로 원안이 폐기되었다.

• 제3호의안: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국건축사대회비 8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개의에 대해서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 제4호의안: '92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조

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통과시키지는 동의에 만장일치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 제5호의안: '92년도 건축법령 연구소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2개월마다 받는다는 조건하에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6호의안: '92년도 건축사 연금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 제7호의안: 임원개선의 건은 감사1인과 이사 5인의 선출로서 이사5인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선임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여 의장이 지명한 장기웅, 이의구, 정소, 김무연, 강대석대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1인은 대의원의 호선으로 강우석선출이사가 만장일치로 감사에 선출되었으며 결원된 참여이사1인에 김지덕회원을 의장이 선임한 후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다.



새질서 새생활 결의문 채택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중언 감사



신임임원 소개



姜泰錫

- 40년 11월20일생
- 66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85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수료
- 84.3. ~87.3. 대한건축학회 이사
- 89.11~90.12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현재 (주)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鄭昭

- 42년 3월6일생
- 67년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 86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졸업
- 87년 서울건축사회 감사, 감사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건축(주)대표



金武彦

- 43년 6월17일생
- 65년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 현재 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룸 대표



金知德

- 42년 3월30일생
- 6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77년 전북대 공과대학원 졸업
- 83.1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부위원장 및 위원장
- 현재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李義求

- 41년 1월15일생
- 63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91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취임 (홍보위원장위원장)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사 대표



張基雄

- 39년 1월15일생
- 64년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 84년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 87.11.1~91.11.11 대구건축사협회 회장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대동·협동 대표



康祐植

- 35년 2월20일생
- 60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86.12.5~89.1.31 충남건축사협회 회장 역임
- 90.12.1~91.11.30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 현재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학 건축과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李文雨)는 지난 22일 대학과의 긴밀한 유대를 이루어 교육과 실무에 있어 실습, 취업, 정보교환 등을 통한 산·학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건축심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등을 협의하여 회원 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대학건축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과 교수들은 한국 건축전작품공모에서 있어 실무에 적용되는 주제와 조건으로 공모할 것과 건축사무소의 수급

인원을 협회에서 취합, 수급인원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각 대학과 건축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요청하였으며,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심의시 실무업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심의하고 대학에서 실기교육에 있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산·학 협동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서울건축사회 간담회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 결의 대회

光州건축회장(회장徐延珉)에서는 지난 2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치, 낭비, 과소비 풍조를 바로 잡고 땀흘려 일하는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개최된 이날 대회는 지역사회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회원 친목단합행사 개최

光州건축사회(회장徐延珉) 지난 15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회원친목단합행사를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코자 실시한 이번 단합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참석자 전원에게 운동복 및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서로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친선체육대회 개최

忠北건축사회(회장李容鐵)에서는 지난 20일 관내회원 및 보조원과 가족들의 친목도모 유대강화를 위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충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에는 배구, 족구, 율놀이 등을 통하여 회원 보조원, 가족들의 우의와 친목을 다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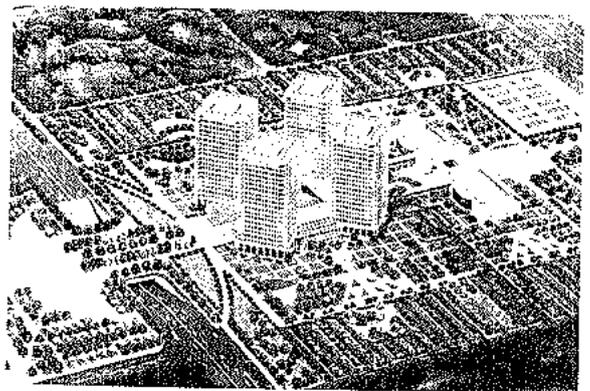
건설위원 및 관계관 초청 간담회

慶南건축사회(회장崔鳳享)에서는 지난달 7일 경남건축사회관 소회의실에서 경남의회 건설위원 및 관계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회장을 포함한 분회임원 19명과 경남의회 건설위원 18명,

관계관 1명 등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주차장법관련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 등 건축계 전반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제3청사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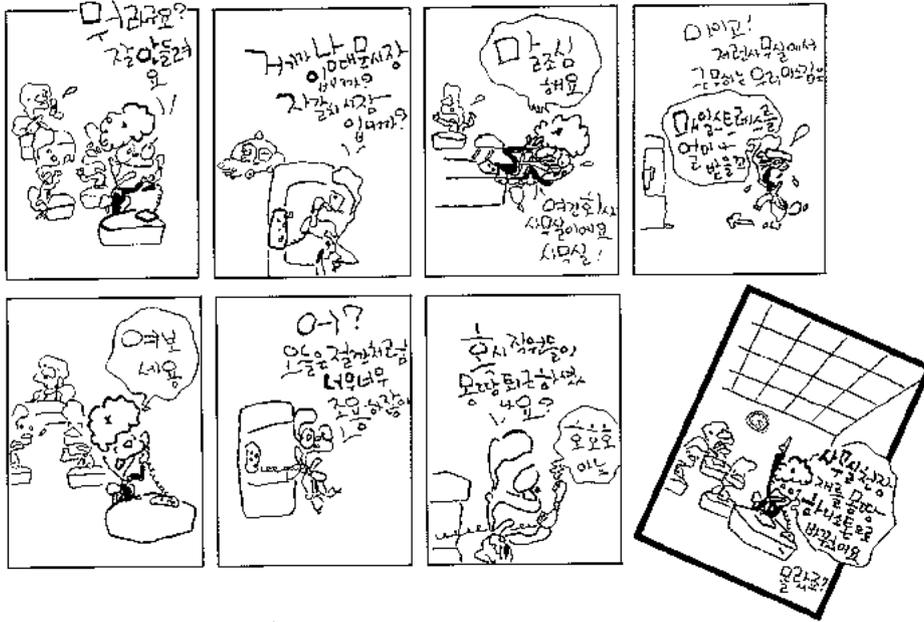
대전 둔산지구에 들어설 정부제3청사 현양 설계공모결과 삼우종합건축(대표:김칭수)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총 40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엄이종합건축(대표 엄덕문)과 건원국제종합건축(대표 한현호)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삼우종합

건축안은 부지중앙에 지상20층 지하3층의 건물4개동을 마름모꼴로 배열한 보양으로 낮은층에는 후생안내등 공용시설을 높은층에는 일반사무실을 배치하고 첨단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쉽도록 계획되었다. 청사는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95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96년에 조달청의 10개 청급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좋은 천장재의 조건은?



- 첫째, 소리를 잘 흡수하고,
- 둘째, 열을 차단시켜 주고,
- 셋째, 가벼워야 하며,
- 넷째, 불에 타지 않고,
- 다섯째, 미관에 좋고,
- 여섯째, 시공과 사후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천장재는 유리섬유로 만든 한글라스 "하니소톤"뿐

이렇게 좋습니다.

- 실내소음의 거의 2/3를 흡수하는 하니소톤은 흡음력이 뛰어나, 인락한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최신타의 TEL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를 응용한 하니소톤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 다른 천장재보다 훨씬 가벼워 대형건물 시공에 적합하며 색상이 다양해 기호에 따라 선택교체 할 수 있고 시공후 파손될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 입니다.
- T-Bar공법으로 시공되는 하니소톤은 시공 및 보수가 간편하며 인장력이 뛰어나 시공후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고 수축분리 현상이 없습니다.
- 천연규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드는 하니소톤은 인체에 해가 없음을 물론 불에 타지않아 화재시에도 질식의 위험이 없습니다.
- 조명반사율이 70%가 넘어 밝은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보수가 편리한 하니소톤은 사무실이나 교실, 복도, 식당 같은 소음 발생이 심한 곳과 회의실, 교회, 강당, 체육관 같은 방음이나 음향이 중요시 되는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먼저 보십시오.
분서(서울)/785-0311 (하니소톤사업본부 영업부)
대전영업소/621-4538 • 광주영업소/525-9711
대구영업소/425-1241 • 부산영업소/462-0311



하니소톤

우려하면 "한글라스", 한글라스하면 "한글라스"





건축용 단열재에는 —

왜, 청색스치로폴을 써야 할까요?



“스치로폴은 단열재의 생명인 내수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예림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황 임 규 *황임규*

스치로폴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청색스치로폴은 오로지 단열재로만 쓰입니다. 한남화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포성 폴리스티렌, 청색스치로폴!

내수성이 뛰어나 시공후에도 단열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절약형 단열재입니다. 건축용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꼭 청색을 확인하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쾌적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물 청색스치로폴은 물에 강합니다!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단열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벽을 헐고 재시공해야 합니다. (물 1% 흡수시 성능 7% 저하)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폴리스티렌 수지를 원료로 하는 반영구적 단열재입니다.

강도 청색스치로폴은 압축강도가 뛰어납니다! 내압강도가 높고 압축강도 또한 설계적재하중보다 60배 정도가 높은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 건물바닥이나 옥상 등 적재하중이 요구되는 단열시공에 좋은 단열재입니다.

불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스스로 꺼집니다! 국내 최초로 UL 난연 시험에 합격한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붙었다가도 화염만 제거해주면 3초 이내에 불이 스스로 꺼지는 자기소화성 단열재입니다. (UL 94 HF-1 등급 인증)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원색 스치로폴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84-2211~9(교번 2671/2)